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snuausa@snuaa.org
website: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구경희
편집인 : 김정수

월간 96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2년 2월 28일

吳仁錫동문 총동창회 冠岳大賞 수상

오인석(법대 58년 입, 재미 총동창회 명예회장겸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위원장) 동문이 총동창회가 제정한 제 4회 冠岳大賞 參與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3월 15일 오후 6시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있을 시상식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3면에 계속>

총동창회보 시카고 소식지 역할 대행 시카고 동창회 지역회보 발행 중단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의대 65년 졸)는 금년 첫 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년 3-4번씩 발간하던 시카고 지역 동창회보를 매년 1회에 국한하기로 하고, 지역 동창회보(Newsletter)의 기능을 재미 총동창회보 지역 소식란에 대행하도록 결의하였다(회보 #95호의 21면 보도 기사 참조). 이 조치는 지역 동창회보의 별도 발간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절약 할 뿐만 아니라 지역소식을 매월 재미 총동창회보에 게재함으로써, 지역 동문들간에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에 대한 개별 동문 독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시카고 지역 동창회에서 편집된 소식과 자료를 재미 총동창회는 회보의 제 3부 "지역 소식란"에 매달 시카고 지역 동창회란에 인쇄하여 게재하게 되는 셈이다.

동창회 버팀목들

윤정옥 동문 후원회 終身 이사 참여

NY의 윤정옥(尹正玉, 약대 50 입, 모교와 후진을 위한 관리 위원)은 재미 총동창회의 안정적인 장기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관악후원회 중신이사회비 3천불을 보내왔다. 9.11 사태이후 어려운 NY 지역의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미 동창회보의 지속적인 발간의 기초 자원 확보에 출연하신 尹동문에게 재미 총동창회는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사진 2면>

최수용 동문 母校와 後進 기금 5천불 쾌척

NY의 최수용 동문(崔洙容, 상대 55년 입)은 재미 총동창회가 모교와 후진을 위한 100만불 기금의 기초 마련을 위한 동문 독자들로 구성된 "Anchor Donor"로서 2만불을 약정한 바 작년에 5천불을 납입하였고 금년에 2차 분 5,000불을 출연하였다. 또한 최 동문은 재미 총동창회의 사업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중신이사회에 참여를 위하여 우선 5백불을 보내 왔다. 재미 총동창회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사진 2면>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6면

동창회보 질향상과 自助自立 추진

이용락회장 NE / LA 지역 동창회 순방서 역설

모교를 고양하는 재미 총동창회의 기간 매체인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재정의 자립을 제 6대 집행부의 금년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각 지역 동창회 소속 동문들과 대화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이용락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공대 53년 졸)은 지난달 NE 지역 동창회 (회장 이재선) 신년회와 이달 2월 15일에 개최된 LA 지역 동창회에 참석하였다. NE 지역동창회 신년회에 참석한 이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여서 지역사회의 향상은 물론 동창회 자체의 질도 높힐 뿐만 아니라, 재미총동창회의 앞날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역설하였다. 이튿날에는 지역 동창회의 주요 간부들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회장은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발족한지 겨우 5년도 채 못되면서 급속히 발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참석한 간부들에게 더욱 분발하여서 동창회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역사가 깊은 시카고 동창회에서 운영하여 오고 있는 장학금 운영과 기금 확보 등을 예를 들었다(간담회 초록 2면 참조). 또, 이회장은 "지역동창회가 총동창회를 도와 줄 명분을 주어야 된다"는 뉴잉글랜드 지부 동창회 박경민 고문(의대 53입)의 제언에 대한 답변 중에, "지금 총동창회에서는 장차의 동창회 기금 확보 사업의 하나로 재미 총동창회 주관, 전 미주 지역 순방 초청 음악회를 지역 동창회와의 협조로 개최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동창회가 총동창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였다. (특별기고 윤상래 동문)

逸失된 동창회보 출현 시작

지난 호에 "재미 총동창회보 영구 보존을 위한 회보 결본(1-22) 찾습니다"라는 보도가 난 후, 무려 10년 - 8년 전의 회보이지만 이를 수장가의 보물처럼 정갈하게 간직하고 있는 동문들이 출현하고 있어 회보 발행 관계자들을 감동케 하고, 동문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는 재미동창회보의 질적 향상이란 과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 시카고 지역 동창회에 소속한 Orland Park에 거주하는 최애옥(간호대 50년 졸, 연락처 708-614-0584)동문이 회보 편집실로 완벽하게 보존된 회보 3개를 (지난해 이미 NY으로 구독료를 보냈지만) 다시 한번 구독료와 함께 보내왔다. <아래 그림>



또, 조지아지역 동창회에 소속한 치과의사 김예순(문리대 68년, 관악후원회 이사, 연락처 770-368-9700)동문이 회보 8개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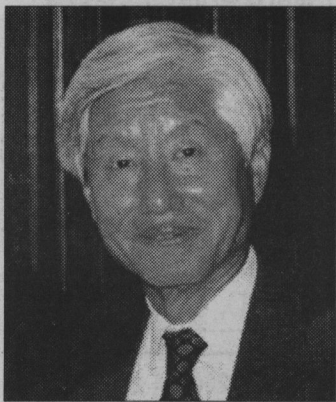
각종의 많은 유인물 홍수 속에서 옛 재미 동창회보를 보존하고 계신 두 분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동문들로부터 영구 보존용으로 쓸 결본 된 회보가 전부 발견되도록, 서재와 다락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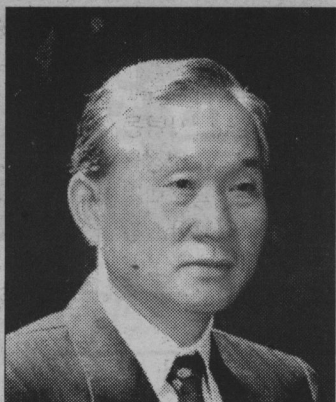
冬眠에서 깨어나 茫茫大海로 출범을 준비하는 "同窓船團" / 동백꽃이 만발을 터는 겨울바다와 남해안 尙州浦의 어선들.



동창회를 뒷받치는 동문 篤志家들



관악후원 종신이사 윤정욱 동문



Anchor Donor 최수용 동문

이용락 회장 NE 동문들과 간담회(抄錄)

李 회장은 NE 신년회 다음날 NE 지역 동문들과 조찬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의 목적은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와 지역 동창회간의 긴밀한 제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었는데, 이 자리에는 이재신 지역동창회 회장(공대), 정정욱 차기 회장(의대)내외, 박경민 평의원, 윤상래 기획부장 내외, 변종원 총무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있는 주요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회장은 지역동창회와 총동창회의 협력과 유대를 증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음악회 개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두가지 음악회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음.

첫째는 이미 모교와 예비 접촉을 마치고 실시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모교 음대 재학생 순회공연 건에 대하여, 순방단 인원이 10명 정도면 별 문제없이 New England 지역동창회에서 음악회 개최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도달하였다.

둘째로는 조수미 초청 음악회에 대해서 의논했다. 그러나 New England 지역의 동문 수가 대도시 New York, LA, Chicago 등에 비하여 작으므로 경비, 수익을 인원수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관악후원 이사 추천 건 이재신 NE 회장은 관악후원이사 후보자 명단을 이회장에게 수교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로서 NE 지역동창회의 년 \$300의 이사회비중 일부를 관악후원회 및 신문구독료로 총동창회에 납입하던 전통에서 금년부터는 년 이사회비를 \$200로 낮추는 동시에 관

악후원 이사회비와 회보구독료의 납부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긴 관계로 이들 납입금의 납부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New England 지역동창회는 다음 이사회에서 잠정적인 절충방안을 의논하기로 했음.

(3) 회보에 게재할 자료 수집의 건 이 회장의 회보 내용에 대한 독자로서의 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에, NE 동문들은 매우 좋은 신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 이 회장은 New England 지역 동문들은 과거에도 회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많이 공헌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4) Providence 지역 방문 조찬 간담회 후 정정욱 차기회장의 안내로 李會長은 Providence를 방문하여 그곳의 강경식 명예회장 내외, 안광원 지역동창회 이사 내외, 윤선홍 관악후원회 종신이사 내외, 한서동 동문 내외와 간담회를 계속했다.

간담회의 장소는 안광원 동문 자택이었는데 (안주인인 Mrs. Ahn은 조수미 초청 음악회에서 제작된 CD 한 개를 주문하면서 \$100을 지불한데 대하여) 이회장은 감사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 회장은 재미 동창회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견을 물었을 때, 참석동문들은 현재 발간되고 있는 회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李會長은 Providence 지역의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여 회보의 수준을 높일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李會長은 동문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방안등에 참석한 동문들과 환담을 나누고, 밤늦게 까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회장 내외는 안광원 동문 댁에서 1박할수 있는 영광을 가졌다.

제 4차 상임임원회 및 회보 실행 편집위원회 개최

재미 총동창회의 약진을 기운을 발하는 壬午年 들어 첫 모임인 재미 총동창회 상임임원회와 동창회보 간행의 자문역할을 해온 동문들로 구성된 "실행 편집위원회"의 새해 相見禮(Let's get together)가 이용락 회장대(1010 W. Lonquist, Mt. Prospect, IL)에서 2월 9일(토요일) 있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있던 제4차 집행부 상임위원회의(구성원: 회장, 관악후원회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 재무, 섭외 및 출판국장)는 사정에 의해 불참한 구경회 사무총장을 대행하여 김정주 총무국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이용락 회장으로 부터 뉴잉글랜드지역동창회 방문 결과와 LA지역 동창회 순방 계획 보고가 있었고 참석임원(사무총장, 재무국장 불참)들은 재미동창회보의 광고면 활용방안, 6월에 개최될 제11차 평의원회와 지난해 동창회 본부 이전으로 지연된 총동창회 발족 10주년 기념식 준비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광고에 관하여는 재미동창회보 발간 비용의 충당을 위해 광고 수입을 확보할 방안과 게재

광고의 채택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본부이전 및 회보 발행정착 등 선결문제로 주력하지 못한 광고수입 증대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중점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광고채택 기준에 관한 토론이 있어서, 재미 총동창회보는 광고 없는 순수 지면을 유지하는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색채가 없는 상업광고의 수입은 회보 3부 끝의 "Dollor boxes"의 공간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증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연기된 총동창회 발족 10주년 기념식은 금년 6월 제 11차 평의원회가 열리는 주의 (6월 15일 평의원회 일자 변경에 관하여 서면 투표 진행중임) 첫날인 금요일에 별도의 모임을 갖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업무를 사무총장, 총무국장 및 섭외국장을 중심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촉박한 시간과 준비문제로 지난 2월에 예정되었다 연기된 모교 음대 학생으로 구성되는 미주 순방 공연 계획은 가을 공연을 목표로 정호 출판국장이 주관하여 모교와 접촉하여 추진하도록 위임하

였다. 이어 열린 "실행편집위원회"는 한국을 여행중인 김정주 회보 편집인(문리대 '69 입)이 보내온 6가지의 설문과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발행된 시합판과 #90-#95까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3부로 나누어 발행되는 32면의 구성비율(1부 3면, 2부 11면, 3부 11면, 기타 7면)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었는데, 1부 기사 중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임원회의 사항 등은 전면보다 제 2면에 게재하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독자 여론조사들을 집계하여 회보에 공표하여 미주전역 동문들의 의견을 듣고, 또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7인 편집위원들로 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회보에 대한 평가 검토 의견도 수렴을 구하기로 하였다.

이 모임에는 임원들과 함께 이윤모, 박영규, 신석균, 이승자, 조대현 동문 부부와 재미동창회 사무실에서 수고하는 박미경씨 부부가 참석하였다.

조수미 CD 인기 꾸준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4천5백불 확보

Washington 지역 동창회에서 지난해 8월 25일에 주최한 세계적인 동문 성악가 조수미양의 음악회를 담은 한정판 CD 500개를 보내와 총동창회 사무실은 이를 판매하고 있는데 개별 동문들로부터 꾸준히 주문이 오고 있다.

NE 지역 동창회는 50개를, LA 지역 동창회는 120개를 단체 구매하였다.

현재까지의 판매 대금 중 300개 본인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으로 \$4,500을 입금하였고, 잔여 판매 분은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발간을 위한 관악후원금으로 적립될 것이다.

잔여 분은 주문서를 접수 하는대로 선착순 판매를 계속한다.

이번 호에서는 기사첨쳐 관악후원회와 기금위원회 집계판 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후원회비와 기금을 보내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Sumi Jo CD cover and track list including songs like 'Le Preaux', 'Serenade', and 'Amazing Grace'.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행 녹음 CD 판매 "Love from Washington"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의 Washington, DC Concert (2001년 8월 25일)에서 실행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편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악후원회와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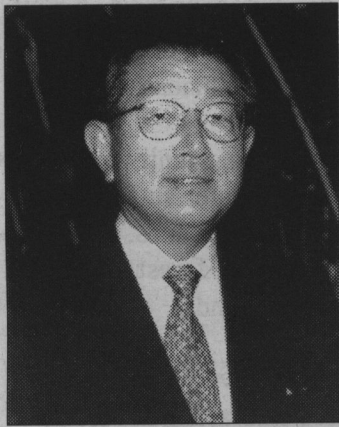
가격: CD 1개당 \$15(송료는 첫 한 개에 \$3 복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1인당): 제한 없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 주문 수량(30명 상단에 주문서를 기입하여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람).

주문처: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SNU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sunaaua@snuuaa.org *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로 작성 바람.

吳仁錫동문 冠岳大賞 수상

<1면에서 계속>

관악대상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同門(비동문) 또는 團體에 본상을 시상하여 서울대인의 귀감으로 삼고, 단체결속과 활성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시행된 상으로 서울대 同門社會에서 가장 권위있고 자랑스러운 상이다.



금년 수상자로는 參與 부문에 吳 동문이고, 協力부문에서는 孫京植 (法大 61年 卒 : 제일제당 그룹 會長) 동문이며 榮光부문에는 黃禹錫 (獸醫大 77年 卒, 母校 獸醫大 教授) 동문이 선정되었다.

재미 총동창회는 제 4대 및 5대 회장으로 4년간 재임 중에 재미 총동창회의 조직의 기초물(회원 동문들의 자료은행 확충, 재미동창회보 증면·활성화 및 지역 동창

회 등과의 유대증진 및 지부설치)을 다지고, 재미총동창회보의 지속적인 발간재원 확보를 위한 관악후원회의 활성화,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의 창안으로 모교를 고양하는 한 견인차로서의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에 진력한 吳동문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번 수상을 축하합니다.

(吳동문 자택 전화 561-336-1607)

“서울대 人名錄” 발간을 위해 동문들의 자료를 서울로 보내주시시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전체 동문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동창명부 “서울대 인명록”과 이를 담은 CD-Rom Title 발간을 위하여, 동문들로부터 자료를 모으고 있다.

모든 동문들 인명록 발간 자료를 제 28면에 있는 양식에 따라 기입하여 3월 30일까지 2002년 인명록 편집실로 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인명록은 2002년 6월경에 발간 될 예정이다.

<회원 인적사항 통보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 : 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8-5 TEL: 02)704-8301(直) FAX: 02)704-8564, E-mail: snua2002@korea.com

◇자료 송고 양식 27면 참조

李會長 NE 지역 신년회 연설문(全文)

1월 26일 5시, Western Country Club, MA

이재신 New England 지역동창회장님, 정정욱 차기회장님, 박경민 평의원님, 강경식 명예회장님, 윤상래 평의원님, 선배, 동료 및 후배동문님, NE 신년총회에 참석하신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New England 지역동 이윤락 재미 총동창회장.

창회가 소개하고 있는 Boston 지역에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관계로 오랜 동안 늘 방문하고 싶던 차 오늘 이모임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동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간략하게 우리 재미 총동창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창립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선대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미 총동창회의 운영을 자給自足할 수 없음을 여러분과 함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본 동창회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50% 이상을 소수의 독자들에게 의한 기부금으로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우리 서울대 인의 자부심으로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실 것을 여러 동문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재미 총동창회의 자給自足の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 동문들께서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의 구독료를 납부함으로써 쉽게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7,000 동문 중 소재가 확실히 파악되고 있는 4,500 명의 동문 중 3,000 명의 동문들이 구독료를 납부하면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동문들이 구독료를 납부하는 때가 오면 剩餘資金이 창출되고 본 동창회의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제 6대 집행부는 이와 같은 목표로 지난 6개월간 노력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어 구독료 납부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면 제 6대 1 차 년도가 끝날 때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로 추계한다 하더라도 그 수는 1,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구독료 납부자 수를 배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총동창회가 당면한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보가 “기다려지는 회보”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즉 동문독자들이 구독료를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느껴질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동문께서 동창회보의 논설 위원, 동문 소식을 전하는 기자, 문예 작품의 발표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덕담, 생활 지식 등을 많이 기고함으로써 우리 회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하실 수 있으며 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여러분이 그간 보이신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역량을 더욱 발휘하셔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을 크게 기대하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하실 것을 바라오며 이에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윤락

自助自立하는 서울대 동창회보

서울대학교 동문 讀者 여러분,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는 모교와 서울의 동문 및 우리 재미 동문들의 우정의 架橋입니다. 우리 동문들의 손으로 제작하는 지성인의 文筆과 論考의 場이며 친구들의 소식을 나누는 지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중에서도 玉稿와 소식, 자료를 투고하신 여러 동문들의 노력으로 우리 재미동창회보가 날로 풍요로워진 것을 감사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중단 없는 재미동창회보의 발간을 가능하게 하신 여러 동문들의 회보 구독료와 동문독자가들의 후원금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재미 동창회보는 동문들께서 정성껏 보내준 회보 구독료를 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에 아껴 쓸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自助 自立하고자 하는 재미동창회보를 위하여 모든 동문들께서 유료 구독자로 참여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2002년 2월 28일

在美 서울대 同窓會報 편집위원 일동

- 오홍조 (치대 56인), 방석훈(농대 55인), 이재택 (법대 60인), 이진구 (농대 60인), 백 순(법대 58인), 박경민 (의대 53인), 소진문 (치대 58인), 구경희 (의대 65졸)

공과대학 동문 주소록 자료 수집

工科大學 총동창회(회장 임광수)는 공과대학 동문들의 별도 주소록을 발간하기 위하여 개별 동문들의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 공과대학 동문들은 서울대학교 인명록의 자료 송고 양식(회보 27면 참조)에 따라 내용을 기입하여 아래 주소로 급히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자료투고처 주소 : 우편번호 120-70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문주소록 발간실,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번지 임광빌딩내 임광토건 주식회사, FAX: 011-82-2-360-5099 전화 : 011-82-2-360-5001 ~ 3

재미동창회보에 당신의 글을 동문들과 나눕시다

재미동창회보는 미주 전역에서 각자 전문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 동문들의 사색의 소산인 玉稿들을 모아, 우리 동문들의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보의 독자 여론 조사에서 동문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의 글을 읽고 함께 토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1) 남북한 관계의 진전 상황
- 2) 미국의 외교정책
- 3) 한국 경제
- 4) 세계 경제
- 5) 한국의 교육 개혁
- 6) Nano 기술
- 7) 생명공학
- 8) 보건 의료 분야
- 9) 조세, 은퇴, 투자 방안
- 10) 동문들의 자전적 수상, 시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11) 기타 다양한 동문들의 창의적인 글을 기다립니다.

招魂

김소월 <1902-1934>

상상하리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리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겠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리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상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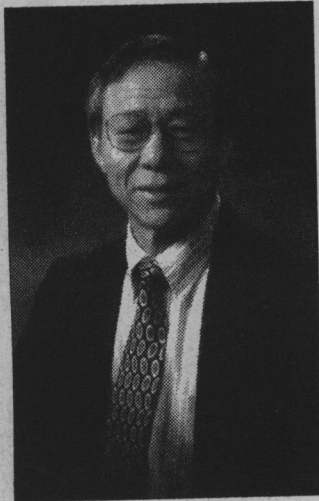
실눈에 겹도록 부르노라.
 실눈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Solitude

Jae Ro

<盧在煜, 의대 64년 졸>



Solitude comes when my mind is flying over the starry sky
 Where milky way is faintly gleaming.
 Nothing is in the sky but shiny stars.
 Fireflies are blinking while crickets are making monotonous chirpy sounds
 That are echoing through vacuous summer night air.

Solitude comes when a bob is waving gently to the breeze
 While fishes hide deep under the water surface.
 Nothing shows up but playful pair of ducks.
 Mourning doves are crying far in the forest
 That make heart aching wailing sounds.

Solitude comes when fog veils all over
 While heavy vapor condenses embracing all objects
 Nothing shows real picture but ghostly appearance
 Lamp lights on the road side are showing gleam beams around
 That reflect faces of long forgotten folks.

Solitude comes when thunderous storm overwhelms
 While the shining sun disappears behind dark clouds
 Nothing is in the sky but flocks of geese that are hurrying back to their nests.
 Thunders are galvanizing while winds are making roaring sounds
 That are shouting through heavy summer air.

Solitude comes when gleam light appears at dawn
 While vapors crystallize to form dew.
 Nothing awakes but a night stroller.
 Freight trains are passing by making tumbling noises
 That are stirring night silence.

Solitude comes when butterflies disappear
 While flowers wither away and leaves turn to auburn, yellow and res.
 Nothing blooms but autumn mums.
 Chilly winds are blowing
 That are sweeping helpless leaves away.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 1. Solitude, Rae Ro 4
- 2. 이재도군을 애도하며, 오탈희 21
- 3. 내 故鄉 13
- 4. 워싱턴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탄생의 의미, 박윤수 16
- 5. 파리의 하수도, 김희봉 5
- 6. 김희봉의 "불타는 숲" (서평), 이인선 5
- 7.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의 변화, 육길원 6
- 8. 不滿의 겨울, 고희선 7
- 9. 靚의 軸 수사와 게임이론의 한계, 이윤모 9
- 10. 부시 訪韓에 즈음하여, 김일훈 8
- 11. 한민족 雄飛의 시대를 열자(II), 김호원 12
- 12. 영혼에 대한 현대과학의 도전, 홍종한 10
- 13. Professor Inyong Ham and the Youth, 도운희 11
- 14. 고추의 기능, 서영준 14
- 15. 함흥이야기 (II), 한경섭 15
- 16. 개정된 새해 미국조세법, Sally 정 7

<편집자 註>

이제 새해가 기지개를 켜 감에 따라 96호는 同門들의 9.11 테러의 이수리장에 대한 送舊迎新의 명상으로부터 한 발짝 나아가 움직이는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文筆과 論考로 엮였다. 또 "이방의 여행자"가 22년 만에 건너는 태평양 兩岸인 韓國과 美國에는 여전히 9.11 사태의 반향이 여울지고 있었다. 反 테러 戰爭의 수행은 "美國"답게 훌륭한 것인가? "덜붙속의 皇帝"가 北韓을 靚의 축으로 지칭한 것은 韓半島의 平和 유지에 기여할 것인가? 또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미주 땅에 거주하는 우리들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동문들의 글에서 제기된다.

이번 호에 실린 육길원, 고희선, 이윤모의 글은 이러한 태평양 兩岸에서 일고 있는 9.11 테러의 반향이라 할 수 있으며, 김일훈, 김호원의 글은 태평양 건너편에서 일고 있는 반향을 가능하는 指南이 될 수 있겠다. 김희봉이 낸 수필집에서 환 경공학에 관한 글 한편을 여기에 소개한다. 홍종한의 글은 지금까지 본 지면이 다른 生命工學의 論考들과 관련하여 제기 되는 價値判斷의 문제를 論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人間의 생명과 영혼이란 무엇인가를 試論하고 있다. 도운희는 과학 교육에 기여한 "故 합인영 교수"를 추모하며 오탈희는 벗 이재도군을 애도하고 있다. 한경섭, 박윤수 및 김용건의 글은 우리의 뿌리와 관련된 세 측면인 옛 고향, 새 고향과 마음속의 고향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서울의 동창회보로 부터 글과 서영준은 한국적 저력의 맛이라 할 "고추"의 기능에 관한 논하고 있고 Sally 정은 조세납부철을 맞아 개정된 미국 조세법의 초점을 해설하고 있다.



파리의 하수도

김희봉 <공대 72년 졸, 미국 토목 환경기술사>



누군가 파리에 가면 모나리자와 루브르를 보라고 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고색 창연한 루브르에서 그녀의 신비스런 미소를 실제로 볼 수 있었음은 참 행복한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모나리자 못지않게 내심 보고 싶은 것이 두어 가지 더 있었다. 마로니에(maronnier)나무와 파리의 하수도(下水道)였다.

마로니에는 삭막했던 우리 대학 시절의 휴식처였다.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마로니에 나무 주위를 맴돌았다. 옛 동송동 교정 안 몇 그루 안 되는 마로니에 아래 모여 서로 등을 비비며 서성댔다. 그리곤 한참 유행하던 노래도 멋을 내어 불렀다. "뚜루-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이고오 있겠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국에 온 후 마로니에 나무 자체에 대한 기억이 조금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잎 모양이나 색깔 같은 것도 가물가물했다. 나는 파리의 마로니에가 꼭 보고 싶었다.

공요르드 광장에서 개선문까지 뻗은 상제리제 거리는 온통 속성한 마로니에 나무들이었다. 아직

초봄인 탓인지 마로니에 잎새는 투명한 연초록 빛이었다. 나뭇잎은 아기 손이나 작은 샷갓을 얹어 놓은 듯 앙증맞았다. 봄 소나기 뒤 먹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물기를 머금은 잎새들은 발광체같이 빛났다. 나는 화사한 나무 곁에서 서서 옛 노래를 속으로 불렀다. "지금도 마로니에는"

마로니에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지만, 내가 파리의 하수도에 호기심을 가진 것은 중학교 댕가였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혁명 전야 부상당한 학생 마리우스를 업고 하수도로 피해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지금은 상수도도 공학이 내 전공이 되었지만, 그때 나도 하수도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 줄만 알았다. 나중에야 세느 강변 하수도의 크기와 다양도에 놀라게 된 것이다. 마차가 다닐 만큼 크고 견고하게 지어 하수 배출뿐 아니라 전신, 가스배관, 전화선 등 배송 통로로 쓰였다. 하수도 관광은 세느강 알마다리 근처에서 거의 매일 있었다. 우리 관광 일행은 보트에 몸을 싣고 고유한 지반이 붙어 있는 하수도를 따

라 내려갔다.

파리엔 두 개의 파리가 있었다. 지상의 파리와 지하의 파리였다. 파리의 지하는 까다굴(Catacombs)이라고 부르는 지하묘지와 2, 100km에 달하는 하수도, 그리고 지하철이 개미구멍처럼 뚫려 있다고 했다. 지하 묘지는 옛날 채석장이었던 동굴들이었다. 1785년 파리는 시내에 흩어진 무연고 묘지를 정리, 유골들을 지하동굴로 옮겼다. 지금 약 600만 명의 파리인들의 유골이 납골돼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규모였다. 하수도도 방대한 파리의 지하를 이루고 있었다. 파리의 근대식 하수도는 대개 19세기 중반에 이어졌다. 세느강 관리장관이었던 하우스만과 엔지니어 벨그랑 등의 역작이었다. 그들은 옛 로마의 상수도 시설을 본 떠 지었다는 것이다.

하수도의 등장은 사실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더스 문명유적인 모헨조다로엔 도로 양편에 벽돌로 된 하수도가 질서정연하게 남아 있다. 놀랍게도 그때 벌써 생활오수를 모으는 오수관(汚水管)과 빗물을 모으는 우수관(雨水管)이 구분돼 있었다. 현대는 하수도의 분리가 필수적이다. 빗물은 오염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수관을 타고 강이나 바다로 직접 배출된다. 그러나 오수관은 완전히 폐쇄된 파이프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해 오염처리를 해야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도 하수도는 도시건설에 있어 중요한 분야였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와 하수도 건설은 쇠퇴했다. 중세 유럽이 왜 고대 로마보다 하수처리가 뒤떨어졌는지 당시에도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극심했던 왕정의 수탈과 개인주의가 주원인이었다. 유럽은 19세기 산업혁명이 도시마다 불어 닳았어도 하수도 사정은 여전히 열악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 맨체스터를 비롯하여 인구 100~200만에 육박하던 파리, 런던 등 대도시들에도 변변한 하수도시설이 없어 거리마다 오수와 오물이 넘쳤다. 결국 1830년대 콜레라의 만연으로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수만 명이 희생됐다. 그 원인이 오염된 식수였음이 밝혀지면서 비로소 하수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파리의 하수도 관광은 1867년 국제박람회 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고급 마차와 보트에 정장한 사람들이 태워 흰옷 입은 하수부들이 끌었다. 당시에도 하수 냄새를 화학처리와 회석으로 흠 냄새 정도 나게 했고, 지하 시설도 놀랄 정도로 크고 깨끗했다. 사람들은 하수도를 암흑의 세계로 무서워하며 호기심 이상의 관심밖에 갖지 못했던 데서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다. 위생적인 상수도 관리가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됨을 인식한 것이다. 1899년 세느강으로 오수 방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하수처리 는 새 전기를 맞게 된다.

20세기에 와서는 하수시설이 선진국의 척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가 선진 문명의 가늠이 된 것이다. 지금 영국과 프랑스의 하수도 보급률은 95%를 육박해 세계 선두다. 하수시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수입을 시설 보수에 재투자하고 있음도 선진국답다.

마로니에가 늘어난 상제리제의 아름다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있는 파리의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 파리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임을 직접 본 것이다. 파리에 가면 하수도를 꼭 보라고 권하고 싶다.

<저자의 수필집 '불타는 숲'에서 전재>

신간소개

김일훈, 한국사람이 미국사람보다 더 오래 살수 있다

서울, 이슈투데이 출판, 2002년, 가격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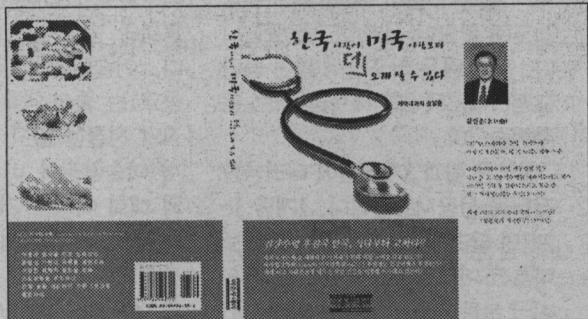
의사평론가로 활약하고 있는 김일훈 동문(의대 '57 졸, 재미 내과 전문의)은 새 저서 "한국 사람이 미국사람보다 더 오래 살수 있다"를 출간하였다.

동 저서에는 1부 건강과 건강식에서 건강수명 후진국인 한국인의 식생활과 장수국인 일본의 장수비밀, 동,서양의 식사비교 그리고 암과 그 예방 음식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2부 미국의료 살펴보기에서는 실패한 클린턴 의료개혁,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오레곤주, 테네시주의 의료 플랜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의 의료대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안락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박사는 3부 안락사와 존엄사에서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의학적 접근, 그리고 외국에



서의 안락사 존엄사의 현황 및 기독교와 존엄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재미 동문들의 건강 장수를 위하여 김일훈 동문이 권장하고 있는 식단 및 생활습관을 동문들은 읽게 불만하다.

<구입 문의처: 847-412-0936>

書評 — 김희봉, 불타는 숲

이인선 <미대72년 졸>

(서울:태학사, 2001년 9월 27일), 314면

마음에 드는 책을 만나면 끝까지 놓지 못하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移民 1세대의 바쁜 체바퀴 삶속에서도 하루 반만에 읽어 낼 수 있었던, 좋은 수필집을 만난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소개의 글을 씁니다.

김희봉님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동만 상하수도 공사 manager로 재직중임. 수년동안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발표했던 글들과 써놓고도 부끄러워 묵혀두었던 글들을 꺼내어 묶어 내놓았다고 서문에 쓰고 있습니다.

"환경과 삶 에세이" 칼럼과 "문학의 향기" 칼럼을 연재해온 그는 북 가주에서는 잘 알려진 수필작가입니다.

환경공학 전문인이지만 현대 수필 신인상(97년)을 받은바 있는 그의 글은 우선 문학성이 충분하여 우리의 정서를 순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신

실한 인격을 품어내는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글들이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지요.

이웃들과 정겨운 만남을 나눈 이야기들, 아버지로서의 격려와 인생철학을 담아 소중한 아들 시몬에게 보낸 이야기들, 가족들과 다닌 유럽 여행기 등에 담은 시와 노래와 예술 흔, 환경에 대한 잊고 지낸 이야기들, 또 하나의 이산가족의 슬픈 이야기들 속에서, 어느 곳에서는 아픈 눈물도 흘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깔깔 웃음도 웃고, 곳곳에서 어릴 적 향수에 젖게 해 준 아름다운 글들의 모임인 이 책을 너무 급하게 읽어 치운 것 같아, 다시 두고두고 찬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글읽기 좋아



하는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은 물론 즐거운 나의 몫이지요.

구입 문의처: 윤심주(전화925-736-6731)

9.11 테러 이후 美國의 변화

육길원 <시대 63년 졸업>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4대의 비행기를 이용한 자살 특공대의 사상 최악의 테러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수도 워싱턴 D.C의 국방성(펜타곤)도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3천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테러는 많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인생관을 바꿔 놓았습니다. 미국은 바로 전시체제로 돌입,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함으로써 「21세기 첫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장기전으로 고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전 두 달만에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섬멸했습니다.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했으며, 북부 동맹군을 비롯한 반 탈레반 군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러의 배후 세력인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정권의 수반인 오마르 체포작전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이 두 사람을 “죽이든지 생포하든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천년의 실질적 첫해인 2001년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해였습니다.

21세기 벽두는 테러와 전쟁으로 지구촌을 경악케 한 해였습니다. 911테러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1941년 일본의 진주만(Pearl Harbor) 공격에 비교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사태를 「제 2의 진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건은 비행기를 이용한 비겁한 기습공격으로 미국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다는 점과, 비공식 선전포고였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 목표는 하와이섬이라는 미국의 변방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를 비롯한 심장부였다는 점에서 미국인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공격대상도 군인이 아닌 무고한 민간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진주만 공격 당시는 일본이라는 뚜렷한 적국과 전선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얼굴과 전선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주만 때 미국은 미국에 사는 미국계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랍계 미국인들을 신경을 써서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랍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시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의회를 비롯, 미국의 정서가

반 이민 무드를 불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상상치도 못한 본토가 공격을 받은 차욕 앞에 미국인들은 극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덴과 오마르의 중오심은 핵미사일을 능가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악의 상징이며, 부패의 온상으로 여깁니다. 납치된 여객기가 가미가제 식으로 부의 상징인 무역센터와 힘의 상징인 펜타곤을 덮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승객이 폭탄이 되리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이로 인해 큰 뉴스들이 사소한 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침체,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에너지위기, 부시 대통령 취임, 중국 WTO (무역기구) 가입, 유럽 EU 유로화 도입 등등의 뉴스가 그것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러한 큰 사건과 사고들이 뉴스로서 저마다의 가치를 지녔는데도 테러와 전쟁 때문에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만큼 테러사태는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3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 천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을 빼고도, 세계 무역센터의 붕괴는 미국인들에게 말 할 수 없는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테러 발생 후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 71%가 우울 증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테러는 미국에 큰 변화를 불러 왔습니다. 역사를 BT(Before Terror)와 AT(After Terror)로 구분할 만큼 세상을 온통 뒤바꾸어 놓는 지각 변동을 가져 왔습니다.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애국심의 폭발입니다. 가가호호와 자동차에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했습니다. 헌혈과 자원 봉사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미국인은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마다 애국주의가 고조되는 특징을 보여 왔습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 위기 극복의 국민정서는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안보와 정부방범에 어긋나는 견해는 비애국적이라는 딱지와 함께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911 테러이후 미국인 10명중 6명, 즉 90%가 자선단체에 기부 또는 헌혈을 했거나, 자원봉사자로 일 했습니다. 또 농촌교육기관인 4H의 조사에 의하면 테러 공격 이후 미국 청년의 90%가 자원봉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유와 풍요 속에서 개인주의를 구가하던 미국인들의 이제 자연스럽게 국가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경화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을 비롯 주요 건물과 시설의 보안검색이 강화됐으나, 국민들은 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여행객들은 수하물 검색으로 2-4시간 기다려야 되고, 공공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려 해도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렇게 국민생활 전반에 불편을 주었지만, 국민들은 불만 없이 인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 국민 90%의 지지를 얻는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사생활의 여자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뉴욕재건에 깃발을 들고 강인하며 인간적인 모습의 리더로 각인되어 타임잡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실로 911사태는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은 사건입니다. 잃은 것은 목숨과 물질이었지만, 얻은 것은 정신과 사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가치관을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911테러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절제와 자유, 민주와 평등의 사상을 지닌 순례자들이 세운 나라, 조지 워싱턴과 링컨과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가진 나라, 민주주의의 대부, 기회의 땅, 이민의 나라,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의 나라, 물질만능, 쾌락주의가 팽배한 나라, 인종범죄 마약 총기로 골치 아픈 나라, 뭐니뭐니해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센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 이후 누가 미국은 어떤 나라냐? 라고 묻는다면, “미국은 불타는 세계 무역센터 현장에서 휴가까지 반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소방대원과 경찰관이 5백 명 이상 죽은 나라다”라고 대답해야 할만큼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1백 층 빌딩 으로부터 너도나도 살겠다고 내려 오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과 희생, 투철한 직업정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건국정신과 청교도들의 신앙과 도덕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미국은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나라입니다. 희생자들은 무고한 자신들이 폭탄으로 변해 죽어 가는 순간 ‘살려 달라’거나 ‘무섭다’는 말을 지상의 가족들에게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무 것도 아닌, 바로 “가정의 가치(Family Value)”였다는 것을 911은 교훈으로 가르쳤습니다.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물질위주에서 사람 우선으로 변화 한 것입니다. 지난 연말 불경기 속에서도 생나무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타나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3천 2백만 가구가 생나무를 구입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새삼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비록 미국은 응징의 목표인 빈 라덴과 오마르를 잡지는 못했지만,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알카에다 테러 조직은 분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은 예상보다 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복구작업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러시아 등 50여 개 국가가 지원한 아프간 전쟁의 성공은 세계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여 주었습니다. 추구장 6개를 이어놓을 만큼 큰 동굴도, 1백년 항전을 자랑하던 지하도시도 미국의 최첨단 무기 앞에는 무력했습니다. 1221년 징기스칸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한 후, 누구도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엔 영국이, 20세기 들어 80년대 소련이 시도해 봤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 소련은 아프간서 10년 동안 고전하며 ‘제 2의 베트남’처럼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불과 3개월만에 테러응징 전쟁을 성공시켰습니다. 1개당 1-2백만 달러 짜리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등이 동원됐습니다. 미국 본토 미주리주에서 발진한 B2폭격기가 수천 마일을 날아가서 목표지점에 정확히 투하 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혁명」입니다. 미국이 참전한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6.25), 월남전등 종래 육군위주의 전쟁개념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번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군 전사자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아

프가니스탄 전쟁은 군 전투요원보다 중군기자가 더 많이 사망한 전쟁입니다. 군사강국으로서의 미국의 패권주의는 아무 견제세력 없이 당분간 지속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EU(유럽연합)나 WTO에 가입한 중국과 경쟁하는 다원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군사적으로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향후 세계 질서는 미국 단독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테러를 뿌리 뽑기 위한 다음 단계의 확대대상이 이라나나 소말리아보다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 우선으로 표적이 된 것도 주목 할만 합니다. 물론 북한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은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럽스필드 국방장관도 세계적인 테러전쟁이 앞으로 최소한 6년간 지속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방성은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 할 것입니다.

우리는 9.11사태를 통해 「憎惡」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증오라는 똑 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계속한다면 일찌기 새뮤얼 헌팅톤 교수가 예고한 것처럼 걸잡을 수 없는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관계 전문가이며 「역사의 종언」을 써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프렌시스 후쿠야마(현재 존 홉킨스 대 대학원 교수)같은 분은 “911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거역 할 수 없는 대세라는 데 절망한 극단주의자들의 도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헌팅톤은 국제정치 갈등요인을 문화로 보는 반면, 후쿠야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나가는 현대화(세계화)과정에서 찾는 것이 다릅니다.

사실 현대과학과 경제 발전으로 나라사이의 문화차이는 그 범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의 방법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슬람권의 정교일치(정치와 종교)는 중세 암흑시대 서구 기독교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권과 비 이슬람권 사이의 대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세속화로 봅니다. 세속화가 부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테러가 근절되고 평화가 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라는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단기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7면에 계속>

不滿의 겨울

고희선 <법대 64년 입학, 북가주 동창회 부회장>



올해 시애틀의 유난히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불평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세컴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선배로부터 “봄 같아, 아지랑이도 오르고, 한번 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겨울바다를 보러 나설 엄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세파에 무뎠던 마음을 태평양 파도로 깨워 보려해도 눈과 얼음에 덮힌 올림픽 국립공원을 끼고 도는 험준한 산악도로가 무섭기만 하던 예년이었다. 그래도 크레센트 호수를 돌며 거친 파도 속 라푸쉬(La Push) 인디안 존 해안가를 거닐 흥분에 짧은 겨울바다 여행을 부러부러 떠났다. 지난 봄 인디안 숙박소 바로 앞에서 새벽 파도소리와 함께 회색고래(Grey Whale)가 뿜어내는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던 기억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물론 고래들은 따뜻한 멕시코만으로 먹이를 따라 이동해

갔다. 찬찬히 라푸쉬의 인디안 존 바닷가를 거닐었다. 태평양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몰아치는 산타미 같은 환상의 파도 속에 할 말을 잃었다. 역시 파도는 겨울 바다가 제격이다. 파도를 보며 이곳을 떠나 지금은 멕시코 연안을 유영할 회색고래처럼 시애틀의 겨울을 떠나는 친구들을 떠올렸다. 한 친구는 이달말 시애틀의 생활을 청산하고 플로리다주로 떠난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지금 따뜻한 탬파 만을 찾아가는 그가 한편 부럽기도 하다. 떠나는 그의 말이 생각나. “이곳을 못 떠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어차피 이민은 몸. 잠시 타향에서 만난 친구들, 이제 떠나야 할 때도 되었다.” 재작년 겨울에도 한 친구가 떠났다. 타호호수 근처의 숲 속 300 에이커의 삼림이 그의 새로운 정착지였다. 입구

에서 언덕을 차로 10분쯤 올라가면 외로운 집 한 채가 있고 저녁이 되면 카오테가 집 앞에서 온다. 또한 한국에서 와서 어렵게 만난 학교 선생님이 캐나다로 다시 떠난다. 선생님은 캐나다 이민에서 미국인민 다시 캐나다로의 복귀를 결심하셨다. 레이니어 산 앞에서 운영하던 주유소를 매각하였다. 꽃피는 봄이 되면 RV를 타고 캐나다의 아름다운 산하를 주유 할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도 불만의 겨울이 긴 듯하다. 미 경제도 안 좋고 9.11 테러 이후 움츠러든 미국경제는 피어 날 줄 모른다. 흐느끼듯

내리며 시애틀을 끊임없이 적시는 비는 불만의 겨울을 부채질한다. 겨울이 겨울다울 수 있는 것은 역시 하얀 눈과 매서운 차가운 공기이다. “불만의 겨울”은 존 스타인 벡의 예전의 동족과 분노의 포도를 이은 그의 마지막 작품의 제목이다. 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의 배경인 1930년 경제 대 공황기와 지금의 경제 침체를 비교하려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도 생각난다. 1978년 영국의 경제를 무정부 상태일로 직전까지 몰고 간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IMF이후 얼어붙었던 우리 한국의 겨울, 그리고 이제는 9.11테러 이후 세계경제의 겨울이 왔다. 미 경제는 회복되는가? 한편에는 미 경제지표의 잇따른 호전으로 경기회복 기대는 부풀어오르고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위원회의 관계자들은 경기침체가 끝났다는 주장을 주저하고 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라푸쉬의 바닷가를 휘몰아치는 파도와 고래의 숨소리가 어른거린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공중으로 뛰어

오르는 고래의 환희의 몸부림을 아는가? 파도는 내 마음속 남아 있는 마지막 끈끈한 정을 말끔히 치워내며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버트런 대로 오제트 호수를 향해 홍도의 섬처럼 떠있는 무수한 돌 바위 속을 지나 태평양 연안을 끼고 하이킹을 떠날 것이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이형기의 “落花”의 시의 일부를 옮긴다. 과감히 떠난 친구의 용기를 부러워하며 딱 잘라 버리고 훌훌 떠날 수 없는 삶에 연민의 정을 보낸다. 경제는 최저 점을 통과했다고 말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들으며 긴 긴 불만의 겨울을 인내한다. 경제의 봄은 멀게 느껴지고 따뜻한 멕시코만의 회색 고래 때와 플로리다에서 낚시대를 드리울 때 나간 친구의 모습만 눈앞에 어른거린다 (1/20/2002). (연락처: 425-673-7258)

租稅정보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셀리 정 <본명 김현숙, 간호대 83졸>

최근 개정된 세법이 은퇴, 교육 등의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Education IRA의 변형:

현재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년 \$500을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의 수입, AGI(Adjusted Gross Income)가 많을 경우, \$150,000 - 160,000 (single \$95,000-110,000)이 넘으면 저축하지를 못하고 있다. Education IRA에서 돈을 타 쓸

때 학비로 쓰는 돈은 수입에서 빠진다. 학비로 쓰지 않을 경우는 소득세(Income Tax)를 내고 또 10%의 벌금을 내게된다. 대개 아이가 30살 되기 전까지 돈을 다 찾아 써야한다. 세법이 바뀌면서 매년 \$500씩 넣을 수 있던 것이 이제는 \$2,000을 저축할 수 있다. 또 대학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비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숙사비, 교복, 컴퓨터 등의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부부의 경우 AGI가 \$190,000 - \$220,000 까지이면 Education IRA에 저축을 할 수 있게 됐다. 18살이 넘어

도 공부를 더 필요로 하면 계속 저축을 할 수 있고 special need(장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살까지 꼭 돈을 찾아쓰지 않아도 된다. *Qualified Tuition Program (section 529 Plans): State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투자한 금액에 붙는 이자가 대해 세금연기가 된다. 2004년 후부터는 사립학교도 이 프로그램을 후원할 수 있게 되고 2002년부터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비로 찾아쓰는 돈은 수입에서 제외되고 2004년부터 사립학교의 경우 수입에서 제외된다.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한 qualified program에

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돈을 옮길 수 있게 된다. (Rollover) *Employer-Provided Educational Assistance: Employer(고용주)가 교육비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비용을 deduct(세금 공제)할 수 있고 또 employee(고용인)의 수입에서 \$5,250 까지를 뺄 수 있다. 대학원에는 현재 해당되지 않았는데 2001년 후부터는 대학원도 해당된다. *Student Loan deduction: 부부 수입이 \$60,000 - 75,000 (single \$40,000 - 55,000)가 되면 Student Loan의 이자는 세금에서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 처음 6개월간 \$2500 이내의 이자를 deduction받을 수 있는데 새

로운 법은 60 month limit을 없애고 income limit도 \$100,000 - 130,000 (single \$50,000 - 60,000)으로 올렸다. *Deduction for Higher Education Expenses: 현재는 학비를 세금 공제를 받지는 못했으나 수입이 너무 많지 않은 한 2002년부터는 \$3,000을 받을 수 있게된다. *Maximum IRA Contribution: 매년 \$2,000씩 저축할 수 있던 IRA가 2002-2004년에는 \$3,000을 저축할 수 있고, 2005-2007는 \$4,000, 그리고 2008년이 지난 후부터는 \$5,000을 할 수 있게 된다. <편집자 주> 김동문은 Rutgers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시카고지역에서 공인재정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Tel) 630-954-5572 ext. 229 Fax) 630-654-5701

<6면에서 계속>

따라서 이슬람권과 비 이슬람권 사이의 대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세속화로 봅니다. 세속화가 부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테러가 근절되고 평화가 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라는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단기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

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패권적 오만과 일방주의적 독주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들의 협조와 존경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쿨터그라스를 비롯한 5명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미움의 원인을 제거할 때 테러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테러는 국제경제의 평등을 이룩해야만 해결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 편향의 중동 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또, 이슬람권에 팽배하고 있는 정치적 압제, 경제적 빈곤과 착취를 해소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균형 있는 대 중동정책을 통해 이슬람권에 민주주의 확산과 삶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고도의 도덕성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애국물결을 타고 소수계의 권익을 무시하거나 이민자들

을 차별하는 분위기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테러위험을 줄이려면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년에 120억 달러면 모든 테러 위협을 없애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테러문제를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뿐만 아니라 파괴된 땅 덩어리와 증오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0년대가 아시아의 민주화 시기라면, 90년

대는 구 소련과 동구권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첫 10년은 이슬람권의 민주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2002년, 「그라운드 제로」위에서 새 출발하는 미국은 이제 겸손과 사랑의 십자가로 세계 평화의 벽돌을 쌓아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이 선전하는 공동의 번영은 세계의 번영이어야지, 미국만의 번영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시 訪韓에 즈음하여

노벨 平和賞과 韓美관계

김일훈 <의대 53년 졸>

I) 시대 따라 변질되는 노벨平和賞
 9.11 사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내외 긴장과 경제공황을 몰고 왔으며, 언론보도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태반을 차지할 만큼 우리 주변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자 뉴욕 타임스는 "9.11 사태는 노벨 평화상 후보자추천에도 명백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오슬로의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 부회장의 말을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오는 2월 21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추천자명단에는 앞장서서 테러와 싸우는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수상 등이 유력한 후보자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장에 의하면 평화상은 "인류에 가장 큰 혜택을 준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1) 국가간의 우의(友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 2) 군비축소와 제거에 최대노력한 사람, 그리고 3) 평화회의 개최와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로 수상자격이 대중 명시되어있다. (주: 위의 1, 2, 3의 숫자는 판리상 필자가 기입했음)

역대 미국대통령 중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2명이며, 만일 부시도 받는다면 셋은 모두가 한국정세와 불가분의 인연으로 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1901년 노벨상 제정 이래 미국인으로서 첫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1858-1919)은 1905년의 러일전쟁(Russo-Japanese War)의 평화조약체결을 중재한 공로로 수상했으니, 위의 1에 해당된다.

2의 군비제거로 세계평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예는 1990년에 수상한 고르바초프일 것이며, 덕분에 한반도에도 긴장완화가 크게 초래되어 햇볕정책의 무드가 조성되었다. 1919년 미국대통령으로서 두 번째로 평화상 받은 윌슨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명창설에 공헌한 공로로 수상했으니, 그가 3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하겠다.

2000년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DJ)을 수상자로 지명한 이유는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 선언문에 의하면 "그의 민주화와 인권투쟁, 그리고 남북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한 공로"라고 했다. 근래에 와서 노벨 평화상은 그 수상대상의 성격이 점점 변질되었으니 티베트의

달라이라마(1989), 미얀마의 아웅산 수길 여사(1991년),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1993년) 등 그늘진 곳의 독립투사와 민주화투사들에게 수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런 여파가 2000년에 한국에도 미치게 됐다고도 하겠으며 여기에 더하여 DJ는 평화상의 주된 자격의 하나인 1을 구비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벨 위원회에서도 "DJ의 햇볕정책을 통하여 50년간 이상 남북간의 전쟁과 대치상태를 극복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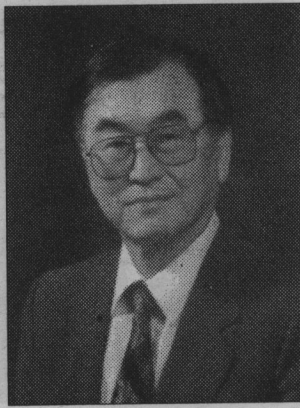
놀랍게도 이번 물망에 올랐다는 부시는 무슨 명분에, 즉 위의 어느 번호에 속할까? 그를 추천했다는 스웨덴의 극우파 정치인 N의원은 그 이유로 "세계평화를 위협할 테러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근래 노벨 수상자가 시대변천에 따라 알프레드 노벨이 직접 언급한 적이 없는 분야, 즉 약소민족의 독립,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투사들이 많다지만 여기에 21세기의 새로운 노벨상 수상자로 테러와의 전쟁영웅을 포함시킨다니 타당한 처사인지 알 길이 없고, 그렇다고 지하의 노벨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다. 같은 노벨상의 추천에 있어서도 DJ는 햇볕정책이며, 그리고 한국의 둘도 없는 우방 미국의 부시는 북한인 "惡의 軸"을 겨냥한 테러분쇄전쟁이 그 내용이라면 우리는 혼돈 될 수밖에 없다. 이 혼돈이 한반도를 두고 생겨났으니, 이 모순을 시대조류라고 일축해 버릴 수도 없다.

"미국 대통령의 평화상과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풀을 수 없는 인연이 있으니, 여기서도 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한다.

II) 미국대통령의 평화상은 한국을 희생물로

우리가 잘 아는 윌슨 대통령이 제창했다는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하의 조선민족에게 크나 큰 용기를 주어 3.1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듣고 있다. 그러나 그가 노벨상 받게된 업적 "국제연합"은 한반도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니 제외하고, 여기서는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후보 또는 수상자가 된 테오도르 루즈벨트와 부시를 찾아볼까 한다.

1900년대 초 신흥국가 일본은 동양의 제패(制覇)권을 얻고자 동맹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 강대국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했으나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려 미국을 통해



강화조약을 교섭했다. 그리고 일본해전의 승리를 계기로 강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 강화에서 그들의 요구조건은 첫 번째가 조선반도를 일본이 자유 처분할 것이며, 두 번째는 민주적 철도운영권을 일본이 장악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조건을 루즈벨트의 협조를 얻어 러시아가 수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가 중재한 1905년의 러일전쟁의 평화조약(Portsmouth Pact)에 "조선반도에서의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한다"고 엄연히 적혀있다.

당시 노르웨이 의회에서 발표한 수상이유에서 "세계문명국가의 평화에 가장 크게 공헌한 업적은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두 강대국 일본과 러시아간의 전쟁을 종식시킨 공로이다"라고 선언했다. 강대국만이 문명 국가요, 그들의 평화를 위해 비문명 국가인 약소 국가는 짓밟아도 그만이라는 논리다. 미국이 일본의 한국이권을 인정하게 된 데는 동양의 세력균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식민지 필리핀과 일본의 한국점유를 서로 묵인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제국주의적인 악의가 저변에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평화상을 받은 같은 해에 을사보호조약체결로 한국은 실질적인 일본식민지가 돼버렸던 것이다.

조선반도는 지도상 일본열도에 향한 찌꺼기모양처럼 옛적부터 무지한 일본에 문화라는 영양(贅)공급처였다. 말하자면 조선은 대륙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스승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일본은 조선반도가 일본 옆구리를 겨냥한 칼자루라고만 여겨왔고 이러한 피해망상을 내세워 조선을 탐내었다.

그들은 세계열강에 동참하는 첫 걸음으로 힘없고 약정에 시달리는 나라 조선을 삼키려는 야욕을 가졌고, 이 야욕이 미국대통령 도움으로 쉽게 성취되었으며 그 댓가로 루즈벨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현대의 첫째 우방인 미국의 옛 대통령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무시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에 돌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현대적 아이러니가 있다. 한국은 과거의 적인 소련대통령(노벨 평화상 수상자) 덕분에 "

햇볕정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통일을 당겨주는 정책이 우방인 미국대통령에 의해서 정면 도전을 받고있다.

III)사건의 해결책은 有備無患

부시는 미국대통령 선거 대결에서 미국이 저축하고있는 잉여 자금 사용 용도를 두고 민주당의 고어와 맞섰다. (20세기 후반의 미국경제호황과 Baby-boomer 시대에 속하는 대다수의 사회 보장금 적금 덕분에 미국정부는 앞으로 10년 내로 흑자잉여자금 4조 5천억 달러를 소유하게된다). 고어는 이 거대한 흑자자금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쓸 것이며, 또 장차 해방동이(Baby-boomer)들이 앞으로 한꺼번에 메디케어 세대(65세 이상)가 되는 고령화사회에서 야기될 의료위기에 대비해서 저축해야한다는 "유비무환론"을 제시했다. 여기에 맞선 부시는 내일의 일은 내일 해결하고, 우선 당면한 경제침체를 도우려고 국민에게 세금환불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선거공약을 실천에 옮겨 2001년 여름 "경제부활에 필요한 주사제"라고 발표하며 1가족 당 6백 달러씩 전국민에게 돌려줬다. 국민에게 "소비가 미덕"임을 강조하며 돈을 소비해서 경제를 자극시키라고 했던 것이다.

당선사례금이라 할 금일봉이 미국가정에 한장 도달하는 입시에 난데없이 9.11 사태가 발생했다. 진주만 공격을 방불케 하는 9.11은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찢었고 상상외의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진주만 패처럼 국민은 거국일치 "악의 집단" 테러단의 분쇄에 나선 부시를 후원했으며, 테러사건 이전 50%에 불과했던 대통령지율이 사건 후 일약 90%로 급상승했다. 지도자 뒤에 단결하는 애국심이야말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무기라는 미국의 전통을 과시했던 것이다.

이 일은 마치 진주만 공격이전에는 여론 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63%만이 대 독일 전쟁을 찬성했으나, 사건이후는 압도적 다수 국민이 대일 및 대독일 전쟁에 찬성했던 고사를 상기케 한다. 일본의 진주만 만행 때는 분쇄해야 할 뚜렷한 목적의 적(대상)이 있었지만, 9.11의 대상은 필자가 알기로는 주먹구구의 대상일 따름이다. 일본과 독일은 당대의 세계군사대국이었으니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국가를 총 동원시켜야만 했던 것인데, 이번 사태에서도 미국은 국방력을 총 동원했다.

그 다음으로 선거 때 고어의 유비무환이라는 교훈을 외면했던 부시는, 예산에서 국방비 480억 달러라는 냉전 후 유례없는 거금을

증가시켰다. 유비무환을 강조했던 고어는 현 사태를 예측한 예언자라고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은 19세기적인 종교 망상가라 할 "빈 라덴"의 "환상"을 쫓아 세계에서 가장 후진지역인 아프간의 황폐한 바위물산과 굶주린 백성에게 수 만개의 폭탄과 미사일의 폭우를 쏟아 부었다. 이것으로 국민의 분풀이는 심분 성취됐겠지만, 테러단 소탕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며, 소탕경비의 비용 효율성을 따진다면 너무나 광적인 투자였다고 아니할 수 없겠다. 지금의 이 시점은 폭풍이 가신 뒤라 이런 것도 한번쯤 따져 볼만한데도 모두들 미국 국민의 합의적인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조용하기만 하다. 그리고 많은 성공한 미국교포들은 여론에 찬성한다는 표시로 가슴에 성조기를 달고 다닌다.

아프간을 점령한 다음 더 나갈 출구와 구체적 목표를 잃은 상황에서, 미국우익을 대변하는 부시는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새 목표를 내세웠다. 현 사태가 2차 대전 때의 추축국(axis power. 樞軸國)과 연합국으로 판가름한 것처럼 그렇게도 초비상시 국민이 필자는 다음의 의문이 앞선다.

첫째 9.11 사태는 과거의 일제와 닮없는 악의 집단의 공격이며, 그 희생이 예외로 컸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구 세기적인 종교 망상가들 집단의 악랄한 테러행위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과연 과거 냉전시대의 소련이나 2차대전시의 군사대국 axis power(일제와 독일 등)만큼의 위협적인 존재인가? 만약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대처해야만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기고도 남는다.

둘째로 세계 열강에 대항할만한 힘이 전혀 없는 구시대적인 광적 테러집단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서, 초강대국의 국방력 총동원에 의지하지 않을 수도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 테러정보수집을 함으로서 철저한 예방을 하든가, 과학적인 도구와 여러 장치설치에 의한 예방,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의 방위책 등에 많은 예산과 자금을 들여 테러를 다스리고 예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그리고 "악의 축"을 다스리는 방법도 공갈보다 좀 더 기술적인 능숙한 외교정책을 짜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제 미국국민의 울분은 아프가니스탄 돌산에 퍼부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폭음으로 가라앉힐 때가 됐다고 여기는 사람은 필자만이 아닌 줄 안다.

<13면에 계속>

惡의 軸 修辭와 게임이론의 한계

북한의 상응 능력 입증은 부시 정책의 관건

이윤모 <농대 61년 졸업, 사회학 박사, 일리노이 주정부 인권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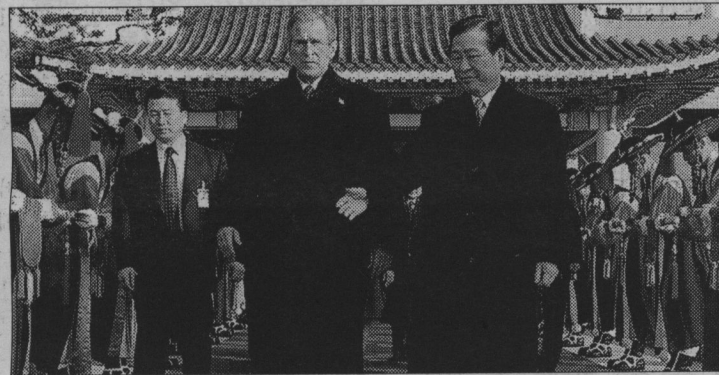
한반도 문제에 대해 원고 요청을 받았으나 한반도 정치 전문가가 아닌 필자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미-남북한 관계에 대해 나름대로 관찰한 바와 의견을 펴 본다.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 출범 이후 강경한 듯 했던 대북 정책은 1년을 지났지만 대북 관계에서 별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부시의 2월 17-22일 극동 3국 방문 결과도 1년전 그가 출발했던 원점에 되돌아 왔으며 오히려 <惡의 軸> 발언으로 과급된 충격과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으로 결정적인 점수를 내지 못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계산된 operand行動 遂行 用語이기 보다는 사람들의 태도와 감정을 유발하는 修辭語이었다. 2차대전때의 3대 악성 적대 동맹국들을 지칭했던 <악의 축>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 이란과 북한을 같이 엮는데는 그 範疇와 基準이 공통되지 않았으며 그 외의 대량살상 무기 수출국들은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란과 북한의 경우 부시 대통령 자신이 발언에 대해 추후 손실보전(damage control)에 나서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과의 화해를 주선해줄 것을 일본에 은밀히 요청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해명하고 남한과 중국이 북한을 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부시의 <악의 축> 수사어에 특히 한국에서는, 태도를 유발하는 수준의 언어를 정책행동 용어로 認知 構象(cognitive mapping)에서 도약시켜 投射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과격반응을 했다. 남한에서 정치적 남-남 균열의 재연, 반미 시위-부시 방한 환영, 미 상공회의소 난입과 미국인 직원을 납치하려던 시도가 그런 과격반응이다. 미국인 시설 난입자들을 테러 범이라고 규정한 미 대사관 측의 반응 역시 인지구상(Mental Mapping)에 있어 엉뚱하게 도약한 예이다.

부시의 극동 방문이 종료된 2월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문(동경에서 올린 북한 중앙통신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 또한 원색의 적대적 수사로 부시를 매도하고 대화 거절을 공언했다. 부시의 언어는 "망발"이며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

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해 보려는..." 부시는 "인간으로서 초보적인 리성마저 잃은 사람" "정치적 미숙아"라고 했다. <악의 축>이 북한 지도부와 "민족적 감정"을 "모독"한데 대한 몇 갑절의 저주를 퍼붓고 북한의 곤경은 미국이 "산생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북한 나름의 수사적 상응행위(reciprocation)이다. 북한의 대응 용어는 너무나 원색적이어서 그 듣는 측에서는 언어의 효용감이 소멸된다. 미국은 이란 들은 것처럼 행동할 아량이 있으므로 이 수사들은 미국을 겨냥한 내용을 담기 보다는 북한내 민



악의 축과 햇볕정책을 조율하는 韓美頂上

심 단합을 위한 소모용 의례문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명서 종결부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변경까지 강박하려...망상하고 있는 부시 패거리와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우리 군대와 인민은...우리식 대로 끝까지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단 우리를 건드리는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했다. 修辭일수도 있고 정책 수행 용어일 수도 있는 그런 적대적 대화 거부 선언은 북한의 독특한 과격 언어 습관의 발현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상응행위 가능성의 동아줄 다리 한 가닥에 칼을 대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다.

부시 행정부 1년에 북한은 기대한 응답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협상 조건을 논하기에 앞서 북한은 국제무대의 문화(가치관, 용어, 의전, 그리고 협상논리 등)에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명서에서 또 다시 전시켰다. 부시의 극동 방문이후 "공은 다시 북한 코트로 던져졌다"고 세계가 인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화 거부를 밝히는 것만으로 숙제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북한이 남한측과 대

화를 다시 계속 하려는 조짐이 있지만 당장 식량의 30 퍼센트를 원조에 의존하는 북한과 10년후에 6천마일 밖에서 미사일 격정을 하는 미국 중에 누가 더 화급한지는 자명하다. 양측은 소위 게임 이론(game theory)의 협조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론이 응용하는 <죄수들의 딜레마>에서 게임의 첫 라운드에는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올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자기는 일단 협조를 하고, 그후 라운드부터는 상대방이 협조 혹은 배신을 하느냐에 상응하여 자기도 협조 또는 배신을 하는 것이 손익관계에 최적 게임

이다.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한 유화정책이후 부시의 이번 대화 제의로 귀착 지은 과정은 게임의 첫 라운드에 속한다. 즉, 미국은 북한의 협조가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협조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은 협조적 상대자가 될 수 있는가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 이 첫 라운드는 마지막에 접근한다.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넋빨에는 이로 눈갈에는 눈으로"라는 새 라운드의 게임이 기다릴 것이다.

부시와 그의 매과 보좌관들의 시각에서 게임이 살아있다고 판단할 증거인 상응행위를 보여줄 차례는 북한의 것이며 북한이 미국에게 협상 카드를 한 장 더 보여달라고 할 계제는 아니다. 부시가 부임 초기부터 지냈고 이번에 휴전선에서 확인했을 뿐인 북한에 대한 불신은 북한이 말하듯 부시의 잘못이 아니다. 부시나 라이스 안보담당관이 국제관계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북한 정책에서 순진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값비싼 패 주기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행위가 너무나



미진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김 대통령의 방북과 6.15 공동선언에 대한 상응행위 제1장인 김정일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20개월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 관행이나 동방적 예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방북시에 세계에 전시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이 활달하고 의례에 밝았던 점으로 보아 그가 남한 답방을 미루는 뒷면에는 내부 사정이 있을 것이다. 중국형의 개방과 제한된 자본주의적 경제개발을 북한 지도부가 선망하면서도 이를 모험하지 못하는 데 더 큰 우려가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체제의 붕괴를 막는 일 그 것이다. 2월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서도 북한의 지도부의 위신, 북한 영토의 안전, 정치 체제의 유지 그것이 우선적 관심사로 나타난다. 미국에게 한반도의 통일(영토 병합이든 양 정부의 연대 혹은 통합이든)은 현실적으로 긴급한 목표는 아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평화(특히 일본과 미 본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우선 추구하고 있다. 평화가 그 정책의 本質이며 그 외에 수사적 언어나 물질적 원호 같은 것들은 정책 수행의 媒體이다. 대량살상 무기나 군사력의 양과 포진배치는 정치권력 집단의 선택에 따라 평화라는 본질적 가치를 위협하기도 하고 보장할 수도 있는 이 매체를 흥정하려 한다. 이들 매체들의 선택으로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고 북한의 개방과 개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 미국은 本質을 원하고 북한은 媒體를 흥정하려 한다. 여기서 美-北韓 간의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이 매체의 범주와 크기(直徑)에 격차가 있다. 소비물자와 전쟁물자 개념이 美-北간에 서로 다르고 그 활용에 대한 무게 두기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이나 핵 개발 중단 약속을 지킨 것을 상응 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협박의

보류이지 남한이나 미국에 어떤 혜택을 준 것은 아니다. 협박의 중단은 협조의 전제 조건이지 협조 행위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 게임 이론으로 미, 남북한이 줄다리를 하는 논리와 계산된 답안에 한계가 있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협상, 공동성명, 합의를 거쳤는데도 아직 한반도가 요새화된 비무장지대로 막혀 있고 북한은 개방을 저항하는 현실이 그 증거이다. 피차 보여 주었거나 (과거형) 손에 쥔 (현재형) 카드를 파악하고 있는 認知空間 위에서 협상전략을 加減乘除 계산하면 나서 많은 칠판에서 답을 찾듯이 圖上 計算이 도출된다. 기존 정보와 기존 조건을 가지고 계산한 기존 답안을 관찰하기 위해 같은 시간대(contemporary)에서 흥정하는 게임 보다는 어떤 정보나 조건도 변할 수 있으며 답안도 변할 수 있는 無制約의 미래지향적 認知空間에서 찾아야 협상이 발전한다. 그 탐색은 한계를 드러낸 게임 이론보다 다윈의 진화 논리를 응용한 유전적 연산법(genetic algorithms)으로 가능할 것이다. 유전적 연산법은 생물계의 양성 교접, 돌연변이, 자연도태 등 과정을 거쳐 유전자가 보전되고 우수한 인자가 선택되어 환경조건 적응에 가장 적합한 개체들이 출현한다는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자동차와 로봇 등의 工學에서 CAD/CAE를 능가하고, 컴퓨터 칩과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자체 향상시키며, 질병과 교통량의 통제, 보험과 증권 포트폴리오 디자인 등은 물론 NASA와 미 국방기 관들의 오퍼레이션 리서취에서 광범하게 실용되고 있다. 미, 남북한의 각종 조건들을 환경 요인들로 설정하여 정보(정책안)의 조각들을 유전인자로 치고 숫자 기호화하여 컴퓨터에서 고속으로 여러차례 반복 연산하는 것이다. 수십년 수백년 세대에 걸쳐 발생할 정보 처리와 정책의 보전(인자 유전), 사태나 정책의 돌연변이와 도태 등 과정을 거쳐 미, 남북한의 기대(환경) 조건에 가장 잘 적응하는(survival of the fittest) 정책 모델 또는 시나리오를 컴퓨터에서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미, 남북한 정책 두뇌들이 50년 동안에 산출한 게임이론의 모델이나 시나리오들을 능가하여 수십년, 수세기의 걸쳐 전개될 미래 역사의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하는 인공지능의 건의안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어떤 조건, 어떤 장소에서든지 대화하겠다"는 폴린 파월 국무장관의 제안은 초조한 제안이 아니고 최고위 참모들이 밑질에서 게임 이론을 넘어선 圖上 練習 끝에 내놓은 자신 있는 제안일 것이다.

靈魂에 대한 현대科學의 도전

홍종한 <문리대 79년 졸, Ph.D. Lehigh 교수, PA>

1. 生命이란 무엇인가?

혹자는, 18세기는 수학의 시대요, 19세기는 화학의 시대요, 20세기는 물리학의 시대요, 이제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고 말했다. 생물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은 물론, 생명현상을 다룬다는 점이다. 生命이란 무엇인가? 생물과 무생물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전통적으로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다루었던 질문이다.

그런데 생명현상을 연구하려면 이 질문과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과학자도 이 질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생물학자를 제외한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무생물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이 무생물을 지배하는 운동 방정식에 관한 한, 미시적인 아톰의 세계를 기술하는 양자역학으로부터 커다란 우주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뉴턴 역학과 일반 상대론을 발견해 냈고 그로 인해 일어난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우리는 보아왔다. 그러나, 정신활동인, 양심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혹은 영혼, 영에 대해서는 이들의 반응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아직 없을 뿐 아니라, 방정식을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법칙을 적용하여 이 정신활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유물사관을 믿는 과학자들의 시도인데, 이것의 문제점을 나는 딴 곳에서 잠깐 언급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가 막히도록 정확하게 無生物의 운동을 기술해낸 物理法則을 간단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또 억울한 것이다. 그럼 현대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명현상과 유물사관을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신활동의 한 단면인 靈魂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자. 왜냐하면, 최근에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을 했기 때문이다(What ever happened to the Soul? Scientific and Theological Portraits of Human Nature, Edited by W. S. Brown et al, Fortress Press, Minneapolis, 1998).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영혼은 살아 남는가? 카톨릭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은 부패하지만,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부활의 몸과 화합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

나 많은 현대 과학자들은 몸은 없어도 영혼도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세기에 다윈(1809-1882)은 '종의 기원'이란 책을 발표함으로써,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21세기의 과학과 신학의 대논쟁은 아마도 영혼의 존재를 둘러싸고 일어날 것이다. 유물사관과 생명현상을 조화시키기 위해 20세기 말에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요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환원할 수 없는 유물사관'(Nonreducible Physicalism)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최근까지 과학자들을 지배해왔던 환원주의(reductionism)라는 패러다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환원주의

경영화의 원칙에 복잡한 문제는 세분화하는 원칙이 있다. 복잡한 문제를 조그만 부분으로 줄여나가면서 푸는 것, 이것이 20세기를 지배해왔던 과학의 패러다임인 환원주의다. 유물사관의 배경에 있는 이 환원주의의 근본적인 가정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각각의 부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것이다.

즉, 우주를 분석해 보면 항성이 있고, 또 이 항성을 더 세밀히 관찰해 보면 산이 있고 바위가 있는데, 이들을 쪼개보면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 아톰이 나오고 아톰을 쪼개면 일렉트론, 중성자, 양성자 등이 나온다. 더 세밀히 쪼개면 소위 말하는 쿼크가 나오고, 이를 더 쪼개면 최신 이론인 끈(string)이 나온다. 이 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물리학에서는 소립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가정하기를 이 소립자의 물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아톰(atom)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아톰을 이해하면 분자를 이해할 수 있고, 결국엔 이로부터 거꾸로 우주를 다시 지어 나가면 되는 것으로 믿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환원주의다.

그러서 20세기에는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 가속기를 만들어 소립자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그런데 생명현상을 연구하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이 환원주의의 가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새 패

다임으로 등장한 것이 출현(Emergence)이란 개념이다.

3. 출현현상 (Emergent Phenomena)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 구조의 복잡함이 피라미트 모양을 형성한다. 물론 사람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제일 바닥에는 아메바와 같은 하등동물이 있는 것이다. 출현현상이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복잡성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부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출현현상의 패러다임의 근본 가정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것이다. 쉬운 예로 물을 생각해보자. 물을 쪼개면 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분자를 찾아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개의 수소(H) 아톰과 한 개의 산소(O) 아톰으로 구성된 물분자인 H₂O이다. 이 H₂O가 많이 모여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물과 기름을 비교해 보면 기름이 더 끈적끈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끈적끈적한 정도를 재는 척도를 물리에서는 점성(Viscosity)이라고 하는데 이 점성은 유체의 고유한 성질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점성은 분자의 수준에서는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고 분자가 많이 모여 유체가 형성되었을 때 나오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분자인 H₂O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아낸다고 해도 점성은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점성은 부분(물분자)이 모여 전체(물)를 만들 때 출현하는 출현현상인 것이다. 이 출현현상은 환원주의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출현현상으로서의 생명현상

그러면 이 출현현상과 생명현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현대 과학자들은 생명현상을 출현현상으로 보고 있다. 즉, 물분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점성이라는 개념이 출현하듯이 생명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어느 복잡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출현하는 출현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자. 과학자들은 두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들은 局部化라는 개념을 발견해 냈다. 즉, 두뇌의 어느 구석은 기억을 담당하고, 어느 구석은 감정을 담당하고 어느 부분은 IQ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상처가 가해지면 그 사람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없어진 기억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께로 갔는가? 공중으로 사라졌는가? 이 국부화라는 개념에 의하면 기억이란 두뇌의 어느 특정한 부분과 연결되었는 것으로서 그 특정한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

(Function)이므로, 이 없어진 기억은 기능이 정지되면서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감정이라는 것도 두뇌의 특정한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머리가 아픈 것은 뇌 신경계의 전기 신호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 개념을 확대하면 인간의 양심도 두뇌의 특정한 부분의 기능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출현현상의 이론에 의하면 양심도 생명도 모두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좀더 정확히 말하면, 두뇌에서 일어나는 기능이므로 몸이 사라지면 따라서 같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앙적이고, 깊게는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자.

5. 출현현상으로서의 영혼

서구의 철학은 Descartes (1596-1650)가 인간을 마음(Mind)과 몸(Body)로 구분한 뒤, 이 이원론에 근거해서 인간을 연구했다(필자주: 나는 라틴어를 모르는데, 책에 의하면 라틴어에는 영혼을 나타내는 말로 anima와 animus가 있다 한다. 둘 다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전자는 생명의 원리(The principle of life)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한다). 영혼과 몸은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가? 플라톤(427?-348BC)은 불멸의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죽을 때 해방된다는 이원론을 주장했다. 반면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384-322BC)는 영혼을 기능, 혹은 원리로 해석했다. 즉, 눈의 영혼은 보는 것(Sight)이다. 그러므로 눈이 없어지면 영혼도 없어지는 것이다. 중세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부활시킨 아퀴나스의 책(A Summa of the Summa, Edited by Peter Kreeft, Ignatius Press, 1990)에서 영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 그는 영혼을 '인생의 원리'로 해석했지만, 몸과 다르다고 했고, 부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창세기 1:24과 2:7에 근거하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탄생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아, 동물은 영혼이 없다고 했다.

사실 영혼에 대한 이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한 철학자 수만큼 많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과학은 영혼을 물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출현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에 의하면 영혼은 두뇌와 관련된 기능이고, 따라서 몸이 없어지면 두뇌도 사라지고 따라서 영혼도 없

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부활하는가? 캘리포니아의 풀러 신학교에 있는 안수를 받는 목사 이면서 기독교 철학자에 적을 두고 있는 머피교수는 출현현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녀는 이 이론을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과 조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을 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영혼과 몸이 합해지는 우리의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에 의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이 이론을 반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 나는 이러한 이론의 등장이 자유주의 신학의 연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같이 종교와 과학을 통합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출현현상이라는 개념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학에서는 많은 개념들이 이 출현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영혼과 생명 현상도 출현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것은 이 이론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또,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과 모순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6. 영혼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신학자가 아니므로 학문적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내 제한된 지식으로 성경을 살펴보니,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솔로몬은 전도서 12:7에서,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신)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28에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고 했다. 그럼,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떠한가? 카톨릭 교리문답 997번에 보면 죽을 때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 몸은 부패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 뒤, 부활의 몸과 화합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영혼은 몸이 없어진 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신교에서도 그 가르침이 같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에 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되 죽지 않고 잠들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불멸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부활의 몸과 화합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21면에 계속>

追慕詞 Professor Inyong Ham and the Youth

都雲會 <농대 61년 졸, Ph. D>

<편집자주> 이 글은 필자가 재미 과학 기술자협회 제 3대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 과학 기술의 발전과 과학교육에 많은 공헌을 남긴 故 咸仁英(공대 기계공학과, 1948년 졸, 사진) 교수님의 1주기를 추모하며 쓴 글임.



About 20 years ago, a few young Korean graduate students and I visited Professor Inyong Ham's home in State College, Pennsylvania, a typical American college town. On his living room wall, we saw an interesting embroidery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t was translated as, "Professor Inyong Ham is a contemporary Confucius." When I read it out loud, everyone laughed. We knew Professor Ham as "Ham Big Cannon(咸大砲)," since he often exaggerated the truth in his eloquent and convincing speeches. The embroidery was a gift from a Chines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aipei, and we considered him to be a "Big Cannon" himself. At the time, Professor Ham was away from home, serving as the scientific advisor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Taewoo Roh. In his absence, we discussed how much of his speeches had real truth in them. At the end of our heated discussion, we agreed that, despite his exaggerations, at least 80-90percent of his lectures contained the real truth.

Professor Ham was truly an outstanding and motivating speaker, not only to KSEA members, but also to other Korean scientists, engineers and the general public. A simple proof is that he served as the presidential scientific advisor to three Korean presidents - Jung Hee Park, Doo Whan Jun, and Tae Woo Roh. I still fondly remember listening to his every word as I acted as his personal chauffeur and weekend disciple as we roamed around Central Pennsylvania and

later, in the Boston area. When he was invited to give his eloquent speeches, he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rank, size, or scientific level of his audience. His willingness to present materials to any audience amazed me, especially his eagerness to educate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As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departure from this world approaches, I am compelled to give several examples of his contribution to the Korea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and to demonstrate how deeply Professor Ham loved young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 if they were his own children.

Professor Ham was the first of the 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America) presidents to envision scholarship for young Korean and Korean-American students. He established the Inyong Ham Scholarship for Korean-American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or engineering at American colleges, and for KSEA student members and members' children. He also established 34 international scholarship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ith these scholarships he demonstrated his love and care for young generation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ll over the world. The Inyong Ham Scholarship has been offered to outstanding students pursuing career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or the past 15 years. I hope that

some readers of this article will be future recipients of this prestigious scholarship.

As the third president of KSEA, Professor Ham also organized and implemented the first KSEA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ymposium in Seoul, Korea. The purposes of the Symposium were to promote advanced knowledg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foster the partnership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to make contributions to Korean, American, and all human society. Over the years, the Symposium has changed its name to the Korea-U. S. Science and Technology Conference. It is held every year in the USA and every three years in Korea. Professor Ham encouraged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to participate in this annual Symposium and present their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s to help the growth of the Korean and 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ies, as well as the Korean and U.S. economies and living standards.

Professor Ham's third contribution to the Korean community occurred in 1998, when he asked KSEA members to donate recent editions of scientific books, journals and proceedings to Kim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a North Korean university. KSEA councilors immediately approved his book-sending proposal to North Korea, which is a communist country and has no formal political relationships with South Korea and the USA. Professor Ham not only provided his time and services to the project, but he also paid all shipping costs himself. His generosity was aimed to help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in North Korea, to advance North Korean academic and research capabilities, and ultimately to improve North Korean industries and economy. His reasoning was that the KSEA had provided many scientific and engineering services to South

Korea for 30 years, and now it should help North Korea to achieve a successful unification with the South.

Professor Ham's lifetime achievement as an educator for all ages, in the classroom and in his research and writing, was his greatest contribution to future generations of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His hobby of studying the history of Korean science and art in the Silla period (57 BC -934 AD) has become a valuable resource for younger generations of Koreans. When he retired from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fter 39 years of distinguished service, his admirers urged him to write a book on his favorite subject. To our delight, in 1998 he wrote a book entitled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Silla Period" in English, Korean and Japanese. His book, based on 39 years of research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our Korean ancestors, became a nonfiction best seller in Korea.

Professor Ham taught young Korean scientist and engineers, as well as any Korean, Japanese and Chinese adults interested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y of the Silla period to young Korean-American children in the New England area. He was 73 years old and had just published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Silla Period." At the time, I did not know that I was given the privilege of being his personal chauffeur for one last time in this world.

We visited three Korean schools in Andover, Lexington and Wakefield, Massachusetts. I was able to see the distinguished professor's eyes sparkle once again, and his booming tenor voice resonating in the classroom fascinated both the young students and their parents. He held a humorous question and answer session with the children asking them, "What is the name of the oldest star observatory tower and where is it located?" When the children could not respond, he teased them, saying, "You

now where the famous Tower of Pisa is because you are smart and you learned it in school.

But did you know that our Korean ancestors one thousand years ago built the first stone observatory tower called 'Chumsungdae' in Gyeongju, Korea? They studied stars at night from the roof of the tower. You, the young generations of Korean-Americans should understand, appreciate and be very proud of our ancestors' art,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Ham hoped that his book and his speeches would provide some assistance to younger Korean generations, in particular to those who live overseas. At the end of his lectures, he did not fail to give some motivating and patriotic remarks. He often concluded, "Our ancestors sowed the seed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capability, and gave water and fertilizer to them. We impart to the young generations' dreams, hope and encouragement in challenging global competition with pride from ancestral history and tradition. Young generations, please have a vision, big dreams and work hard toward your goals."

At Professor Ham's funeral services last year, I learned one more lesson to prove his commitment to the youth. He had trained directly and indirectly many Korean and international disciples, including Indian, Chinese, Japanese, French, Sri Lankan, Latin American and Russian scientists and engineers. I was proud and happy to know that I was merely one of many international disciples of this great "Contemporary Confucius."

In closing, I hope that someday, some of the Korean-American readers of this article will receive a Nobel prize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so that Professor Ham's dreams come true. May God grant peace and love to his wife, Ms. Hyunduk Kim, his two sons, Taewoo and Taewuk, and their family.

조국통일 후의 문화교육의 실제와 진로(II)

< 편집자주 >

이 글은 회보 #89호(7월 1일자) 제 36면에 게재된 김호원 동문의 제 6차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2001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동경에서 전 세계에 모인 한인 대표 700여명이 참석)의 基調演說文의 후반부인바, 회보 89호는 金동문의 재미 동포사회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개관, 북한 교육의 현실과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황의 개관과 남북한의 학제 비교론을 수록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金동문의 남북한간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 교육의 실태를 다른 부분을 게재한다. 편집자는 회보 진행지의 이들에 따른 자료보관의 혼란에 따라 이 연설문 후반부의 연재가 오래 지연되어 필자와 독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새천년 韓民族 雄飛의 시대를 열자

김호원 <치대 52년입>

학교에서는 4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어린 시절을 비롯해서 국어, 수학, 체육, 음악 등 9개 과목을 배운다. 이중 국어 비중이 33.1%로 가장 높고 수학은 24.2%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 등 정치사상 교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과학교육의 과목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고등학교에서는 6년 동안 총 21개 과목을 배운다. 그래서, 과목수도 남한보다 적은 편이다. 수학, 과학, 기술관련분야가 40%를 차지하고, 정치사상교육은 비중이 낮은 편이다. 대학에서는 전문과목과 별개로 노동당 투쟁사 등을 필수과목으로 배운다.

북한교육의 궁극목적

1946년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김일성 종합대학이 설립된 바 있다. 북한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북한의 교육, 교육시책, 예술문화의 시정 방안의 특성을 본다면, 공산주의 혁명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희생적 봉사를 할 수 있으며 혁명을 수행할 요원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교육 지상목표와 원칙은, 김일성의 "사회주의자의 교육을 위한 주제(Thesis on Socialist Education)"란 이론에 역매어 있으며 그 교육의 필수적인 목표는 새로운 세대가 혁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75년 11년간의 의무 교육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유치원생 때부터 세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했고, 김일성父子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신조로 삼는 교육제도를 이룩하고 있다. 한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점은, 일부 학생들은 대학진학과정에서 불공평하고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 그들의 부모들의 배경이 큰 영향을 주게된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그 부모나 가족들이 반정부적인 경우(전 인구의 약 27% 해당) 그들의 자식들은 학교 성적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진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교육 방법론

북한과 남한의 교육 차이점을 보면, 북한의 교육당국은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친 사회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주적인 사고방식과 도덕적으로 건전한 행동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보다는,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바치고 혁명투사로 준비시키는 교육에 치중한다. 북한에서 출판된 교사용 책자에는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깨우쳐 주는 교육"에 대한正義가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서 깨우쳐 주는 교육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설명을 통한 교육
2.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
3. 문답식 학습을 통한 교육
4. 직관용 종합교육
5. 실물을 통한 교육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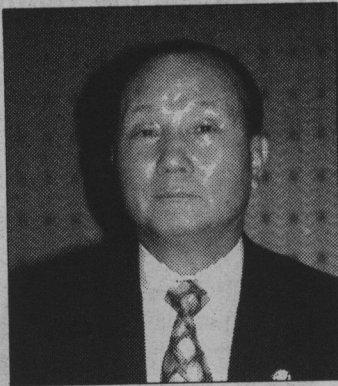
북한 교육의 공통적인 가치

북한도 역시 남한처럼 모두들 교육열이 높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북한에서도 출세는 출신성분이나, 충성도에 크게 좌우되지만 실력도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실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순성이 많다고 한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은 종합대학,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로 구분되는데 25세 인구의 대졸자 학력 구성비로 14.9%, 남한은 20%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한다. 또, 남북한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보면 기초적인 생활규범과 도덕적인 품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다.

교육부관계자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도덕교과에는 어른에 대한 예절 부모에게 대한 효도와 공경, 이웃과 친구에 대한 예절을 강조하는 등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

김대중대통령의 訪北을 계기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등 교원노조 및 단체가 방북 교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 교육개발원 한만권 박사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에서 분단상황으로 심화되어온 갈등을 불식시키려면 교원과 학생들이 중심이라는 교환방문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북한 학생의



예술공연단 교환공연, 공동체육경기단 구성, 지역 답사 수학여행 실시 등을 통한 상호 방문 횡수를 늘리자는 것과 교수들간의 학술 교류 대회의 개최 등도 필요하다.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교과서 교재 등 각종 교육자료나 교육통계의 교환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우 교과서의 질이 나쁘고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터라 교과서 물려주기가 일반화되어 있음으로, 북한에 대한 종이 및 서적 지원사업도 남북한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교과서 왜곡 시정과 통일 교육방안

그런데 한가지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새겨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써 남북한 교과서의 왜곡 시정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북한 교과서에는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묘사하거나 남한 국민은 지주나 자본가의 착취로 인해 할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이는 북한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는데 기여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만권 박사는 "남북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상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는 통일 교육보완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된다. 남북교류가 갑작스럽게 확대되었으나 남북학생들은 서로가 기존인식에 있어 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혼돈이 있기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모중학교의 한 교사는 "지금까지 적(敵)으로 인식해온 북한을 갑작스럽게 화해협력의 인식의 변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교육개발원이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2천 6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북한지도자들에 대해 52.7%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87%가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의로의 통일교육 방향에 대하여, 통일연구원의 황병덕 박사는

"지금까지 교육이 체제와 이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생활과 문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며 "자유로운 토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비교 등 알찬 교육 방법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동질성의 회복 방안을 위한 제언

우선 우리들은 북한의 여러 가지 교육실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그 교육제도를 학습한 후에야 비로소 그 문제점을 타결 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문제를 정부나 민간단체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검토 되어야 되겠다. 얼마 전에 북한을 방문한 한 교육계 인사가 말하길 남북한의 언어격차로 적어도 50년의 거리를 두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렇게 학제와 교육목적 그리고 언어사용 문제와 표현 등이 복합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제 그 과제가 어떤 형식이든 모든 전문가들의 고견이 있을 것으로 믿지만 내 나름대로 그 소신을 몇 가지 분야별로 생각하며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어와 교육제도의 거리감을 좁히고 짧은 시간에 더욱더 신속하게 이 난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책을 제시하여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예술단(예술과 음악) 교환과 체육대회 개최,

둘째, 각 학급별 학생들의 교환 교육실시 (중, 고교 및 대학별)

셋째, 교수들의 방문 및 교환교수 제도 실시,

넷째, 남북한 교육계 인사로(문화예술분야 포함)구성된 국어 및 문화교육 통일 방안을 연구 검토할 연구협의체 구성,

다섯째, 종교활동을 광범위하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종교활동실시,

여섯째, 통일시범학교를 설정하여 통일교육 내실화의 실현을 구현하는 중심기구를 만들고,

일곱째, 교육친선 사절단 방문과 함께 문화교육 Center와 그 지역 기구의 확대 검토,

여덟째, 교직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일후의 교과서와 이에 부수된 사항을 연구한다.

아홉째, 남북한의 문화교류와 병행하여 소련, 중국, 일본등 기타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열번째, 전통문화 예술단을 구성하여 각 세계 동포사회를 순회 방문 공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13면에 계속>

노벨 평화상과 한미관계

<8면에서 계속>

IV) 진짜 '악의 축'은 사회악

9.11 사태 후 들뜬 사회의 분노와 흥분이 어느 정도 꺼라 앉은 이즈음, 전 부통령 고어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으니 여기에 적어본다. "우리가 직면한 '악'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지지자들(필자 주. 빈 라덴 과 무슬림), 또는 일부체제에 의한 단발성 산물이 아니다. (중략) 우리는 빈곤과 질병, 부패, 정치적 압제 등 또 다른 악의 축과 맞서 싸워야한다"고 했다. 후진국의 밑바닥에 깔린 이러한 악의 축을 없애는 길이 국제테러를 없애는 빠른 길이라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우리는 테러의 원인(原因)을 찾아보아야 하며, 그 원인(遠因)은 무엇이고, 근인(近因)은 뭐냐하는 점도 생각해 보는 일이 장차 테러 예방에 큰 도움을 줄 답을 유도해줄지도 모른다. 비근한 예로 같은 자식 중에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식만 귀여워하고 공부 못하는 자식을 천대하고 미워하는 식의 미국외교는 없는지? 천대받는 자식은 부모라도 폭행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대받는 자식은 고어가 말한 빈곤과 질환, 부패와 정치적 압제라는 후진국이 낳은 사회악의 소산물 일수도 있다. 부시가 말하듯 "백성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바로 그 사회악 때문에 군비확장이라는 모험을 감행하고있다고도 하겠다. 진짜 '악의 축'은 고어의 말처럼 사회악인 것이다.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에는 외부의 햇볕(바깥세상과의 접촉)이 가장 요건하며, 이 햇볕정책이 우리혈육인 북한동포를 희생시킴이 없이 구해낼 수 있는 실리외교임을 우리교포는 잘 알고 있다. 만일 고어가 대통령이 었더라면 그도 햇볕을 통해서 그늘진 곳(사회악)을 없애려는 간접적 노력을 우선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평화상 수상자 DJ의 햇볕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부시는 북한은 '악의 축'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살상무기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의 이론이 평화상 수상작품으로 부상되고있다.

부시의 한국방문으로 한국정부와 견해가 상반된 두안이 어떤 모양으로 절충될는지 궁금하며 승산은 반반(半半)으로 내다본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DJ는 노벨상 수상자의 기득권을 갖고 있으며, 반면 부시는 초강대국 수뇌이기 때문이다. 만일 부시가 이기고 그것으로 해서 다음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짐쳐보면, 그는 테오도르 루즈벨트처럼 한국을 희생시켜 평화상을 받게되는 셈이니 이것이 한반도의 비극이자 역사의 아이러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기우이기를 바라며, 북한이 미국과 잘 타협하고 남한의 체면도 세워주는 실리외교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이 길만이 통일을 앞당겨줄 것이라 믿는다.

조국 통일과 문화교육

<12면에서 계속>

열한번째, 국내외 동포 자제들의 정기적인 예체능대회 및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모두참가하도록 초빙한다. 지금까지 막상 남북한 문화교류에 나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자 했으나, 해외 동포들의 애국심과 그들의 참여의식을 감안 할 때 부득이 몇 가지 건의사항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문화교육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많은 저서와 발간물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두면서, 우리모두가 조국 통일후의 문화교육과제와 진로에 대해 모든 동포들이 지대한 관심을 쏟아 주신다면, 이 과제를 두고 내 나름대로 고심한 본인에게는 큰 보람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내 故郷

김용건 <문리대 48입, 조지아 지부 초대회장>

"내 고향 남쪽 바다...." 부터 시작되는 노래를 부르면서 淸涼里(서울대학 예과)의 뒤편의 '向上的 森' 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난날이 어제 같은데 그것도 어언 50년이 넘고 보니,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여기게 하여 감회가 깊다.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고향으로 연상한 것은 넓고 넓은 그리고 햇빛에 잔잔히 펼쳐있는 해운대 앞 바다를 생각했는지. 그리고 또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곳에는 김해 평야가 있고, 남쪽에는 가덕도가 풍파를 막아주어 돛대배가 한가로이 지나가는 풍경이었다. 이들을 뇌리에 그리면서 '내 고향 남쪽바다...' 라고 하면서 목청 끝 노래했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내가 태어났고, 어릴 때 자란 내 고향이었다. 그래서 그 노래만 부르면 항상 나는 낭만적으로 되고 눈언저리에 물기가 생기게끔 했다. 서울에 진학하게 되어 방학 때가 되면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으나 남에게 뒤질세라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내 고향에 갔다. 누나들이랑 초카들이 반가이 맞아주는 내 집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喪失父母한 탓에 갈망하던 가정이라는 따뜻한 정이 그리워 가장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 열심히 일하다가 운이 좋았는지 Fullbright 장학생이 되어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되었다. 만학이라 힘이 많이 들었으나 무사히 학교를 마치고, 이곳 직장인이 되고 부터, 나의 고향은 "남쪽바다" 뿐만 아니라 淸涼理와 東崇洞(本校자리) 까지 포함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週末이 되어 한 잔 들고 뒤뜰에 앉아 "내 고향 남쪽바다——" 하고 나지 시 노래하면, 청량리에서 "진지로 게아 진지로 게 ——" 하면서 흑인 춤을 추던 운동화이며, 친구들과 나는 소주 잔속에서 혼을 잃고 파출소에서 아침을 맞던 일, May Day 때의 그 극렬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격돌, 그리고 한국 전쟁 —— 그 사이 사이에 책도 읽고, 공부도 양념으로 하고, 전시연합대학의 부산판자교사에서 졸업장을 받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미국에 건너 온지 9년만에 장인영감의 화갑이라고 처음 귀국 길에 올랐을 때 東京에서 잠깐 회사 일을 마치고 한국에 가는 비행기의 창문 곁에 앉아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밑에 펼쳐진 넓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드디어 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눈에 익은 산들이 보이고, 드디어 서울이 보일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몽글해지면서, "아—내 고향에 왔구나"하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내 몸을 휘감았다. 아라 보아도 나의 동포, 저리 보아도 한국 사람들이 넘쳐흐르고 눈에 익은 초가집, 판자 집이 즐비하고, 코에 익은 냄새가 진동하고 거기에다 반가운 혈육들이나를 감싸 안으니, 나는 나도 모르게 고향의 포근한 포대기에



볼국사 앞에서 전 가족과 함께. <1997년 6월 30일>

쌔인 아기처럼 잠들 것 같았다. 첫 귀국을 마치고 한국을 떠날 때는 내가 처음 고국을 떠날 때에 지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미지에 대한 공포감은 적어졌으나, 비행장에 배운 나온 사람들과 헤어질 때는, 언제 또 만나나 하는 기구 심으로 마음은 안타까웠다. 그러나 미국에도 다섯 명의 내 자식들이 나의 귀국을, 제비 새끼가 어미를 기다리듯,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태평양 상공에서 나의 자세를 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 귀국을 한 뒤부터 한국의 연구기관을 비호회사들과 관계를 맺어 귀국이 찾아지고 1970년 후반부터는 거의 해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되다보니 머나먼 곳이었던 한국이 가까이 느껴지고, 한국의 풍물도 해가 멀다하고 현대화되고 물질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나도 정말 즐겁고 반가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내 고향 남쪽바다 ——"를 부를 때 나의 고향이 해운대의 바다 뿐 만 아니라, 한국의 산, 한국의 강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나도 놀랐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저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강산이 모두 내 고향이 되어 버렸지! 저 강산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精이 철철 흐르는 4,000만 의 사람들이 잘 살아 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하는 생활전선에서 혈투를 하고 있겠지.

그러나 하늘 위에서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금수강산뿐이로구나. 앞으로도 아마 수천 년 뒤에도 인간을 포용한 대자연은 마찬가지로 일 테지.

세월이 지나 직장에서 해방이 되고, 아이들 학비 준비에서 석방이 되고 난 뒤부터 다른 나라를 구경 할 기회가 생겨 즐겁게 여행을 다니다보니, 집을 떠나 일주일만 되면 집에 가고 살고, 2주일이 넘으면 괜히 아무 일 없이 잘 기다리고 있을 우리 집 걱정이 된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가족의 회동 모임을 미국 내에서 하다가 외국여행으로 하기로 했다. Canada, Italy, 한국 등을 다녀왔다. 여행 끝이 되어 비행장에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탈 때, 문

득 손자아이들의 고향은 어디일까 생각해 본다. Georgia, Virginia, 혹은 California 이라 할 것이며, 한국이라 할 손자는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더욱이 그들은,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잊을 것 같다. 그리고 보니 나도 내 고향이 한국인지 또는 오래 살았던 미국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특히나 외국에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외국인이 물었때 말이다. 그래 살다보니 미국도 강산이 한국처럼 아기자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이 가는 곳이 많기로 한다. 허다하게 많은 국립공원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서롭고, 그리고 어떤 곳은 조물주의 경이로운 창작이라고 느껴진다. 요 근래에 또 하나 내 생각에 변화한 것이 있다. 세계 어느 곳에 가거나 그곳의 강산과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겉모양은 조금씩 다르나 다 아름답고, 정이 가고, 내 고향의 맛이 난다는 것이다. '참 이상도 하지' 하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럴싸하다. 내가 만약 우주여행을 하게 되고 외계사람과 약속하면서 살게될 때 그 사람이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으면 내가 당연히 지구에서 왔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온 세계가 닭았고, 정이 같 수밖에.

그래 요사이 나는 내 고향이 낙동강에서부터 시작하여, 퍼지고 퍼져서 지평선을 너머 세계에까지 퍼진 것을 느끼며, 내 고향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그 사이에 잠시나마 생을 얻어 평범하고 무사한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조상님,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大自然에 감사드리면서 "내 고향 남쪽 바다"의 노래를 계속 부를 것이다. 끝으로 내가 즐겨이 대하는 옛 先賢의 글을 여러 동문들에게 삼가시키고자 한다.

"靑山은 나를 보고, 밑없이 살라하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SNUA OPINION LEADER

고추의 기능성과 약리활성

최근 고추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아예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뚝에 휴대하며 음식에 뿌려먹는 유행을 낳기도 했다. 흔히들 고추는 강한 매운 맛 때문에 입맛을 돋구며, 지나치게 섭취하면 위장에 큰 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徐榮俊교수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최근 고추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면서 고추가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 및 간암 억제기능이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徐교수로부터 고추에 대한 다양한 기능과 효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지과(Solanaceae)의 초본식물인 고추는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향신료이다. 고초, 당초, 번초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학명은 Capsicum annuum이다. 고추는 고온성 작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주로 중부 이남지역에서 재배된다. 인구기준 소비량을 볼 때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고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중의 하나로서, 국민 1인당 하루 5.1g, 연간 약 2~4kg의 고추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리비아를 포함한 열대 남미지역이 고추의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다.

기원전 7천년 경 멕시코인들이 야생종 고추를 먹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페루에서는 기원전 2천5백년부터 고추가 재배되었다는 화석 증거가 남아 있다. 콜럼버스(Columbus)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진 고추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거쳐 중부 유럽 국가들로 전파되었으며, 서기 1천5백년 경 필리핀을 거쳐 인도, 동남 아시아와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보다 비타민C 많아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경로와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광해군 6년(1614년)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에 고추를 남만초(南蠻椒)라 칭하고 있고, 일본에서 도입되었으니 이를 왜개자(倭芥子)라고도 부르며 간혹 이를 삼고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대략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된다. 한국에 들어온 내력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인들을 독한 고추로 독살하려고 가져왔으나, 오히려 한민족의 체질에 맞아 이후 우리 민족이 고추를 즐기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설도 있다.

한편 일본의 여러 문헌에는 고추가 우리 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한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왔던 풍신수길이가 조선에서 고추 종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고려호초라 한다고 「대화본추(1907)」에 기록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장을 담근 뒤 항아리 속에 붉은 고추를 집어넣기도 하며, 아들을 낳으면 새끼줄에 붉은 고추와 숯을 걸어 악귀를 쫓았다.

단순히 음식에 맛과 향을 더하고 미각을 돋구는 기능 외에도 고추는 한방에서 발한, 건위, 구충제로 이용되며, 양방에서는 신경통, 류머티스, 기관지염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 먼길을 떠날 때 양말이나 신

발 속에 고춧가루를 넣어 동상을 예방하기도 했다.

고추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건강 식품이다. 실제로 고추에는 오렌지나 레몬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으며, 당근만큼이나 비타민 A가 듬뿍 들어 있다. 만일 고추를 신고 유럽으로 향하던 콜럼버스가 고추에 비타민 C가 풍부함을 진작 알았다더라면, 과일섭취 부족으로 인해 항해도중 선원들이 괴혈병(scurvy:비타민 C부족으로 결합조직이 약화되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게 되는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크림은 통증완화 효과 월등

고추의 독특한 매운 맛은 캡사이신(capsaicin)이라는 알칼로이드 화합물 때문이다. 고추의 종류와 경작 조건에 따라 캡사이신의 함유량은 0.1%에서 1%범위 안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캡사이신은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껍질에도 상당량 들어 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이차 대사산물로서, 고추의 발육, 동물들로부터 고추를 보호하고 그 씨를 퍼뜨려 종자의 번식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상 포유동물들은 캡사이신의 자극성을 감지할 수 있지만 새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 고추를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고추씨가 이들의 배설물에 섞여 멀리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남미원산의 고추가 멀리 떨어진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역에서도 자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로 생각된다.

한편 캡사이신은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미각을 자극함으로써 함께 섭취하는 다른 음식들의 풍미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학설도 있다. 캡사이신을 용액으로 만들어 피부에 문지르면 마치 불에 덴 것과 같은 기계적 자극을 느끼는데, 이는 통증 전달물질인 「Substance P」가 순간적으로 유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캡사이신은 신경말단에서 방출된 「Substance P」를 고갈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이후의 자극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를 초래한다. 캡사이신의 이러한 약리학적 성질을 근거로 이 화합물이 함유된 연고가 진통제로 개발되어 OTC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캡사이신 크림제는 당뇨병 신경통, 류머티스성 관절염, 대상포진, 수술 후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일찍이 페루사람들은 고추의 분말을 관절염 부위에 발라 사용해왔으며, 기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고추는 민간요법에서 통증을 멈추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통의학, 과학적 이론과 실험적 결과를 근거로 한 현대의학의 접목에 의해 「Zostrix», 「ToppSation», 「Axsain», 「Capzacin P」 등의 상품명으로 고추크림들이 시판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제제들은 대개 0.25% 또는 0.75% 함량의 캡사이신을 주성분으로 한다.

최근에 고추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한동안 고추다이어트 열풍이 불어 닳았던 일본열도에서

는, 고추를 입에 물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여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고추는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항진시키고 동시에 지방의 생합성을 억제함으로써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물 실험 결과, 고지방 식이(食餌)에 고추를 첨가한 사료를 섭취한 쥐들은 고지방 식이만 섭취한 군에 비해 체중증가가 현저히 줄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양도 낮았다. 갑사이신의 경우도 체지방을 줄여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국내 및 일본의 과학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고추가 피부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서부지역의 여성들은 「파프리카」라 불리는 붉은 고추의 분말을 목조에 풀어 넣고 목욕을 했다 한다. 최근 국내에서 1회용 티백에 담긴 고추 차까지 등장했으나, 바야흐로 고추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다.

흔히 자극성이 있는 매운 음식의 섭취가 위 점막을 손상시켜 만성 위염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위암발생률을 높인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경우, 고추가 포함된 매운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별로 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암발생률이 높은 것을 보면 매운 음식을 위암발생의 위험인자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인들의 잘못된 편견이나 속설과는 달리, 상용량으로 섭취하는 고추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위궤양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이미 생긴 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고추는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한편 과도한 위산분비는 억제한다. 한편 고추추출물과 그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을 쥐에 투여했을 때, 아스피린이나 알코올로 유도된 위 점막 손상에 대해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비록 동물실험 결과이기는 하지만, 캡사이신의 위궤양 보호효과는 기존의 궤양치료를 시메티딘(cimetidine)에 버금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학적으로 유도된 궤양 외에도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 점막 손상도 고추에 의해 예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캡사이신이 배양된 헬리코박터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이어트·궤양억제 기능도

고추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인들에서는 다른 남방민족들보다 위암이나 대장암의 발생률이 훨씬 낮는데, 이는 고추의 캡사이신이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고 위 점막을 방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서 높은 비율로 위궤양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 내 타 인종들에 비해 고추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멕시코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매운 고추의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암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고추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위암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매운



徐榮俊

- 1981년 모교 약대 제약학과 졸업
- 1983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90년 美위스콘신대 박사학위
- 1990~1992년 美MIT대 박사후 연구원
- 1992~1995년 美에일대 의대 조교수
- 현재 모교 약대 약학과 교수

음식의 섭취와 한국인의 높은 위암 발생률이 관계가 깊다는 속설은 재고되어야 하며, 오히려 캡사이신의 위장관 보호 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멕시코에서 실시된 역학조사 결과도 고추 섭취량과 위암발생과는 별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

실험동물을 이용한 몇몇 연구에서, 고추 엑기스 및 캡사이신을 처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종양발생의 빈도가 증가한 결과를 보인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동물실험 결과가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추의 발암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고추나 캡사이신이 발암억제제 또는 항암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캡사이신은 항산화, 염증 억제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조직의 산화적 손상을 막고 종양 촉진이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발암성 화학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간에서 대사되어 반응성이 높은 중간체로 활성화된 후 표적세포의 DNA를 공격함으로써 암화 과정을 개시하는데, 캡사이신은 발암원 물질들의 대사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발암과정을 억제한다. 필자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위에서 생성되는 대표적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아민의 돌연변이성을 억제하고, 한편 암세포에 처리시 아포토시스를 통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추는 한국국민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김치와 고추장을 담그는데 가장 필수적인 향신료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식품을 의약품처럼, 의약품은 식품처럼(Let food be your medicine, medicine be your food)」이라고 했다. 고추의 기능성과 약리활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식품을 산업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을 비롯한 각종 화합물들의 생리활성 및 약리작용을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규명함으로써 신약 후보물질들의 도출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이성계와 함흥 <계속>

<郷土史 연구>

나의 고향 咸興 <2>

'1991년 고향 함흥에 다녀와서'

한경섭 <공대 52년졸>

고려가 잠시 여진 땅 함흥 지방을 점령했던 시기에 고려 한족들이 이곳에 이주하여 살았을 것이며 고려가 철수하면서 일부 고려민들이 남아 여진족과 융합하여 사랐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李成桂가 출생한 1333년이 이백 여년이나 세월이 흐른 후였으니, 고려민들은 여진족으로 동화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본다면 李成桂는 全州에서 유래해서 온, 싹향한 韓族이라기보다는 그 땅에서 살아온 女眞族일 것이 더 믿을만하다. 좀 더 다른 여건도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흔히 보듯이 하급이나 무급 사람, 다시 말해서 비천한 사람, 상인, 농민들이 왕이나 귀족의 지위를 획득하 게 되면 양반 계급의 본관을 따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와 같이 李成桂도 예를 따라 본관을 全州(전주)로 한 것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을 것 같다. 李成桂가 韓族인지, 여진족인지, 그의 선조를 찾아 보는 것도 하나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불행히도 남과북이 분단되어 우리 조선 역사를 올바르게 저술할 수 있는 興件(여건)을 아지 갖추어 지 지 못하고 있다. 과거 근 60년간 南北이 분단된 관계로 南은 南대로, 北은 北대로 다른 사관에서 역사를 연구하여 왔다. 南의 사학자들은 보수적이라 할까, 애국적 이라고 할까, 주로 지배왕조의 역사에 치중하고, 또 정치적 압력 하에서 순수성을 상실한 사관으로 공정한 학문의 탐구가 결핍된 사정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南의 사학자들은 北-조선을 마음대로 왕래하며 사적이나 사료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제한된 사료로 역사서를 저술하고 있는 형편이다. 北도 같은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으며 北의 사학자들도 자유롭게 南으로 왕래하며 사적이나 사료를 수집할 수 없는 처지 예능 여있어서 서로가 비슷한 사정이다. 더욱이 北의 역사관은 사회, 경제사(social-economics)를 위주로 하는, 유물사관적(dialectical history) 입장에서 연구하여 왔고, 뿐만 아니라 南쪽보다 적극적인 조국 통일할 하여야겠다는 신념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역사서를 저술해 왔다고 보겠다. 앞으로 南과 北의 사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학술 토론도 하고 상호 자유로이 南北을 왕래하며 사적을 답사하고 사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가장 공정하고, 신빙성 있는 역사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다음, 李成桂에 대한 설화 몇 가

지를 이야기하자면, 먼저 함흥 일대의 지형과 그에 관계되는 사적들을 설명하여야 할 것 같다. 지금의 함흥시의 西쪽에는 城川江(성천강)이 흐르고 東쪽에는 湖連川[호련천]이 흐른다. 北쪽에는 盤龍山[반룡산]이 둘러 싸여있고, 南으로는 동해에 이르기까지 함흥 평야가 펼쳐져 있다. 함흥의 동북방용산 기슭에 馳馬臺[치마대]가 있고 그 동쪽에는 湖連川이 南으로 흘러내려 동해에 이르고, 그 동쪽 산 기슭에는 麟州寺[귀주사]가 있다. 이곳은 李成桂가 학습하며 지내던 곳이고 그 귀주사입구에 定和陵(정화능)이었다. 이 능은 李成桂의 부모와 조상을 모신 능이라고 기억하고있다. 그리고 함흥평야에 본궁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궁이 바로 아사에 나오는 咸興差使[함흥차사]의 본궁이라는 곳이다. 李成桂는 그의 다섯째 아들인 芳遠(태종)이 형인 芳果(방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자기가 어렸을때 공부도 하고 말도 타던 정든 고향 땅에 본궁을 짓고 1402년에 귀향하였다. 그 위치가 함흥과 흥남 중간 지점에 있다.

이 넓은 궁의 장원에 일본 침략군들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활을 축소시켜 작은 건물과 대지만을 남겨 놓았다. 이것은 경복궁에다 총독부 건물을 지은것과 똑같은 망동이다. 馳馬臺(치마대)는 李成桂가 말타면서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라고 한다. 李成桂의 성격을 표현한 이야기 중의 하나로, 그가 수장이 되어 군사 훈련을 주도하던 어느 날 하루 그의 대원 하나가 모이기로 한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자 李成桂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니가 머리를 감고 가라고 하여 늦었다고 하니 李成桂는 군사 기율에는 그것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그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군 기율에 엄격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다음 설화는 이성계가 어느 날 湖連川이 흐르는 평야에서 말을 타고 훈련을 하다 목이 말라서 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였더니 그 처녀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그 물에 버들 잎 몇개를 띄워 주었는데, 李成桂는 조금 화가 나서 왜 버들 잎을 띄워 주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인

이 대답하기를, “도련님이 힘차게 말을타고 달렸으니, 숨이 찬줄 압니다, 물을 마시려면 버들 잎을 붙여서 한 숨을 돌리고 난 후에 물을 마셔야 하는 압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총명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하였다고 한다. 그 여인이 바로 첫째부인인 나촌 韓씨이다. 그 부인 한테서는 아들 여섯 형제가 있었으며, 부인은 李成桂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 고왕후로 추명되었다.

다음은 名馬이야기다. 활의 명사수인 李成桂는 龍馬[용마]라고 하는 한 필의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자신이 쓴 화살과 자기의 용마하고 어느 것이 더 빠른가를 보려고, 치마대에서 약 20 리가량 떨어진 함흥평야의 本宮을 향해 활을 쏘고난 후 용마로 본궁을 향하여 달려 갔다.

물론 용마가 먼저 도착 한것으로 믿고있던 李成桂는 아무리 기다려도 화살이 도착하지 않아, 화살이 먼저 도착 한줄 알고 성미가 급한 그는 화가 나서 말의 목을 베었던니 그제서야 화살이 도착하였다고 한다. 하도 애석해서 그 말을 정화능 옆에다 매장하고 묘같은것을 만들어주었고 한다.

다음은 李成桂의 꿈과 해몽, 李成桂와 안변 釋王寺[석왕사]의 설화이다. 나는 수년 전 八萬大藏經(팔만대장경)을 보장하고 있는 海印寺(해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곳 해인사 있는 두폭의 李成桂에 관한 벽화 의 설화는 내가 어렸을때 나의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 들려 주신 것과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어디까지나 불교인들이 만들어낸 설화이기에, 여기서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써 보기로 한다.

어느 날 李成桂가 꿈을 꾸었는데, 그꿈에 자기가 큰 나무 기둥만한 서까래 셋을 짚머지고 어의정 어의정하면서 큰 대문으로 들어가는 꿈을꾸었다. 이 꿈에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 도사를 찾아가 해몽을 청하니, 그 도사는 李成桂를 한참동안 바라보더니 신중히 말하기를, 그가 어깨에 짚머진 서까래 셋은 “입금王字”라는 뜻이고 大門에 들어가는 “어의정”은 御衣廷이라는 뜻이요, 다시 말하면 御衣는 입금이 입는 옷이라는 뜻이고, “정”

자는 “조정-廷”字이니 조정이라는 뜻 이라고 하면서 입금이 되어 입금의 옷을 입고 大門으로 들어가 조정에 설 꿈이라고 해몽하여 주었다. 그가 기뻐서 그 이야기를 자기친구에게 하였더니, 그 친구도 그 도사를 찾아가 李成桂가 꾸 꿈과 똑 같은 줄거리의 꿈을 해몽하여 달라고 청하였는데, 도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어깨에 서까래 셋을 지고 있는 것은 “입-口字”이고 大門 “門字에” “입-口字”가있으니 “문-問字”와 같고 그 뜻은 御衣廷 大門앞에서 입-“口”을 벌리고 있으니 벌어먹을 신수라고 정직하지 못한 그에게 해몽하여 주었다고 한다.

이런 설화와 전설이 전해 내려오면서 함흥 지대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함경도 함흥에서 자라난 李成桂가 조선 왕조를 건국하였다는 전설, 일화, 설화 등과 더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李成桂가 여진 땅에서 태어났으니 女眞族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관이 전주라고 하여 전라도 사람이 라고 믿는사람도 없다. 나 역시 本貫이 淸州(청주)인 韓氏라고 해서 충청도 사람이라든가 나의 고향이 청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또한 나의 조상이 여진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 보니 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은 朝鮮 사람이라는것 뿐이다.

3)북한과 함흥

나의 족보에 韓氏는 중국에서 이주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내가 中國 사람이라고 생각할 적은 전혀 없다. 내가 자란 시절에는 조선, 함경도, 함흥이 “나의 살던 고향”이다. 北-조선도없었고 南-한국도 없었으며, 조선이 내 나라이고 南과 北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나는 자라 왔다. 불행히도 6.25 동란후 南의 정권은 지상 최대의 적이 北의 괴뢰 정권이고, 또한 北의 정권도 지상 최대의 적은 南의 괴뢰 정권이되었다. 6.25 동란은 수백년 내려온 南-한국과 北-조선의 원한의 동란이 아니다. 외부 세력에 놀아난 동란인데도 불구하고, 지상 최대의 원한의 적으로 南과 北이 최악의 대립을 하며 지내왔다.

지난 오십여 년간 이와 같은 남북간의 원함과 감정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그와 동시에 정치적 지역 감정도 발생하였다. 다시 말하면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즉 역사를 배경으로 한 지역자랑의 감정도 대립해 온 현상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韓族의 백제 문화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며, 경상도 사람들

은 신라통일을 이루고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평안도사람은 東明王(동명왕)이 고구려를 세워 백제, 신라 땅까지 세력을 확대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으며, 함경도 사람들은 李成桂가 처음으로 고려 땅은 물론 여진땅, 丹族땅까지 포함해서 조선왕조를 세웠다고 자랑하고 있다. 간단히 “자랑”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 “자랑”이란 의미 속에는 깊은 지역 감정과 또 지역반감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 우선 南-한국 과 北-조선 간에는 감정과 사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본다. 나는 Canada에 이주하여 살고 있어, 내 고향을 떠난 지 45년만인 1991년에야 함흥에 갈 기회를 가졌다. 1946년 北-조선에서 南-한국으로 내려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6.25 동란도 겪고, 군사정권 정치 하에서 살면서 철저한 반공 사상의 교육도 받다가 1967년에 21년간의 南-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Canada에 이주하였다. 북경을 출발해서 평양을 향해 비행기가 날고 있는 동안 고향에 간다는 흥분과, 또한 과거 40여 년간 공산주의 통치 하에서 어떠한 사회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疑訝[의아]한마음, 그리운 고향 땅을 찾는 마음은 착잡하게 엇갈렸다. 北의 땅에 내리고 보니, 읽고 들은 대로 여유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여행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때까지 미처 느끼지 못하였던 몇 가지 점을 예를 들어 본다. 우선 北-조선 정권과 국민들은 南-한국에 대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나하는 것이다.

첫째로 그들은 우리 조선이 하나의 나라라고 믿고 있으며, 지금은 남반부가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실례를 하나 든다면 北-조선에서 발간한 지도이다. 나는 항상 여행할때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지도이다.

내가 Canada에 처음 왔을 때 Toronto 비행장에서 제일 먼저 산 것이 역시 지도였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서있는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것이 나의 버릇인것 같기도 하고, 아마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직업 의식에서 나온것같기도하다.

우선 평양에 도착하여 고려호텔에 짐을 풀고 제일먼저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 간 곳은 구내 책방이었다. 조선 지도를 사서 펼쳐 보니, 내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늘 보고 자란 정든 지도이어서 나는 놀랐다.

지도제목은 “조선행정구역도”로 되어 있고, 인쇄와 발행이, 1983년-평양으로 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워싱턴 DC지역 소식

워싱턴 미주이민(美州移民) 100주년 기념사업회 탄생의 의미



박윤수 <문리대 52년 졸,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워싱턴) 회장>

워싱턴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탄생은 타 지역의 기념사업회에 비해 그 탄생의 비중이 더욱 더 크다고 봅니다.

워싱턴 사업회가 우리 이민 100주년 기념축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1883년(고종 20년)에 조선왕국 報聘使節團이 파견된 곳이 바로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 여기서 미국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891년에 매입된 첫 조선왕국 공사관이 지금도 DC의 Logan Circle 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변수(邊濤 1861-1892)의 대학과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워싱턴입니다.

1910-1945 한일 합병기간중 이 워싱턴에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이 세계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지금 이 수도 근교에는 10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미국연방정부, 주년

대학, 경제기관에 종사하고있고 수도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업체를 형성하고 있고 300여 개의 교회를 통해 신앙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동포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10월19일에 정식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념사업회는 다가오는 2003년 1월 한국인의 미국 이민생활 출범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념사업을 통해서 이민 1세의 노고와 땀으로 형성한 역사를 더듬어 보고 그들이 세워놓은 자랑스런 이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이민생활을 준비하고 미국 주류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후세들에게 남김으로서 우리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자는 우리 기념사업위원들의 신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3년 1월 13일 한국인의 미국 이민생활 출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함께,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통해서 1883년 9월 15일 워싱턴에 당도한 조선왕국 보빙사절단의 첫 방문을 함께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워싱턴 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제15차 실

7.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종합 학술대회 및 세미나 - 이민사회, 종교, 2세

8. 이민 문화 100주년 기념문집 발간 및 작품 낭송회

9. 스미소니언박물관의 한인 이민사료 전시회

10. 코리아 아메리칸 해리티지 파운데이션 설립.

이 여러 사업 중 특별히 우리는 1891년 개설된 조선왕국 주미공사관 건물을 매입하여 이민역사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DC 로간씨클에 위치한 이 건물의 시가(時價)는 약 60만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2003년 5월 1일에 DC 에서 가질 100주년 기념 만찬에는 한미양국 정상과 각 계인사들을 초청하고 한국인으로 미국사회에 기여한 인물들을 초청, 그들의 업적을 기리며 한인들의 미국사회 공헌을 크게 치하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발간된 워싱턴 한인사를 보강 출판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가서 이를 계기로 범 미주 한인단체를 포함한 Heritage Foundation을 구상하고 발족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00만 불의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DC지역의 기념사업회가 합심하여, 이번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가 미국 전체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축제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큰 의의가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념사업회가 전국화가 되어야하고 대중화가 되어야하며 미국사회의 관심과 초점을 한데 모아, 한국사회의 호응을 초래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기념사업을 통해서 향후100년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역사적인 업적을 조명하고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는 이민사회를 형성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883년의 訪美 보빙 사절단.

행위원회 모임을 갖고, 아래와 같은 10대 사업을 결정 실행키로 하였습니다.

1.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Gala, 2003년 5월 1일
2. 조선왕국 주미 공사관건물 매입
3. 변수 묘지 미화작업
4. 워싱턴지역 한인 이민 역사 유적발굴
5. 조선왕국 보빙사절단 워싱턴 120주년 기념행사
6. 워싱턴 한인사 증보판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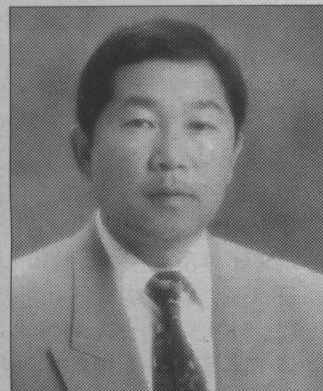
LA지역 소식

총동창회 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임낙균 동문 <약대 64년 입>



이임하는 이청광 회장



신임 임낙균 회장

NO.		NO.	
College		서울대학교남가주동창회	
Name		2002년 정기총회·신구회장여취임 이기준총장환영회	
Dinner Ticket		* 일시 : 2002년 2월 15일(금) 저녁 6시 30분	
B/F		* 장소 : 라디슨 윌셔 플라자 호텔 3535 Wilshire Bl., L.A. (Wilshires-Noemandie) Tel (213)381-7411	
서울대남가주동창회		* 회 비 : 1인당 \$60.00	
		* 연락처 : 김지영 총무국장 (213) 532-3809 이청광 회 장 (626) 926-9719 성주경 재무국장 (213) 385-6356 임낙균 신임회장 (213) 999-1600	

남가주 지역 총동창회(회장 이청광, 상대 61년 입학)는 2002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Radisson Wishile Plaza Hotel, Grand Ball Room 에서 열렸는데 참석동문들이 많이 매워 성황을 이루었으며 6시 30분부터 Reception 후에 7시 30분부터는 만찬이 있었다.

이날 총회는 신임 회장에 전년도 수석 부회장이던 임낙균(약대 64년 입) 동문이 인준되었다.

이어 8시부터 열린 정기 총회는 김지영 총무국장(상대 68년 입)의 개회로 시작되어 이청광 회장의 인사 및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재미 총동창회 이용락 회장(공대 53년 졸), 모교의 이기준 총장(공대 61년 졸) 및 LA 한국 총영사 성경경 동문(문리대 66년 졸)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 김지영 총무국장으로부터 작년도 사업보고 및 성주경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보고가 있었다. 이어 신임회장으로 전년도 수석 부회장 임낙균 동문에 대한 인준에 이어 신임회장의 인사 및 주제

로 수석 부회장 및 감사 인준이 있었고 신임 회장단 및 임원 소개가 있었다.

이어 이기준 총장에게 친구 회장이 주는 기념패가 증정되고,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정원훈 동문이(상대 38년 입) 선정되었음을 이청광 회장이 발표하였고, 심상은 상대회장(상대 54년 입)의 소개에 이어 임낙균 신임 회장이 상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이청광 회장이 서영석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이우근 동문(음대)의 선창으로 교가 제창으로 총회를 마쳤다.

제 2부 순서로 8시 40분부터 장윤정 동문(법대 84년 입)의 사회로 서울대인의 노래자랑이 있었고 여기에는 백경준씨의 첼로 연주, 김영희씨의 가야금 연주 및 간호대 동문들의 라인댄스가 여흥의 분위기를 돋우었으며 노래자랑의 심사위원으로 권길상, 이우균, 홍욱자 동문이 수고하였다.

이의 정기총회 및 송년회 행사는 다음 호에 상보 할 예정이다.

서울대 동창회보를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http://www.snua.or.kr>

뉴잉글랜드지역 소식

뉴잉글랜드지역 신년회

뉴잉글랜드지역 동창회는 2002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 Dinner Party를 1월 26일 보스톤 교외에 있는 Weston Country Club 에서 가졌습니다. 100 여명이 넘는 동문과 이용락 총동창회장 내외분, 그리고 초청된 이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여 동창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준 행사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원 등에서 학업

중인 20 여명의 젊은 동문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하여 지부 동문회의 앞날이 더 한층 밝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총무간사 변종원(공 70입) 동문의 사회로 거행된 정기총회는, 교가제창 그리고 이재신 지부동창회장(공 57입)이 인사말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이재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

문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후원하여주시는 전회장단과 그리고 동문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협조와 건설적인 충고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부동창회의 금년도 사업목표가 동창회 동문뿐 아니라 뉴잉글랜드 지역내의 발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등불이 되도록 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용락 총회장께서는 격려사를 통하여 본 지부의 꾸준한 발전과 업적에 대한 치하를 하였고, 미주 총동창회보 발간등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소수가 아닌 범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감사패 증정식에서는 전임 임원단 모두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강경식 전회장(문 55입)과 윤상래 전총무(농62입) 두 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부동문회가 뉴잉글랜드 노인대학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노인대학 학장 박경민(의53입, 초대 지부회장) 동문이 전달한 감사패는 그간 지부동창회가 노인대학에 꾸준한 협조와 기여를 한 점에 대한 감사 표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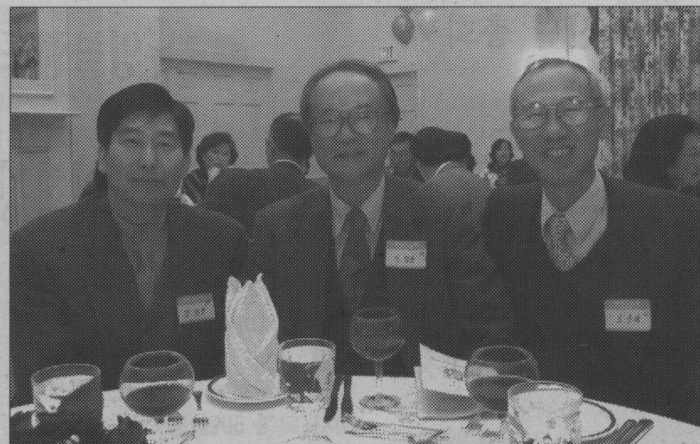
다음 순서로 현 임원단 소개, 이시인준, 윤용훈 재무간사(공67입)와 김양일감사(상61입)가 마련한 재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의 사업보고 중 관심을 끈 것은 지난 10월에 가진 골프대회를 지난 수년간 해오던 뉴잉글랜드지역 내 여러 대학동창회만의 대회에서 참가범위를 넓혀 모든 사회, 종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예정된 지부 주회의 정기 음악회는 음악회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현역 중진 동문 음악인을 주축으로 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강명구 학생간사(공 89입)가 지부 최초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지부 내의 소식전달 등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웹사이트 www.snua.org 에 접속하면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지부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병의 장학위원장(문 60입)이 2002년도 장학생 선정을 하였습니다.



신년 총회장에서 성창모(공 75), 이영준(상 59), 도운회(농 61) 동문



신년회에 참석한 정정욱(의대 60) 부회장과 이재신(공대 57) 회장 부부



뉴잉글랜드 신년회에 참석한 동문들. 좌측 첫번째 동문(이름 미상), 김순교 동문, 이용락 총동창회 회장 부부와 강경식 동문.



NE무도회 팀의 윤상래(농 62), 권이덕(공 68), 최홍균(공 69), 김문소(농 61) 동문.



지역 기부들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 정정욱(의 60)부부, 박경민(의 53), 변종원(공 70), 이용락(공 53)부부, 이재신(공 57)부부, 윤상래(농 62) 동문부부.



신년회장에서. 최진언(공 71), 성창모(공 75), 도운회(농 61), 이영준(상 59), 정혜숙(간 66).

訃告

김문소(수익대 61 입) 동문 母親

권길완 권사님 별세

김문소 동문의 모친이신 권길완 권사님(LA 동양선교교회)께서 지난 1월 31일 LA, California에서 노환으로 98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모친님께 하늘의 영생을 기도 드리는 바이다.

장지는 LA, CA에 소재한 한국 장의사에서 맡았으며 Rosehill Memorial Park에 장지를 모셨다.

유가족들은 보스톤과 LA에서 보내주시는 여러 동문들의 조의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재미 총동창회는 유가족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김문소 동문 자택 전화 : 987-475-3534 (뉴잉글랜드 특파원 윤상래, 수익대 주기목 기자 기고)

<18면에 계속>

NE 신년 총회

<17면서 계속>

금년도에는 예상외로 많은 지원자가 있어 선발이 어려웠고, 또 동문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동문의 추천이 있는 지원자는 모두 고려되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선정된 장학생 4명은 박사과정에서 대학원생서부터 대학 진학 예정자 등 폭이 넓었으며 장학금 \$500 씩 각각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여흥 시간은 한마디로 내내 웃음바다였습니다.

초청된 사회자의 우스개와 재치, 전 참석자가 함께 할 수 사물놀이, 건강증진놀이 등 여러 게임으로 모두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습니다.

가라오케와 함께한 노래자랑에는 이용락회장 사모님과 정혜숙(간호대 66입)동문의 노래가 인기를 끌어 앙골을 불러내었습니다.

한편 권이덕(공68입)동문과 그의 팀인 김문소(농61입), 윤상래(농62입), 최홍균(공69입)동문이 검정 Tuxedo에 나비타이의 완벽한 복장으로 파트너인 부인과 함께 Dance Floor를 내내 떠나질 않아, 결상만 지키고 있던 동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임의 상품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서 모교 박물관에 소장된 전통회화로 제작한 우아한 달력과 수첩으로, 동문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품목이었습니다.

예정시간 11시 보다 훨씬 지나서야 아쉽지만 자리를 떠나야 만 했습니다.

정정욱 지부 부회장(의60입)은 이 모임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게 힘써 여러 동문께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특히 접수와 풍선 등으로 회의를 꾸민 학생회원들, Reception에 쓰인 여러 Appetizer를 마련한 이사부인회 회원, 꽃을 마련한 김동희 친교위원장(간호대 62입), 2002년도 회원 주소록을 새로 제작하여, 총회시 배포할 수 있게끔 한 조한준 편집간사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이번 모임은 동문회가 동문의 참여와 협조로 동문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고, 동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을 다시 알게끔 하였습니다.

윤희경(문리대 62입)동문 기고

서울 총동창회보를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http://www.snua.or.kr>

뉴잉글랜드지역 소식

보스톤 한미노인회장 주봉갑 동문(의대 50입)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지난 1월 19일 Lexington, MA,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2002년도 총회를 갖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주봉갑 박사(의대 50입)를 신임회장으로 인준하였다. 주봉갑 박사는 의과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는 외과 전문의로 활약을 하였으며, 도미후에는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Half Retired?!) 한 가운데 그 여가를 사회복지, 특히 난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며 바쁜 신 가운데에서 지난해의 회기년도에는 「북한 5도민 회장」을 역임

하는 등 남북통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여 오고 있는 숨은 애국자 이시다. 부인 주송희 여사와 함께(empty nest?!)를 지키시면서 Lexington, MA. 에서 단란하게 사시는데, Golf 및 Ballroom Dance 등에도 취미가 다양한신 「멋쟁이 신사」이시다.

투고자 윤상래 특파원



김은한 동문(의대 60입) 한미 노인대학 강의

김은한 (의대 60입) 동문 노인대학에서 강좌를 갔다. < 사진 > 보스톤 한미 노인대학(학장 박경민, 의대 53입)은 지난 1월 19일 금년으로 첫 강좌를 갔었다. 이 강좌는 특히 노인들에게 오는 관절염에 대하여서인데, 그 원인과 증상, 진단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최신약물 치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하였다.

김은한(의대 60입) 박사는 관절염치료를 가장 인기가 있는 약 중의 하나인 Celebrex 등의 약을 직접 가지고 와서 수강생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열의를 보



였으며 이어서 갖게된 만찬시간에도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무려 2시간이나 넘게 갖으면서 참석자들의 건강상담(관절염)을 하여 주었다.

투고자 윤상래 특파원

수익대 동창회 소식

동부지부 동문들

獎學金 \$1,500 모금 전달

수익대 동창회 미국 동부지부(회장 김문소, 총무 주기목, 감사 김현영)는 수익대 동창회원 명부 배포 시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모금한 결과 54명의 전체 회원 중 34명이 出捐하여 정성껏 모금한 \$1,500을 서울의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장학재단(이사장 정영채)에 보냈다.

동 재단에서는 재미 동부 동창회원들에게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후배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장학금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동부지부 동창회는 이 장학금 모금에 참여한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이번 모금의 출연자 34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영국, 강영배, 곽영호, 김기택, 김덕윤, 김문소, 김영두, 김진선, 김진수, 김학근, 김현영, 민홍식, 서우석, 서진국, 성흥환, 신상재, 오연각, 유정식, 윤상래, 이기풍, 이병인, 이성배, 이영섭, 장 효, 전무식, 정진항, 조길현, 조두연, 조정현, 주기목, 주한수, 지홍민, 한의생, 홍순호.

訃告

조길현 동문(수익대 64년 졸) 별세

조길현 동문이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투병중 지난 1월 3일 갑자기 별세하였다.

조 동문은 모국의 오산에 소재한 미 공군 수의과 병원에서 수의관으로 근무하며 모교 수의학 임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91년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Virginia주의 Fairfax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 부인 조호선 여사와 두 자녀 재원과 현주를 남기셨다. 재미 총동창회는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유가족 자택 전화 703-502-9151

필라델피아지역 소식

동문자녀 출판소식

김지용 군 (미대 '62년 입학 김세경 동문의 자제) 편저

한인 2세 '테러러 전쟁' 책 발간

시민 운동가 김지용씨, 전국 20개 대학 순회강연도 나서

이 책은 9.11 테러 이후 발생한 이라크 전쟁과 테러에 대한 미국의 진보적 목소리들을 담은 글을 모아 출간하여 주요 언론 및 대학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편자들은 여기에서 테러사건 후 구조작업 참여자, 희생자 가족, 언론인, 학자들, 종교인들, 세계각국의 여론과 시민운동가들의 글들을 모아 6항목(NOT IN MY NAME, SOME THAT MATTER, BLOWBACK, UNNECESSARY EVILS, COLLATERAL DAMAGES, WHERE DO WE GO FROM HERE?)으로 분류하였다. 편자 대표인 김지용씨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수재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편집 동료들과 함께 프린스턴, 앰허스트 및 UCLA를 비롯하여 20여개 대학을 순회하며 동 저서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이 책은 한국일보 필라델피아(2002년 1월 7일자), New York의 Village Voice지, New York 에 있는 R&N TV와 WBAI라디오 등의 언론에 소개되었다.

이 책 구입을 희망하는 분은 김지용씨에게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 jeekim@hotmail.com>

Jeekim et al (ed), Another World is Possible: conversations in a time of terror, (Subway & Elevated Press, 2001년, 168면, \$12.00)

그림 필라 한국일보에서 전제.

진보적 지식의 목소리

김세용 동문(미대 '62년 입, 액셀 간판대표, 전 필라 한인회 부회장)의 자제인 김지용씨가 저 중심이 되어 9.11 테러 이후 불같이 일고 있는 애국心に 가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테러러 전쟁에 대한 미국내의 진보적 목소리들을 담은 글을 모아 출간하여 주요 언론 및 대학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편자들은 여기에서 테러사건 후 구조작업 참여자, 희생자 가족, 언론인, 학자들, 종교인들, 세계각국의 여론과 시민운동가들의 글들을 모아 6항목(NOT IN MY NAME, SOME THAT MATTER, BLOWBACK, UNNECESSARY EVILS, COLLATERAL DAMAGES, WHERE DO WE GO FROM HERE?)으로 분류하였다. 편자 대표인 김지용씨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수재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편집 동료들과 함께 프린스턴, 앰허스트 및 UCLA를 비롯하여 20여개 대학을 순회하며 동 저서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이 책은 한국일보 필라델피아(2002년 1월 7일자), New York의 Village Voice지, New York 에 있는 R&N TV와 WBAI라디오 등의 언론에 소개되었다.

이 책 구입을 희망하는 분은 김지용씨에게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 jeekim@hotmail.com>

워싱턴지역 소식

신임회장 許允行 동문 <사대 57년 입>

신임 허윤행(許允行·사진) 회장은 1965년 서울 휘문 고등학교를 거쳐 사대 교육행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Guam College에서 한국어 강사를 역임하였고 Georgetown Inn의 General Manager를 거쳐 현재 Red Ranch Inn의 대표로 있다.

<허회장 주소> 830 West Washington St. Sequim, WA 98382 전화 360-683-4195/6, (B) 360-683-9147, (H) 360-683-1546



	RED RANCH INN 830 West Washington Street Sequim, Washington 98382 "Your Golf and Conference Destination"	Restaurant 683-6622 Lodging 683-4195 1-800-777-4195
--	--	---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Wishing you
all the beauty
and serenity
of a special
holiday season.

다가오는 2천 2년 새해에
동문들 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워싱턴 주 서울대 동창회
회장 허윤행 부회장 고희선 감사 황수택

총무 이혜숙, 문화 양용관, 재무 권오성
홍보 김봉오, 사업 차효주, 맹병규, 섭외 서 마리아

중부 펜실베이니아지역 소식

신임회장에 송재훈 동문 <공대 83년 입>

중부 펜실베이니아 지역 동창회는 지난해 6월 1일자로 이임하는 회장 이수경동문(자연대 81년 입)후 임으로 신임회장에 송재훈(공대 83년 입)을 선출하였다.

처 : 445 Waupelani Dr., #J11, State college, PA 16801 TEL: 814-865-6998(B) 814-863-1496 (F) 814-466-0542(H) E-mail : jxs639@psu.edu

송재훈 신임회장 주소 및 연락

김학준 동문 講演會

시애틀 지역 동창회는 김학준 동문(문리대 61입, 총동창회 부회장)을 맞아 총동창회와 지부간의 우의를 다지며 또한 시애틀을 찾아 온 동문과 환담하며 고국 소식을 듣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동문은 지난 11일 워싱턴 주립 대학 국제학회의 초청으로 케인홀에서 9.11 테러 이후의 남북한 관계와 미국의 입장에 대해 탁월한 식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동문의 강연은 관심 있는 많은 청중들의 질문과 대답으로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강연 후 시애틀 동창회장 허윤행(사대 57입)과 임원들이 함께 모여 고국 소식과 그간의 이야기를 환담하며 회포를 풀었다. 산수가 아름다운 워싱턴 주를 방문하여 저서를 집필할 시간을 갖고 싶다는 김 부회장의 소망에 허 동창회장은 자신의 모텔이 있는 산수가 수려한 세킴으로 초청하며 언제든지 환영할 것임을 밝혔다. 김학준 동문은 현재 동아일

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치학 박사로 모교 정치학과 교수로 역임한 바 있다.

김 동문이 한국의 동문회의 활발한 활동과 사업을 소개하자, 허

회장은 이곳 시애틀의 2002년은 아내를 위한 동창회의 해로 정했다고 하였다. 특히 아름다운 풍광의 워싱턴 주를 등산 여행하는 모임을 많이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동창회는 이미 지난 달 세킴에서 일차 임원 상견례를 갖고 라 푸쉬 태평양 연안을 하이킹한 바 있다. (투고자 고희선 동문)



김학준 동문의 강연 후 워싱턴주 임원들. 고희선(법대 64), 양용관(수의대 62), 고영희, 허윤행(사대 57), 김학준(문리대 65졸), 맹병규(문리대 70), 이혜숙(문리대 64)동문. (고영희, 맹상명, 양정희는 워싱턴주 동창회 명예회원임)

하트랜드지역 소식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 임원진

미주 HeartLand 지부 동창회는 (전임 김호원 회장- 치대 52) 지난 가을 Kansas City에서 성황리에 열린 정기총회를 갖고, 2년 임기의 신임회장으로 이상문 동문(상대 57)을 선임하였고, 임원으로 수석 부회장에 정동화 동문(공

대 55), 감사 이재명 동문(의대 59), 총무 이준기 동문(공대 81), 편집 장명우 동문(치대 83), 그리고 장학 위원장에 오명자 동문(문리대 62)을 임명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다.

뉴욕지역 소식

하소

황명자 동문(미대 64년 졸) 5년간 투병 끝에 타계

미술대학을 1964년에 졸업한 황명자 동문이 지난 5년간 유방암과 임파선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2월 19일 별세하였다. 고 황 동문은 1941년 생으로 1960년에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미대 서양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캐나다의 명문대학인 맥길 대학교에서 미술 교육학을 전공한 바 있다. 서울법대를 1962년에 졸업하고 대우실업창업에 동참한 바 있는 유태유씨와 1967년에 결혼한 황 동문은 뉴저지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고 또한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부군인 유태유 동문은 1995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대 동문인 이 부부는 항상 서울대 동창회 연말 파티 등 동창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바 있다. 유족으로 아들 유홍석과 딸 유정현이 있다. 뉴저지 구세군 교회의 창립 멤버인 황 동문의 장례는 2월 22일 구세군교회에서 엄수되었다. 재미 총동창회는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회원동정

이상문 동문 Gallup사 연구 지문

이상문(상대 57 입) 네브라스카 대학 경영학 석좌교수는 LA에 있



는 University of Toyota의 경영학 연수과정인 "Great Manager"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을 둘러보고 왔다.

이 교수는 Gallup사의 "강점에 기초한 경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이 연수과정의 효과에 대하여 Mike Morrison 학장으로부터 3시간 여의 보고를 받았다.

이 교수는 Gallup사의 수석 과학자로 Gallup사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문을 해오고 있다.

이 교수는 또 Silicon Valley의 Software 개발 회사들의 Wireless Internet Protocol 현황도 연구하고 돌아왔다.

조지아지역 소식

조지아 관악회보 제4호

<투고자 조지아 관악회보 편집 위원>

조덕성, 곽민자, 이정희
문종현 부부, 김재호 부부

조지아지역 동창회(회장 김재철)는 조지아 관악회보 제4호(2001년 1월)호를 발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 및 송년회 소식

2001년도 서울대 조지아 동창회 및 송년회가 Holiday Inn Select에서 지난 11월 30일에 열렸습니다.

이날은 동문내외 40여명이 참석하여 뉴욕 WTC 참사를 비롯해서, 주가 폭락, 경기 침체등 우울한 일로 점철된 한 해를 떠나 보내는 한편 한 해 동안 동문들과 함께 가졌던 여러 행사를 돌아보고 대망의 200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7:00 p.m.부터 Social Hour를 가진 후 8:30부터 만찬이 있었고 9:30부터는 집행부의 경과 보고 및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Audio System의 비협조로 그동안 톡톡히 노래 연습을 하면서 이날만을 학수고대해온 여러 재능 있는 동문내외의 분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날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곽민자 부부, 김민부, 김상락 부부, 김상배, 김수일 부부, 김용건 부부, 김예순 부부, 김종구, 김준휘 부부, 김재철 부부, 김재호 부부, 문종현, 박종출 부부, 박희창 부부, 오애리 부부, 유성두 부부, 이정희, 이태환, 이흥렬 부부, 임수암 부부, 임한웅 부부, 장병건 부부, 조덕성 부부, 주선일, 지승남 부부, 최재화 (존칭 생략)

★추계 야유회 개최

지난 10월 14일 Red Top State Park서 40여명의 동문 가족

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비가 조금 뿌려 동문여러분의 참석이 불투명한 가운데 개최된 추계 야유회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동문의 참석은 우리 동문회의 장래에 청신호가 되었고, 함께 한 식사와 여흥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한 번에 다 날려 버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동문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덕성 부부, 김재호 부부, 김성태 가족, 김재철 부부, 김종구 부부, 김용주 부부, 곽민자 부부, 김예순 부부, 김용건 부부, 문종현, 김만복, 최재화 가족, 김태구, 김수일 부부(존칭 생략)

★이정희 (간호대 '72) 동문소식

그 동안 김경자 부동산에서 함께 영업하던 이정희(Julie)동문이 지난 12월에 새로 독립하여 개업을 하였습니다. 여러 동문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소: 3078 Oakcliff Rd. Doraville, GA 30340 전화번호: 678-613-3007

★곽민자 (음대 '65) 동문소식

곽민자 동문의 둘째 딸인 지나양의 결혼식이 2월 16일(토) Orlando의 Disney World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힘찬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는 지나양부부를 위해서 동문 여러분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조덕성(공대 '71) 동문소식

조 덕성 동문의 장녀 명현양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Harvard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조 명현에게 첫출발이 될 이 책의 제목은 "Breaking Up is Hard to Do, Getting Dumped is Hard To do"이며 젊은 남녀의 사랑과 헤어짐을 다룬 아주 흥미 있는 책입니다.

젊은 Writer의 장래를 위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 친선 골프모임 개최

동창회 골프 동호인의 체력단련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골프모임이 지난 11월 4일(일) Hamilton Mill Golf Club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김준휘 부부, 임한웅 부부, 김재철, 김예순, 김용건, 백낙영, 문종현 모두 아홉분의 동문이었다고, Rounding후 다래정에서 푸짐한 회식과 간단한 식사가 있었습니다.

참가비는 단지 \$60....

이번 2002년 골프 모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의 참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김수경(음대 '89) 동문소식

여러번의 연주로 2001년의 Georgia를 풍성하게 하였던 김수경동문은 지난 11월 16일에 UGA에서 Orchestra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아름답게 정열적으로 연주하였다.

★문종현(사회대 '84) 동문소식

동창회 총무로 수고하는 문종현동문이 미국에서 정착한 지 4년만에 Suwanee지역에 Julie 부동산의 정성어린 도움으로 멋진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4029 Treemont Lane Suwanee, GA 30024 Tel) 678-482-4300

★이태환(음대 '89) 동문소식

지난 11월 30일 중앙 장로 교회에서 주최한 이북 아동 신발 구입 자선 음악회에서 류트리오가 함께 듣기 좋은 선율의 테너를 협연하였고, 또한 12월 16일에는 Peach Prime Orchestra와 함께 이태리가곡과 크리스마스 음악을 협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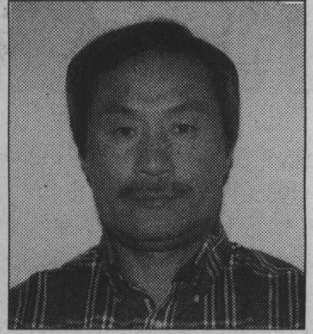
행사 안내

1. 2002년 이사회 : 3월 9일(토) 7시 - Korea Garden
2. 3월 골프 친선 모임 - 일시: 3월 17일(일) 오후 1시 - 장소: 미 정(추후 통보) - 회비: 추후 개별 통보

김재철 회장 신년인사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01년이 지나고 희망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 동문 한분 한분의 가정엔 행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지난 1년동안 동문회가 커다란 하자없이 무사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무한한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동문회를 위해 뒤에서 희생적인 노력을 해주신 집행부 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문회는 동문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 회보를 3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발행을 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야유회를 통하여 서로간의 정담을 나눌 수 있었고, 4차례에 걸친 Golf 모임으로 동호인들이 기량을 심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동문들끼리 자주 모임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친목을 위해서는 빼놓 수 없는 행사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생각컨대, 매 행사마다 동문 여러분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습니다.



9월 11일 N.Y 테러 참사엔 희생자 및 가족들을 위한 성금운동에 동문회가 직접 참여 하였으며, 여러분들의 참여도 \$1,180을 모금하여 Red Cross에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문회 장래의 재정을 위하여 시작한 적립기금에 2001년분으로 \$1,140을 따로 예치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문회가 융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한다는 신념아래 해마다 계속할 계획이며 동문 여러분들도 이점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2001년의 계획을 계속할 것이며 좀 더 성실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지아지역 동창회장 김재철 배상

캐나다 온타리오지역 소식

이임하는 이이병 회장 후임에

신임회장 柳會子 동문 <음대 63년 졸>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동창회(회장 이이병, 약대 59년입)는 지난 1월 26일 118명의 동문 부부들이 모여 총회와 신년회를 자정까지 갖으며 즐거운 시간으로 동문간의 유대를 다졌다.

이 날 총회는 이임하는 이이병 회장 후임으로 유회자 동문(음대 63년 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유회자(柳會子) 동문은 Royal Conservatory 음대교수로 재직 중인데 신임 유회장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WAE JA YOO 150 Madison Ave, Toronto, ONTARIO, M5R2S5 전화) 416-960-0074



이임하는 이이병 회장 가족.

새 동문 주소

- 이대권(문리대 55)
6473-N Summit Point
Norcross, GA 30092
Cell: 770-428-6802
- 한영수 목사(의대 ?)
378 Windshore Ct.
Suwanee, GA 30024

☐ Tel) 770-277-4267
- 손석제(공대 '92)
2893 Seven Pines Lane
Atlanta, GA 30339
Tel) 404-310-6453
- 오애리(음대 '86)
1703 Clifton Rd. #C-6
Atlanta, GA 30329

시카고지역 소식

工科大 동창회 소식

지난 2월 16일(토) 정승규(공대 64년 졸) 시카고 지역 동창회장에서 동문회를 가졌다.

토의사항은 공대 동창회의 활동 및 행사로 미주 총 동창회와 관악 후원회에 대한 공대 동창회원 지원 및 참여 및 2002년 ~ 2003년도 공대 동창회장 선출이었다.

이날 모임에는 이용락 재미 총 동창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이 참석하였고, 향후 공대 동창회가

총 동창회에 적극 기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차기 동창회장으로 박흥근(공대 68년 졸)동문이 수고하기로 결정하였고, 동창회후 Morgan Stanley의 이수경씨(Financial Advisor)의 Retirement Financial Plan에 대한 seminar로 보람있는 동문회를 끝 맺었다.

<투고자 박흥근 회장>

李基億 박사 8순연 후에 동문들에 감사편지

지난 달 1월 11일 8순 생신연을 80여명의 동문들의 가족적인 축하 속에서 가진 이기억 박사(문리대 47년 졸)는 (회보 #95호 21면 기사 참조) 동문들에게 아래의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동문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1일 本人의 八旬生日 잔치를 盛大하게 차려 주어서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不足한 사람을 늘 아껴주시고 指導와 鞭撻해 주신데 깊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餘生을 여러분과 같이 同門동료간의 친목증진과 유대강화에 더욱 힘쓰고자 하며 모교의 발전과 科學技術振興의 大業達成에 協力할 수 있으면 榮光이겠습니다. 끝으로 貴宅의 幸福과 健勝을 祈願하며 生日잔치에 감사합니다. 一日이 찾아서 人事 못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 1월 15일

李基億 및 家族一同 드림

大韓民國 感謝합니다. 지난 1월 11일 本人의 八旬生日 잔치를 盛大하게 차려 주어서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不足한 사람을 늘 아껴주시고 指導와 鞭撻해 주신데 깊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餘生을 여러분과 같이 同門동료간의 친목증진과 유대강화에 더욱 힘쓰고자 하며 모교의 발전과 科學技術振興의 大業達成에 協力할 수 있으면 榮光이겠습니다.

끝으로 貴宅의 幸福과 健勝을 祈願하며 生日잔치에 감사합니다. 一日이 찾아서 人事 못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 1월 15일
李基億 및 家族一同

訃告 李在道 동문 (의대64년 졸업) 永眠

마취전문의사로 Ohio주 Columbus Mt. Carmel Medical Center에서 재직하던 이재도 동문이 지난 2002년 1월 19일 숙환으로 영면하였다. 62세를 한 주일 앞두고 타계한 고인은 유가족으로 부인 이영복 여사와 장녀 Sandy, 차녀 Patricia, 장남 Richard로 그가 평생 근무하던 병원에서 유가족을 비롯하여 동기 동창 이주영군과 송원길군 및 동료의사들이 임종하였다. 재미 총 동창회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홍중환, 靈魂과 현대科學

<10면서 계속>

현 교황이신 요한 바울로 2세께서는 1996년 10월 23일 갈릴레오

사건을 다시 조사한 바티칸이 구성한 학술회 모임에(The Pontifical Academy of Science Meeting in Plenary Assem-

시카고 지역동창회 2002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공고

2002년 3월 23일(토요일)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는 아래와 같이 2002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시어 동창회의 발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2년도에 진행될 행사 계획과 예산안의 확립을 비롯하여 2002-2004년에 우리 동창회를 위해 수고하실 신임 이사님들의 인준 등 중요한 결정을 해 주시고 또 동문 선 후배간의 즐거운 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2년 3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Radisson Hotel, Lincolnwood
4500 W. Touhy Ave.
Lincolnwood, IL 60646
(847) 677-1234

- ◇안건 : 1. 2002년 - 2004년도 신임 이사 인준
- 2. 2002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 인준
- 3. 장학기금 관리위원 인준
- 4. 장학생 선발위원 선출 및 장학금 인준
- 5. 미주 총동창회 평위원 선출
- 6. 기타

꼭 부부 동반 참석하셔서 친목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 22일

시카고 지역동창회 회장 한재은

弔詞 이재도군을 哀悼하며

(1940, 1. 25 ~ 2002, 1. 19)

재도야! 아무리 불려도 대답이 없구나. 내가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인생은 언제고 한 번 가기 마련이나 인생길이 그렇게 짧은 줄은 정말 몰랐다. 2000년 여름 컬럼버스에서 송원길군 여식의 결혼식에서 만나 그 동안 못다 한 옛 이야기를 나눌 때가 너와의 마지막이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일생의 반려자 사랑하는 영복 여사와 은주(Sandy), 현주(Patricia), 대룡(Richard) 대견스런 세 남매를 남겨 두고 눈을 감았더니 믿어지지 않는구나. 자상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 유달리 의리와 인정을 중시 하던 학우이며 동료 의사인 너를 보내고 닳을 잃은 금년 2월 올란드 동기모임은 서울과 미주 각처에서 동기 46명이 대거 참

석하여 너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형식 격식을 갖추어 듣기 좋은 글귀로 체면치레를 한들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988년인가 보다.

신청도 하지 않은 나의 전국행 여권이 발급되었을 때 동기 동창 앞에서 내가 10년이나 20년 먼저 가서 전국에 골프장을 만들테니 그 동안 지상에서 골프 연습 많이 하여 전국에서 골프를 함께 치자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 전국행을 못하고 있는데 전국이든 국적이든 내가 나보다 먼저 가서 무엇을 할 작정이냐? 1958년 청춘의 꿈에 부풀었던 의예과 시절부터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의 인생을 살았다. 1964년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군의관 면접 시험 때에, 뻑

도 돈도 없지만 임관하면 이왕이면 공군의무관이 되어야 한다는 대답을 하자 그 배짱과 용기에 감탄한 시험관이 두 말 않고 너를 선발하였다는 일화는 아직도 기억에 새롭구나.

군복무를 마치자 1960년 후반에 친구 따라 태평양을 건너와 이역만리 낯선 미국 땅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가 되었으니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30년 전에 Florida Tampa 어느 골프코스 호텔에서 마취전문 의사 자격시험을 함께 치르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수련의 시절을 끝내고 일찍부터 Mt. Carmel Medical Center (Columbus, Ohio) 에서 평생토록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마취 전문의사로 필연의 삶을 그토록 강인하게 살았지만 병마에 쓰러져 이제 영원으로 떠나가는 너를 위로할 길이 없어 나는 아직도 우두커니 서 있다.

부디 잘 가거라.

2002년 2월
두고 간 벗 오태희

bly)보낸 메시지에서, '인간의 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나왔다고 할 지라고 영적인 혼(The spiritual soul)은 하나님이 자발적(Spontaneously)으로 창조하셨다'고 하

였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종교계는 몸과 영혼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21세기가 영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

進化論과 創造論의 논쟁같이 결론 없이 22세기로 넘어 갈 것인가, 아니면 科學과 神學이 악수를 할 것인가? 이는 21세기를 아꼈어 갈 젊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이다.

밴쿠버지역 소식

밴쿠버 지역동창회 회보 (2002년 1월) 발간

<동창회 신년 사업계획>

1월 10일 신. 구 임원 인수인계
 1월 27일 Newsletter 발행 (39호)
 4월 20일 Newsletter 발행 (40호)
 5월 총동창회 명부 개정 작업 시작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5월 31일 개정될 명부의 광고접수 마감
 6월 20일 Newsletter 발행 (41호)
 6월 30일 명부 개정작업 완료
 7월 27일 (토) 하계 야유회장소: Warner Loat Park
 동창회 명부(개정판) 배포
 8월 11일 (일) 야드 세일
 8월 20일 Newsletter 발행 (42호)
 9월 21일 (토) 원로선배 초청의 밤 처음 마련하는 행사
 11월 8일 Newsletter 발행 (43호)
 12월 8일 (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
 장소: Executive Plaza Hotel
 *행사의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며, 변경시 행사 직전의 Newsletter에서 알려드립니다.
 *매월 15일에는 임원회의가 열립니다.

<경조사>

경사: 유무종 동문(문리대 '53): 장남 재훈군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에서 결혼

개업

* 엄승용 동문 (상대 '54) 따님 크리스틴 엄 (Dr. Christine Earmme) 양이 웨일리 닥터로 개업하였다.

병원 주소: #914-750 West Broadway, Vancouver

병원 전화: 604-876-0711

한국어 통역이 필요한 환자는 604-542-0595(엄승용 동문 자택)로 연락 바람.

* 박병우 동문 (사회대 '76, 동창회 재무), 김은중 동문 (인문

대 '80, 동창회 총무): 유학 및 이민 컨설팅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회사 명칭: YUHAK.COM, 전화번호: 604-570-0803 Web Site: www.yuhak.com

(참고로 박병우 동문은 기존 Primerica의 Financial Advisor (Mutual Fund, 생명보험 취급) 일도 병행하며, 김은중 동문도 자동차, 주택, 가계, 여행자 보험과 생명보험 일을 겸업한다)

◇조사

1. 황의성 동문 (약대 '61): 지난해 9월 장모님 상(91세)

2. 장영철 동문 (법대 '62) 김종립 동문 (사대 '66) 부부: 지난해 12월 5일 장 동문의 모친상(92세)

3. 박인자 동문 (사대 '64 김형희 동문의 부인): 지난해 12월 초 병원에 입원

신임 황택구 회장 취임사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언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신의 가호와 은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12월 9일 동창회 연차총회에서 2002년도 11대 회장직을 맡게 되어 고명하신 선배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동문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몹시 두렵습니다만, 이왕 주어진 임무이니 올 한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1991년 결성준비를 마치고 1992년 정식 출범한 서울대학교 동창회 밴쿠버지부가 올해로 10년의 역사를 넘겼습니다. 10년이면江山도 변한다더니 밴쿠버 동창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에 심은 작은 묘목이 벌써 풍성한 가지들과 시원한 그늘을 드리운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등록된 회원수가 2002년 1월 현재 235명으로 집계되고 해를 거듭하면서 연중 행사도 다양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명칭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共感 共助 共益의 세 가지 기반을 다져가며 총동창회 지표 '참여, 협력, 영광'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애써 일하신 역대 회장단의 노고와 동문 여러분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신 결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동창회 운영은 동문 회원들 '참여'에 치중했다고 보겠습니다.

"협력의 십년대(十年代)를 시작하며"

십년대(十年代) 올해부터는 동창회 운영을 '협력'에 치중할 방침입니다. '협력의 십년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후배간의 친교를 적극 도모하고, 동문들이 운영하는 생업에 동문 여러분이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매체(媒體)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책(一環策)으로 2000년에 발행한 '동창회 회원명부'를 개정하면서 동문 회원들의 전문분야와 생업에 종사하는 업종을 신실한 '중사 분야' 내에 명시하여 회원들이 동문들의 전문 지식과 업소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문 회원들의 전문분야와 운영업종이 수록된 회원명부가 7월 중순경 발간되면 동문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 교환은 물론 새로 오시는 동문들께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개정 발간될 회원명부는 가급적 기부 형식의 저렴한 광고료로 비용을 충당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9월 중순경 반세기 전에 모교와 인연을 맺으신 50학번 이상 원로 선배님들을 후배들이 초청하는 '원로선배 초청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돈독히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11대 회장단이 추진하려는 새로운 행사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협력의 십년대' 주춧돌을 다듬어 세우는 작업이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협력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우리 밴쿠버 동창회는 '영광의 백년대'로 들어설 것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 회장단 임원구성을 알려드립니다. 부회장: 유동성(공대 '58), 총무: 김은중(불문 '80), 재무: 박병우(경제 '76) 동문께 어려운 임무를 부탁드렸고 관약상 위원장과 장학회 위원장에는 문영석(수의대 '57, 관약상), 김 훈(지질 '54, 장학회) 동문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청을 수락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밴쿠버 동창회 결성 당시부터 참여하신 유동성 동문님과 지난 2년에 걸쳐 완벽하게 재무를 맡아보신 박병우 동문님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시간적 여유가 원만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동창회 운영에 호흡이 맞는 임원이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의 간곡한 간청으로 또 한 해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 오신지 1년 남짓 되었고 컴퓨터 작업에 능숙하면서 매사에 적극적인 일군 김은중 동문님을 총무로 모시게 되어 마음 든든합니다. 이상으로 회장 인사말을 마치면서 동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25일

서울대학교 동창회 밴쿠버지부 회장 황택구 (미대 '57)

미네소타지역 소식

신임회장에 김태환 동문



미네소타지역 동창회는 금년도 동창회를 이끄실 회장으로 김태환 (의대 '58입) 동문을 선출하였다.

이임하는 김필주 동문의 후임으로 선출된 김동문은 현재 Abbott Northwestern Hospital의 방사선 암의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태환 회장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Dr. Tae Hwan Kim, MD
 Medical Director
 Department of Radiology
 oncology Abbott Northwestern Hospital

Tel)612-863-4060 (W)

Fax)612-863-4963

신임 김태환 회장 부부.

샌디에고지역 소식

모교 崔鍾庫 교수 강연회

샌디에고지역 동문들은 모교 법대 교수인 최종고 동문(법대 70년졸)을 초청하여 "An Evening with Professor Choi"라는 강연을 갖는다. 최종고 교수는 이번 봄 학기에 Santa Clar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A Distin-

guished Visiting Professor on East Asian Law and Comparative Jurisprudence"로 초청되어 강의한다.

崔 동문은 1981년의 저서 "법과 종교와 인간" 외에 법철학과 법역사에 관한 많은 저술을 갖고 있으

며, 모교의 故 유기전 총장을 기념하기 위한 전기를 집필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그의 전공분야에 관하여 여러 동문들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날짜: 2002. 3. 5. 화요일, 저녁 6:30-9:00

장소: The Four Points Sheraton Hotel, Palm Rm. D 8110 Aero Drive San Diego, CA 9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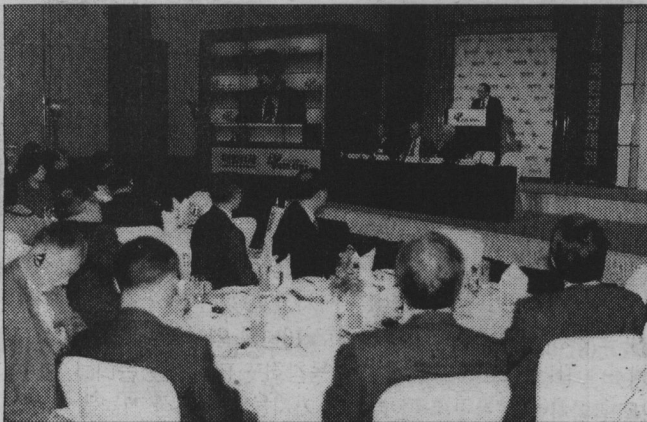
전화: 858-277-8888

(투고자: 김향자 동문)

모교소식

해외 최고자문단 「블루리본패널」 보고서 모교 개혁, 한국 발전위해 필수불가결

“효율적 의사결정권 확보·안정적 재원마련 시급”



이날 행사에는 본회 白樂院고문, 林光洙수석부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朴慶容·朴容慶부회장, 金哲洙논설위원, 李世震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지향하는 모교는 지난해 10월 헨리 로즈스키 前하버드대 문리대 학장, 하스미 시게히코 前도쿄대 총장, 휴고 소넨사인 前시카고대 총장, 마이클 코완 前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도날드 제이 콕스 前켈로그경영대학원 학장, 로날드 옥스버러 前케임브리지대 교수 등 6명을 해외 최고자문단 (Blue Ribbon Panel)으로 위촉, 모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연구결과 종합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설명 및 의견 교환을 위해 해외 자문위원단이 최근 모교를 다시 방문했다.

지난 12월 19일 힐튼호텔 다이나믹홀에서 「World class 대학 이렇게 만들자」라는 주제로 열린 「비전코리아 제7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블루리본패널은 교수 연구실적과 재정, 교육 프로그램의 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모교가 현재 세계 주요 대학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리본패널은 「서울대가 국가 경쟁력과 대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서울대 개혁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기금규모 하버드대의 0.5%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모교의 기금 규모는 현재 1억1천3백만달러로, 하버드대(2백7억달러)의 0.5%에 불과하다. 스탠퍼드대(89억달러), 미시간대(34억달러), 위스콘신대(14억달러) 등에도 크게 못미친다. 이들 기금은 대학 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교의 예산은 대체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해 예산 4억2백만달러 중 1% 남짓인 5백만달러만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 결국

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다.

모교 도서관 예산은 하버드대의 2천3백만달러, 도쿄대의 1천6백만달러에 턱없이 못 미치는 2백40만달러(약 31억2천만원)에 불과하고 장서수도 하버드대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모교 재학생의 학습 열기도 저조해 수업시간 외에 하루 공부하는 시간이 1~2시간인 학생이 30%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이 26%, 전혀 안한다는 학생도 13%나 됐다.

자연대 논문 도쿄대의 23%

한편 90~99년 모교 자연과학계열 교수들의 1인당 평균 발표 논문은 56건으로 도쿄대 2백48건, 하버드대 2백21건, 케임브리지대 1백43건, 미시간대 1백29건 등에 비해 크게 적었다.

교수들의 논문이 학술지에 인용되거나 교육기관 교재로 채택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교수 1인당 연구 효과성 지수」에서도 모교는 1.6으로 하버드대(13.2) 스탠퍼드대(7.1) 코넬대(6.2) 등 미국의 명문 사립대에 크게 뒤진 것은 물론이고 UC 샌타바버라대(3.7) 워싱턴대(2.5) 등 주립대 수준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모교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권 확보와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모교 총장을 지낸 5명의 임기는 2.6년으로 하버드대(21년) 미시간대(10.5년) 등 미국 대학의 평균인 7년에 훨씬 못 미쳐 독자적인 정책 마련과 집행,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동문 등 참여한 이사회 구성

그 해결 방안으로 교수, 동문, 외부 명망가, 외국인 학자 등으로 이사회(board of trustees)를 구성해 총장의 임면과 대정부 협상, 재정 감독과 평가 등을 맡길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내에 경쟁제도를 도입해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한 평가제도 도입과 해외 학자 유치,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인문대학

일반인 대상 「공개강좌」

대규모의 인문학 분야 공개강좌가 모교에 최초로 개설된다.

인문대학(학장 權寧民)은 지난 12월 19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상의 「인문학 공개강좌 개설안」이 인문대 전체 교수회를 통과, 올해 하반기에 첫 강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껏 일부 대학에서 실용학문 중심의 사이버강좌가 있긴 했지만, 인문학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공개강좌는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모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반인 대상의 사이버 공개강좌다.

4개월을 한 학기로 1년에 3학기 운영되는 이 강좌는 이수한 사람들에게 모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수학점은 학점은행에도 포함돼 평생교육과 재교육의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인문대학은 이번 강좌로 모교가 갖고 있는 폐쇄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에 남아도는 「박사 실업자」들에게 재역할을 찾아줄 수 있다는 부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강학점별 등록금제

2002학년도부터 시행

올해부터 수강학점에 따라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수강학점별 등록금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시행안에 따르면 학사과정의 경우 8학기, 석·박사과정 4학기를 마친 재학생 중 기준학점(학사 12학점, 석·박사 6학점) 미만의 학점을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 중 기본액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을 1~3학점, 4~6학점 등 단계별로 분류해 차등 징수하게 된다.

(雙)

공과대학

제10회 「훌륭한 공대 교수상」 시상



金震均 교수



韓民九 교수



朱鍾南 교수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지난 11월 30일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2001년 「훌륭한 공대 교수상」 시상식을 가졌다.

10회째인 이번 수상자로는 교육상에 기계항공공학부 朱鍾南 교수, 학술상에 전기·컴퓨터공학부 韓民九교수, 기술상에 건축학과 金震均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朱교수는 창의공학설계라는 과목을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힘쓰고 국제로봇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韓교수는 SCI 등재 외국 정기학술지에 1백2편의 논문, 국내 정기학술지에 1백11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73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金교수는 모교 연구공인 마스터플랜 및 창업보육센터 등 건축 설계활동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내 최초 치의학 박물관 개관

구한말 이래 유물 1백50여점 전시

구한말 이래로 우리 나라 근대 치의학의 역사와 귀중한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치의학 박물관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근·현대 치의학의 역사와 함께한 모교 치과대학(학장 鄭鍾平)은 지난 12월 28일 치과대학 1층 로비에서 치의학 박물관(관장 韓秀夫)을 개관했다.

치과대학 1층에 있는 치의학 박물관에는 40여 평 규모의 전시실에 구한말, 일제시대 1백50여 점의 치의학 관련 유물이 상설 전시된다. 이번 박물관에

전시된 치의학 유물들의 테마는 치과대학의 역사와 유물중심의 치의학 역사로 구성돼 있다.

「열린 박물관」을 지향하는 치의학 박물관에는 특히 치통을 없애준다는 치통 符籍, 일제시대 경성치의학회가 개원했던 저경궁터(소공동 소재) 비석과 비문,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기 전인 구한말 폐달의 원리를 이용한 치아를 가는 기구(Foot Engine)와 구한말 일조치아, 틀니 등 당시 선조들이 사용했던 치의학 유물들이 일반인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올 6월말 특허법인 설립

교수 특허 출원·관리 전담

모교(총장 李基俊)가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올 6월말쯤 교수의 특허출원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할 특허법인을 설립한다.

모교는 이를 위해 법인내 사무국에 특허출원, 기술이전, 산업체와의 계약체결, 사무지원 부서 등을 설치하는 한편 발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허출원 여부를 심사할 별도의 전문평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상 발명은 국유로 간주, 모든 관련 수입이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되던데다 국가차원의 특허출원 경비 지원도 미미해 해당 발명자나 대학은 특허에 따른 아무 이득도 얻을 수 없어 국유특허출원을 기피해왔다.

모교가 설립할 특허법인은 재단법인 성격을 갖는 특별법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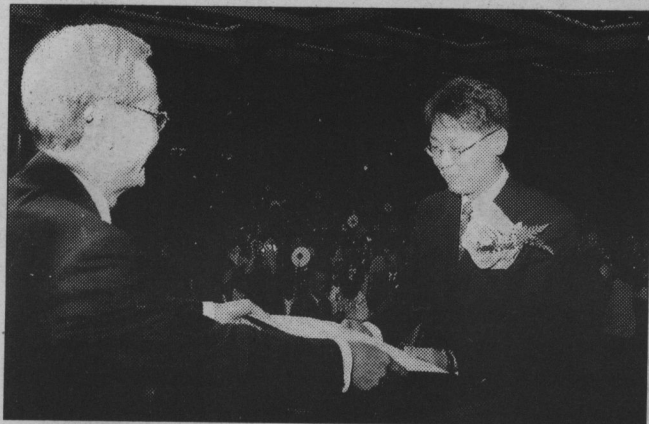
로 교수 직무상 발명에 의한 것은 물론 기업체와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통한 개발기술 등 특허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 관장하며 이 과정에서 쓰이는 비용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특허권은 특허법인이 소유하게 되고, 특허와 관련된 수입은 기술을 개발한 교수와 단과대학, 기업체, 연구소 등이 일정비율로 나눠 가지게 된다.

모교는 또 산업체가 위탁한 연구용역에도 특허권과 특허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일정 부분이 대학과 발명 대상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특허권에 대한 법인과 산업체 공동 소유를 명시하는 「표준 계약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상과대학

「올해의 교수상」 선정...1억 지원



고회장이 박교수(右)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12월 4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 및 제1회 「올해의 교수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총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로 모교 사회대 경제학부 박재용(78년 自然大卒)교수를 선정했다.

박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모교에 대한 사랑을 이토록 실감한 적이 없다」며 「동문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연구에 매진, 국내 경제학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영광된

상을 수상한 박교수 뒤에는 당시의 대성을 바라는 서울대인들의 열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며 「개혁의 21세기에 우뚝 서게 될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번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는 모교 사회대 경제학부 및 경영대 교수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선정됐으며, 후보자들로부터 최근 5년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받아 점수를 매긴 뒤 최고점자를 가렸다.

또한 원로 선배에서 후배들에 이르기까지 전동문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연구지원비는 경제·경영학 분야의 학술연구에 쓰여 지도록 제정됐다.

의과대학

제5회 합춘의학상 시상식 개최



좌로부터 박容喆·李鍾郁·李吉女·李惠媛·金宗星·李寬熙등은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2월 17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에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및 제5회 합춘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합춘의학상 경과보고에 이어 이날 시상식에서 연구업적부문에 울산의대 金宗星(80년卒)교수와 인하대 李寬熙(82년卒)교수, 해외부문에 美 제퍼슨의대 李惠媛(61년卒)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金宗星교수는 「시상 뇌졸중 후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혼합성 불수의 운동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경학적 결손 및 그 결손의 회복 정도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했으며, 李寬熙교수는 「TGF-β 유전자가 포함된 섬유아 세포를 이용한 관절 연골의 재생」이란 논문을 통해 퇴행성관절염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李惠媛교수는 지난 10년간 1천여 명이 넘는 재미교포 B형간염 보균자들의 질병 발전상을 관찰, 「재미교포 B형간염 보균자들의 발병과 질병 발전에 관한 역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시상식을 마친 후 2000년 합춘의학상 연구계획부문을 수상한 李啓榮동문과 이날 수상자들은 준비된 슬라이드를 통해 각자의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대학원

신임 회장에 具聖會동문 선출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秀哲)는 지난 12월 17일 풍전호텔 장미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보건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동창회를 위해 헌신해온 李亮載(62년卒)·李時伯(64년卒)·南喆鉉(64년卒)동문 등 3명에게 「자랑스런 동문상」을 시상했으며, 전임 간사인 나승식(98년卒)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001년도 업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에 이어진 임원 개

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具聖會(81년卒·서울보건대학 교수)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감사에 金潤信(75년卒)·金成元(81년卒)동문을 재선임했으며,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유임시켰다.

2002년 동창회 사업의 일환으로 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금도 마련하기 위해 별걸이용 「회원패」를 제작, 신청자에 한하여 유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사범대학

자랑스런 동문에게 꽃다발 증정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璆教)는 지난 12월 14일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에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李揆澤국회의원과 모교 曹昌燮학장의 축사에 이어 2001년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에 李相周대통령 비서실장·인진시 羅根炯교육감·한국교육방송공사 金學泉사장·한국경제신문 崔揆明사장·교육인적자원부 崔熙善차관·감사원 盧鈺燮사무총장·曹永達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비

서관 등을 선정,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신문대학원

安瑛燮교수 특강

신문대학원동창회(회장 趙容直)는 지난 12월 18일 소공동 「아래향」에서 2001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南善顯총무이사사의 동정 소개에 이어 명지대 安瑛燮(76년卒)교수가 「새 국제질서와 언론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식품공학과

소식지 e-mail로

식품공학과동창회(회장 洪德杓)는 지난 12월 7일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동문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洪회장과 모교 劉尙烈학과의 인사말에 이어 모교 金載勳(50년卒)교수 및 前이화여대 李瑞來(55년卒)교수가 축사를 했다. 이어 올 한해동안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68학번 동문들에게 洪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韓相郁부회장이 모교 재학생 김하운·오은중군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한편 이날 사업보고를 통해 동문들의 동정 및 근황이 담긴 「식품 소식지」를 우편이 아닌 개인 e-mail로 보내기로 했으며, 학부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들도 동창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초청하기로 합의했다.

최고산업전략과정

「회원 수첩」 발간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淳鍾)는 지난 12월 7일 역삼동 「삼원기든」에서 모교 姜泰晋교수, 동창회 高昇熹총간사장, 曹元鎬재무간사, 黃德南홍보간사, 金政永총무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의 연락처가 담긴 2002년 회원 수첩을 연내에 제작 배부하기로 했으며, 2002년 1월 11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자동문회

자랑스런 동문 시상

전자동문회(회장 李梓旭)는 지난 11월 30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동문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林光洙(본회 수석부회장)공대동창회장 및 모교 李鍾珪(48년卒) 명예교수가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모교 李鍾珪·朴松培(51년卒)·安秀吉(57년卒)·李忠雄(58년卒)명예교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증정했다.

또한 동창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로 모교 安秀吉명예교수, 李秉基(74년卒)연구처장, 삼성전자 尹鍾龍(66년卒)부회장, 엔씨소프트 金澤辰(89년卒)사장을 선정했으며,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모교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10억 모금 운동에 동참한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陳大濟(74년卒)사장, 소예산업 黃賢(76년卒)사장, 李梓旭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001년도 동창회 결산보고 및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결산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은 모교 成宏模(65년入)교수의 멋드러진 색소폰 연주와 함께 합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모임예정

법과대학

1월 17일 신년인사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裴命仁)는 오는 1월 17일 오후 6시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735-3614)

경일법회

1월 21일 신년하례회

경일법회(회장 金汝熙)는 오는 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역삼동 소재 아세아도원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788-2049) (表)

이 동 정

수 상

▲柳達永(36년 水原高農卒·성천문화재단 이사장)=지난 12월 7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양정총동창회 「2001 양정인의 밤」 행사에 올해를 빛낸 養正人賞을 수상함.

▲金相廈(49년 文理大卒·삼양사 회장·本會顧問)= 지난 12월 12일 일본 정부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는 훈일등(勳一等) 서보장(瑞寶章)을 받음.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민시낭송문학연구회 회장)=지난 11월 22일 그리스 「International Society of Greek Writers」로부터 「Prize of Socrates」를 받음.

▲安瑛培(55년 工大卒·도성건축 고문)=지난 12월 19일 조선히otel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예총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제15회 예총 예술문화상(건축부문)을 수상함.

▲咸正鎬(57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2월 10일 제53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黃秉冀(59년 法大卒·실크 앤드 뱀부 단장)=지난 12월 19일 조선히otel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예총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제15회 예총 예술문화상(음악부문)을 수상함.

▲沈憲燮(60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2월 13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람(冽巖 朴鍾鳴) 기념사업회(회장 蘇光熙)가 수여하는 제20회 열람학술상을 수상함.

▲李相周(60년 師大卒·대통령비서실장)=지난 12월 11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프로야구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82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하며 프로야구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프로야구 20주년 공로패」를 받음.

▲金重石(62년 音大卒·단국대학교수)=지난 12월 6일 동송동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음악협회 주최 제20회 대한민국 작곡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음.

▲李鍾祥(63년 美大卒·모교 박물관장)=최근 월간 미술시대가 선정한 「2001, 한국을 빛낸 미술인」에 선정됨.

▲權東烈(63년 法大卒·퍼시스 사장)=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디자인경영부문

최우수상을 받음.
▲宋永在(63년 師大卒·서울과학교 교장)=지난 12월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3회 서울교육상(중등교육부문)을 수상함.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本會 副會長)= 지난 12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재경 진주고 동창회로부터 「올해의 자랑스러운 진고인상」을 받음.
▲金石基(64년 工大卒·대경기계기술 회장)=지난 11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받음.
▲姜松植(64년 師大卒·한우물유통 대표)=지난 12월 11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서민연합회 주최 제8회 「올해의 위대한 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민건강계도상을 받음.
▲魏聖復(64년 商大卒·조흥은행장)=지난 1월 4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제11회 다산금융상 대상인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함.
▲金 涓(65년 工大卒·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음.
▲明浩根(65년 法大卒·쌍용양회 회장)=지난 12월 18일 힐튼호텔에서 한국의국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음.
▲尹鍾龍(66년 工大卒·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브랜드경영부문 최우수상을 받음.
▲琴章泰(66년 文理大卒·모교 종교학과 교수)=지난 12월 27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다산학술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다산학술상 대상을 수상함.
▲徐東喜(70년 美大卒·건국대학교수)=최근 제24회 한국미술문화대상 초대작가상을 받음.
▲白明鉉(71년 文理大卒·모교 화학부 교수)=지난 12월 18일

모교 물리학부 李洙宗교수

국내 첫 「유네스코 과학자賞」 수상

국내 물리학자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산하 기관이 주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모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李洙宗(82년 師大卒)교수(사진)가 지난 12월 6일 유네스코 산하 국제이론물리연구소(ICTP)로부터 「2001년 ICTP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ICTP상을 한국 과학자가 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1983년 제정된 ICTP상은 전세계적으로 물리·수학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45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어지며 수상자를 고에너지, 고체물리, 수학 등 3개 분야에서 3년에 한번씩 선정한다. 李洙宗 교수는 고에너지 분야에서 6번째 수상자가 됐다.

비라소로 ICTP소장은 李洙宗수에게 보낸 전문에서 「우주론, 입자물리학, 초끈이론에 걸쳐 9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李洙宗 교수는 사범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토프트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편집주간식

도약과 응비의 壬午年 새해를 맞아 보람과 성취의 한해로 마무리길 기원하면서 새배드립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올해의 여성 과학기술자상(자연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金映世(74년 美大卒·이노디자인 사장)=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산업포장을 받음.

▲李舜鍾(74년 美大卒·모교 디자인학부 교수)=지난 12월 18일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산업포장을 받음.

▲金聖權(74년 醫大卒·모교 병원 진료부원장)=지난 12월 2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20년간의 환자

정보를 지식관리시스템으로 체계화한 데이터웨어하우징을 구축한 공로로 「보건복지 신지식인상」을 받음.

▲韓弘子(75년 師大卒·시인)=지난 12월 13일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시집 「잃어버린 시간들」로 조선문학사가 제정한 제2회 「조선문학상」을 수상함.

▲李相殷(75년 醫大卒·모교 비뇨기과학교실 교수)=지난 11월 29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린 미국 기초비뇨기과

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함.
▲金基文(76년 自然大卒·포항공대 교수)=지난 12월 4일 제8회 한국과학상(화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鄭忠始(76년 工大卒·오미아 코리아 사장)=지난 11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철

탑 산업훈장을 받음.
▲林平龍(76년 音大卒·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지난 12월 6일 동송동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음악협회 주최 제20회 대한민국 작곡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음.

▲李魯鍾(76년 大學院卒·SK그룹 전무)=지난 12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중앙대 언론문화회가 수여하는 「2001년 중앙대 언론인상(홍보부문)」을 수상함.

▲李美媛(77년 人文大卒·경희대 교수)=지난 12월 29일 중앙대 공연영상예술원 캠퍼스에

서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수여하는 2001년 여성기 평론가상을 받음.

▲黃聖浩(78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12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주최 「2001년 무용·문학·미술·연극·영화·음악·평론 등 7개 부문의 최우수 예술인」 시상식에서 음악부문 최우수 예술인상을 수상함.

▲崔茂榮(79년 自然大卒·모교 물리학과 교수)=지난 12월 4일 제8회 한국과학상(물리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趙弘燮(80년 工大卒·한겨레신문 기자)=지난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2001년 환경인상」 시상식에서 제11회 환경인상(녹색언론인)을 수상함.

▲崔毅柱(80년 藥大卒·고려대 교수)=지난 12월 4일 제8회 한국과학상(생명과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郭決鎬(80년 環大院卒·환경부 기획관리실장)=지난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2001년 환경인상」 시

상식에서 제11회 환경인상(녹색공무원)을 수상함.
▲徐連洙(82년 自然大卒·성균관대 교수)=지난 12월 14일 「2001년 생명공학의 해」를 기념해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명공학자상을 수상함.

▲金東洙(83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12월 1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제5회 젊은 과학자상(건축·토목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朴忠模(83년 師大卒·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 박사)=지난 12월 14일 「2001년 생명공학의 해」를 기념해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명공학자상을 수상함.

▲柳誠彥(84년 自然大卒·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지난 12월 14일 「2001년 생명공학의 해」를 기념해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명공학자상을 수상함.

▲方孝忠(85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12월 1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제5회 젊은 과학자상(기계·항공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黃準默(86년 自然大卒·고등



과학원 교수)=지난 12월 4일 제8회 한국과학상(수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玄澤煥(87년 自然大卒·모교 응용화학부 교수)=지난 12월 1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제5회 젊은 과학자상(화공·생명공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李玪浩(87년 工大卒·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12월 1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제5회 젊은 과학자상(전자·정보기술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朴贊法(26기 AMP·아시아나 항공 사장)=지난 12월 12일 경희대 관광대학원이 수여하는 제1회 경희관광인상을 수상함.

▲趙芳來(40기 AMP·LG과외 사장)=지난 12월 18일 힐튼호텔에서 한국의국기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음.

▲鄭然東(48기 AMP·한전KDN 사장)=지난 12월 12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사보 기자협회 주최 한국사보대상 시상식에서 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함.

▲金基文(51기 AMP·로만손 대표)=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디자인경영부문 우수상을 받음.

▲金炳哲(45기 ACAD·서울고 교장)=지난 12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23회 서울교육상(중등교육부문)을 수상함.

이동·선임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 건 회장·충북 협회장·工大同窓會長·本會 首席副會長)=지난 12월 19일 국민고층처리위원회로부터 시민대표로서 이웃과 주변의 고층을 위원회에 전달하고 국민고층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문을 해주는 한편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 음부즈맨」에 위촉됨.

▲鄭根謨(59년 文理大卒·호서대 총장)=지난 12월 7일 창립된 한국위협통제학회 초대 회장에 선출됨.

▲高建(60년 文理大卒·서울

시장)=지난 12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愼鏞度(61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12월 10일 백범기념사업협회 부설기관으로 발족한 백범학술원 초대 원장에 선출됨.

▲李壽成(61년 法大卒·前국무총리)=지난 12월 10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서울고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출됨.

▲金鏞秀(63년 文理大卒·한성대 교수)=지난 12월 10일 한국고서연구회 제8대 회장에 선출됨.

▲梁瑋(63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함.

▲金旻(64년 音大卒·모교 음대 학장)=2002년 10월 18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회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주니어부 심사위원에 위촉됨.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1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 집행위원회에서 IOC 위원에 내정됨.

▲郭熙魯(67년 工大卒·승실대 교수)=지난 12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1회 대한전기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근 한국농업경제학회 제22대 회장에 선출됨.

▲金昇圭(68년 法大卒·광주고 검장)=지난 12월 17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됨.

▲李弘揆(68년 醫大卒·모교 내

과학교실 교수)=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앙일보 「과학칼럼」 칼럼니스트에 위촉됨.

▲朴基燾(69년 工大卒·한국타이어 상무)=지난 1월 1일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선임됨.

▲安國全(69년 農大卒·前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지난 12월 18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진흥원에 임명됨.

▲柳明桓(70년 法大卒·외교통상부 장관특별보좌관)=지난 12월 9일 신설된 對테러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담당대사에 임명됨.

▲李榮蘭(71년 法大卒·숙명여대 교수)=최근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선출됨.

▲盧宗熙(71년 敎大院卒·한양대 교수)=최근 한국교총에서 개최된 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에서 제30대 회장에 취임함.

▲文昌克(72년 文理大卒·중앙일보 이사)=지난 12월 21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총회에서 제49대 총무에 선출됨.

▲吳濟世(72년 法大卒·前국민고층처리위 상임위원)=지난 12월 4일 인천시 행정부시장에 내정됨.

▲崔海元(74년 農大卒·前네오빌 사장)=지난 12월 4일 데이콤시스템 테크놀로지(DST)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棋培(75년 法大卒·법무연수원 기획부장)=지난 12월 18일 광주고검 차장(검사장)에 임명됨.

▲柳子孝(75년 師大卒·SBS 라디오본부장)=지난 12월 18일 프랑스 특파원 출신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파리클럽 회장에 선출됨.

▲姜興植(77년 醫大卒·모교 방사선과학교실 교수)=지난 12월 20일 분당 모교병원 개원준비단 부단장에 선임됨.

▲金哲鎬(80년 醫大卒·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지난 12월 20일 분당 모교병원 개원준비단 진료기획처장에 선임됨.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5일(金) 오후 6시 30분
서울 신라호텔 2층 디너스티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4장 제 11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02년 3월 15일 (金) 오후 6시 30분

◆장소: 신라호텔 2층 디너스티홀

◆안건:

- ① 신입회원 환영
② 2001년도 결산 및 2002년 사업계획 보고
③ 제 4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④ 동창회 제 19대 신임 회장, 회장단, 감사 선임
⑤ 기타 안건 심의

◆회비: 2만원.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총회 상기 안건을 사전 협의, 의견 조율을 위한 상임 이사회는 2월중 별도 소집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행사·출간

▲丁奇洙(51년 文理大卒·한국 AMOPA 협회 회장)=지난 11월 22일 프랑스 문화원에서 「파키스탄과 한국」 및 「프랑스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괘리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지난 12월 5~17일 서초구 잠원동 괘리우덕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작가를 초대해 「한·일 현대 섬유 매체전」을 가짐. 또 12월 20~31일 한국 금속작가 미주순회 귀국전을 개최함.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28일 충북대 대강연실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음.

▲李仁浩(55년 文理大入·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12월 13~1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과 세계의 만남」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14일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 음악회를 가짐.

▲李仁浩(55년 文理大入·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12월 13~1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과 세계의 만남」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14일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 음악회를 가짐.

▲全泳杓(60년 文理大卒·신구대학 교수·출판문화회 회장)=지난 12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정치문화연구회가 주관한 「출판인 채진흥법(안) 제정과 도서정가제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함. 또 2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11회 학술포럼을 갖고 광주대 金基中교수와 강원대 南潤秀교수의 화갑 기념논문집 봉정식을 가짐.

▲曹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 소비자연맹 부산회장·부산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장)=지난 12월 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 대신 토론회를 가짐.

▲任德淳(62년 師大卒·충북대 교수)=지난 12월 4일 외교안보연구원 정책개발과정에 초청돼 공관장급 외무공무원들에게 「지정학과 지리정치적 시각」을 주제로 특강함.

▲任德淳(62년 師大卒·충북대 교수)=지난 12월 4일 외교안보연구원 정책개발과정에 초청돼 공관장급 외무공무원들에게 「지정학과 지리정치적 시각」을 주제로 특강함.

▲任德淳(62년 師大卒·충북대 교수)=지난 12월 4일 외교안보연구원 정책개발과정에 초청돼 공관장급 외무공무원들에게 「지정학과 지리정치적 시각」을 주제로 특강함.

▲任德淳(62년 師大卒·충북대 교수)=지난 12월 4일 외교안보연구원 정책개발과정에 초청돼 공관장급 외무공무원들에게 「지정학과 지리정치적 시각」을 주제로 특강함.

▲沈利澤(63년 工大卒·대한항공 사장·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지난 12월 11일 캐피탈호텔에서 「방위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대안강구」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가짐.

▲李乘根(63년 文理大卒·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국어학회 회장) = 지난 12월 19~21일 국제청소년센터 제28회 국



어학회 공동연구회를 개최하고, 「連語(collocation)」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짐.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本報論說委員) = 지난 12월 17일 한국언론재단에서 李成春 前 고려대 석좌교수를 초청, 「한국언론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 = 지난 1월 16~18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ASEM 환경장관회의에 참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 및 아시아와 유럽간 환경파트너십 구축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힘.

▲李長茂(67년 工大卒·모교 공대 학장) = 지난 12월 16~22일 미국의 대학 및 연구소의 교육, 연구 협의차 미국 미시간대와 포드자동차연구소 등을 방문함.



▲朴容眩(68년 醫大卒·모교 병원장) = 지난 12월 19일 종로구 이화동 중사무소를 찾아 독거노인을 위해 써달라고 농업 상품권 21매(420만원 상당)를 전달함.



▲李相龍(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 지난 12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환경기술·산업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

▲朴惠蘭(69년 文理大卒·여성학자) =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일상을 토대로 쓴 생활 에세이 「나이들에 대하여」(웅진닷컴)를 펴냄.

▲朴世逸(70년 法大卒·모교 국제지역원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 지난 12월 8일 모교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함.

▲宋仁誠(71년 醫大卒·모교 내과학교실 교수·모교 병원 불우환자돕기 합춘후원회장) = 지난 12월 14일 모교 병원내 임상의학연구소 1층 휴게실에서 불우환자 진료비 마련을 위한 「음악과 사랑이 있는 일일 찻집」을 열었다.

▲金錫俊(73년 工大卒·이화여대 교수·비전@한국 공동대표) = 지난 12월 21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한국 공적자금 제도의 현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짐.

▲吳然天(74년 文理大卒·모교 행정대학원장) = 지난 12월 14일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정책 지식센터」

개소식을 가짐. ▲林周煥(76년 行大院卒·순천향대 교수·한국관광개발학회 회장) = 지난 12월 15일 경희대 종합강의실에서 「사회

경제적 위기와 관광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가짐.

▲崔龍建(77년 美大卒·화가) = 최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의 5년여 생활 일기 「조금은 가난해도 좋다면」(푸른 숲)을 펴냄.

▲李珉柱(80년 美大卒·모교 강사·한국화가) = 지난 11월 17~25일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자연 - 생성과 소멸」 한·일 교류전에서 「공명필선의 화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함.

▲李忠範(82년 法大卒·정해복지 이사장) = 지난 12월 13일 인터컨티넨탈 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해복지 15주년 기념 책자 출판기념회」 및 배한 정해기술학교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디너쇼를 가짐.

▲趙泰玄(83년 大學院卒·중소기업청 운영위원·배재대 겸임교수) = 지난 12월 8일 코엑스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한국 무역포럼 정기총회 및 제1회 세미나에서 「중국의 WTO가입의 미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함.

▲安惠鮮(89년 音大卒·중앙대 강사·피아니스트) = 지난 12월 3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해 스

크리아빈, 프로코피에프, 무스르그스키 등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색채감 가득한

음악을 선사함.

▲尹衡(91년 音大卒·뉴욕시립오페라단 단원) = 지난 1월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영국 BBC방송

오페라 출연, Sullivan 공쿠르 입상,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오디션 합격, 워싱턴 오페라단 입단 등을 기념해 축하음악회를 가짐.

▲丁皓鎭(92년 音大卒·한세대학교 교수·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1월 13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李碩煥(95년 音大卒·KBS교향악단 호른 연주자) 등 문 등과 함께 「호른,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연주회」를 열어 브람스, 리게티, 김현민 등의 작품을 선보임.

▲鄭均和(36기 AMP·정커뮤니케이션 대표·청주대 겸임교수) = 지난 12월 19~25일 인사동 운보갤러리에서 手話문화·스포츠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인기 연예인 수화사진전 및 초대 작가 작품전」을 개최함.

▲安鎭元(6기 EPHPM·대한한 의사협회 홍보실장) = 최근 미국 Faith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음.

(정리 安興燮기자)

新刊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

—崔焘東 著

정신과 전문의 崔焘東(79년 醫大卒·한별병원장) 동문이 마음 이 아픈 환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 정신과나 심리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정신의학 안내서를 펴냈다.

이 책은 3부로 나뉘 1부에서는 성격과 체질, 무의식, 혼란스러운 사춘기 등 정신의학의 일반적 지식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스트레스, 화병, 히스테리,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각종 질환을 설명했다. 또 3부에서는 시험노이로제, 관음증과 섹스중독, 집단따돌림, 테러와 폭력 등 사회현상을 진단했다. (한울·값12,000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김만식(97년 工大卒)·김현희 양=1월 20일 12시 30분.

서울대 동문 人名錄 자료 송고 양식

◆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 2002년 인명록에 기록 될 본인 및 주위에 알고 계시는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재하셔서 우편, 팩스 또는 E-mail 등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과정을 이수하신 동문께서는 각각의 학과명과 입학. 졸업년도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명록의 구입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성명	한자성명	영문성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단과대학	학과
직장명		부서	직위
직장주소		직장전화	
직업 및 업종군	E-mail	핸드폰	
주택주소		주택전화	
주요 약·경력		인명록신청여부	() / 자택()

■발행일 : 2002년 6월경
 ■자료마감 : 2002년 3월 30일
 ■내용: 회원명부, 직업, 직장별 명부, CD-ROM TITLE
 ■구입가격 : 100,000원
 ■회원 인적 사항 통보 및 문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 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8-5
 TEL: 02)704-8301(直)
 FAX: 02)704-8564
 E-mail : snua2002@korea.com

◆ 단위별 동문회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각 단위별 동문회(단과대학별, 학과별, 입학년도별, 직장별, 지부별 등)에서는 단체의 임원진 및 동문님들의 현황이 담겨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작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6	워싱턴 DC (MD, VA)	80 김병오(의대 63입) 박준영(의대) 김정환(문리대 60입) 김재동(인문대 70입) 박홍우(문리대 65입) 박유수(\$100, 문리대 48입) 백순(법대 58입) 김영기(법대 50입) 한혜경(간호대 43입) 김명자(법대 52입) 유달(의대 61입) 민길우(문리대 61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이영목(공대) 박평일(농대 69입) 이재승(의대 55입) 도상철(의대 63입) 오해현(약대 59입) 방은호(약대 42입) 조근실(사범대 40입) 조병선(의대 71입) 마계일(치대) 한혜경(간호대 43입) 심준보(상대 55입) 문성길(의대 63입) 이정균(미술대 77입) 이항열(법대 57입) 주일(의대 46입) 문세화(법대 57입) 엄승용(농대 57입) 오기창(법대 50입) 김석호(공대 78입) 고무환(법대 57입) 김창호(법대 56입) 이정섭(의대 48입) 박병영(의대 66입) 조남현(의대 64입) 김충규(의대 60입) 이신규(\$100, 공대 63입) 김창웅(법대 60입) 김진홍(의대 68입) 장병규(사회과학대 76입) 이내원(사범대 58입) 박형순(의대 60입) 김국(농대 75입) 박태조(음대 64입) 박영호(공대 64입) 홍영석(공대) 김택경(의대 54입) 신상균(의대 52입) 조인욱(간호대 71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장효강(공대 66입) 김수웅(문리대) 이근순(간호대 73입) 강준희(의대 71입) 윤계일(약대 60입) 김재구(의대 56입) 전경철(공대 55입) 소속영(간호대 64입) 이홍석(공대 49입) 변만식(사범대 49입) 정재성(의대 68입) 임필순(의대 54입) 김기환(공대 67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신영철(의대 53입) 진금섭(약대 57입) 김효성(공대 51입) 이형모(의대 45입) 유영준(의대 68입) 정두현, 석균범(문리대 61입) 박인영(의대 69입) 정약훈(의대 49입) 이정의(의대 59입) 오광동(공대 52입) 맹옥열(간호대 68입) 이선구(\$100, 문리대 65입) 이규섭(상대 68입)
07	워싱턴주 (WA)	20 허윤희(사범대 57입) 안승직(농대 59입) 최경수(사범대 52입) 전병택(상대 69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송세창(상대 53입) 전계상(공대 40입) 김재호(상대 54입) 유성렬(공대 72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이순모(공대 56입) 이동립(의대 5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혜숙(문리대 64입) 김영일(공대 53입) 양용관(수의대 62입) 채태용(법대 55입) 유재명(의대 65입) 김복오(법대 74입) 김장태(문리대 53입)
08	휴스턴 (HOUSTON, TX)	20 박민자(사범대 58입) 김충열(의대 56입) 노승국(의대 64입) 유금영(법대 50입) 허천(공대 60입) 김성철(의대 61입) 김학래(공대 60입) 이옥배(문리대 62입) 이찬주(공대 63입) 김영창(공대 64입) 박진수(의대 58입) 이은실(문리대 53입) 현인실(공대 57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최관일(공대 54입) 이진현(의대 67입) 이규진(의대 60입) 황호자(음대 62입) 박승규(의대 59입) 김태훈(공대 57입)
09	달라스 (DOLLAS, TX)	5 신철영 김성호(수의대 81입) 전중희(공대 56입) 김인호(공대 47입) 임성빈(사범대 56입)
10	미네소타 (MN)	15 송창원(문리대 53입) 김영남(사범대 53입) 권승립(공대 52입) 남세현(공대 67입) 박상빈(공대 71입) 남세현(공대 67입) 김태환(의대 58입) 최정음(공대 58입) 신학철(공대 75입) 김권식(공대 61입) 문일지(공대 61입) 조형준(문리대 62입) 변우진(인문대 81입) 왕규현(의대 56입) 주하수(농대 62입)
11	조지아 (GA)	16 이철남(의대 50입) 사성주(\$100, 사범대 70입) 윤민자(음대 65입) 주중광(약대 60입) 유우영(의대 68입) 장병건(대학원 64입) 김민복(문리대 72입) 한영수(의대 54입) 이관호(공대 45입) 은철수(상대) 백낙영(상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박천기(법대 56입) 이준남(의대 59입) 계광무(공대 63입) 오경호(농대 60입)
12	아리조나 (AZ)	4 최상호(공대 53입) 박양세(약대 48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진명규(공대 70입)
13	유타 (UT)	4 이정면(사범대 47입) 한성양(문리대 62입) 김성완(문리대 59입) 손홍용(공대 58입)
14	하와이 (HI)	9 백영기(의대 50입) 유재호(\$100, 문리대 59입) 구해근(문리대 60입) 오갑열(행정대학원 75입) 박성재(상대 49입) 남궁중(공대 52입) 황재만(농대 71입) 김장원(공대 49입) 김용진(공대 50입)
15	오레곤 (OR)	8 김선호(사범대 59입) 박창성(사범대 72입) 박희진(문리대 57입) 김상순(상대 67입) 김상만(음대 46입) 성성모(사범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16	기타 (서부)	6 최완열(상대 56입) 서만길(의대 63입) 이학은(약대 57입) 홍지호(공대 53입) 박용호(의대 59입) 김현철(의대 57입)
17	기타 (중부)	2 이화백(의대 55입) 유태준(의대 59입)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1 장영규(농대 65입) 한광수(의대 57입) 오신중(의대 60입) 정양수(의대 60입) 정구영(의대 50입) 박종선(공대 60입) 오인석(법대 59입) 박준홍 정병욱(의대 59입) 조동립(의대 56입) 이종진(공대 55입)
19	필라델피아 (PA)	29 이승환(공대 56입) 이만택(의대 58입) 김세경(미술대 62입) 이상봉(문리대 65입) 이규호(공대 56입) 염극용(의대 60입) 윤정나(음대 57입) 정덕준(상대 63입) 정학량(약대 56입) 서중민(공대 64입) 김현영(수의대 58입) 남신우(공대 61입) 김용국(의대 58입) 임광상(공대 57입) 심완섭(의대 73입) 이광연(공대) 윤석희(치대 68입) 주기목(수의대 68입) 안지영(문리대 71입) 구정음(의대 55입) 오진석(치대 56입) 김영우(공대 55입) 신성식(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서진석(의대 62입) 최환(공대 68입) 양은택(의대 58입, \$100) 이기범(의대 56입) 전방남(상대 73입)
20	뉴잉글랜드 (MA)	25 변종원(공대 70입) 김성빈(문리대 59입) 김은하(의대 60입) 최인섭(의대 72입) 김제호(상대 56입) 김호영(약대 52입) 김교안(의대 59입) 박현자(음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강길원(의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윤상래(수의대 62입) 박병준(공대 52입) 김양일(경영대) 이재신(공대 57입) 김문소(농대 61입) 변희경(음대 66입) 문대욱(의대 73입) 문형성(의대 65입) 정용국(공대) 박기순(간호대 70입) 김경석, 배성호(의대 65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순규(문리 53입)
21	하트랜드	16 이경배(사범대 61입) 류광현(문리대 58입) 박옥동(상대 56입) 박무환(문리대 52입) 신두식(의대 58입) 오태오(의대 56입) 오계숙(미대 59입) 임하진(의대 79입) 민경환(의대 56입) 유준혜(의대 70입) 박세화(의대 76입) 이상강(의대 70입) 김경숙(가정대 70입) 설원종(의대 60입) 구명순(간호대 66입) 이상문(상대 57입)
22	펜실바니아	5 박문희(의대 52입) 이목인(공대 75입) 홍수웅(의대 59입) 심기련(상대 57입) 심재철(공대 78입)
특별기부금		2 (고) 전시룡 동문의 미담인 \$ 50, Mrs. 안광원 \$ 82
계		894 \$45,632

조수미 CD 주문서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주문서 (8-25-01 Washington DC 공연 실황 녹음)

구입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구입 수량 및 금액: CD _____ 개 총액 \$ _____ (우송료 포함)
 수표는 Payable to SNUAUSA *가격: 1장 당 \$15.00 (우송료 별도)
 우송료는 1장 당 \$3.00, 복수 구입시 추가 1장 당 \$1.00 추가

*주문서를 기입하여 CD대금과 우송료를 합계하여 재미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SNUAUSA
 790 BUSSE ROA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 판매대금 전액은 재미 동창회를 위한 관약후임금과母校의 後進을 위한 基金에 적립됩니다.

절취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필)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중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1)

2)

-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분 ()시간 정도
-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시셔도 됩니다)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래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1) 만족한다()
- 2) 좀 부족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앞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주소: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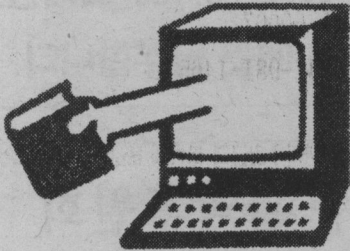
e-mail:

Fax :

기타 의견란

2002년 2월 28일

한국의 대형 서점을 내 방안에



25만여종 / 풍부한 서평 / 최고 40% 할인

AladdinUS.com Internet Korean Bookstore

T323.692.9888 • F323.692.9952 • I888.338.8480 • 4282 Wilshire Blvd., 2fl. LA, CA 90010

AladdinUS.com 이형렬(국문 79입) 송명국(국사 81입) 윤장희(경영 83입) 최경희(사회 83입)

지부	회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김종욱 B:914-714-0587 F:914-686-0186
남가주	임낙균 B:213-999-1600 H:310-530-4353	김지영 B:213-532-3600 H:818-952-5606
샌프란시스코	정조웅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배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한재은 B:841-741-7990 H:847-428-4929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B:508-366-2743 H:508-389-1760 <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태환 B:612-863-4060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진금섭 B:703-205-8064 H:703-631-0631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워싱턴주	허윤행 B:360-683-4195 H:360-683-4197	고희선 B:425-673-7258 H:425-787-0292
휴스턴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권형욱 B:520-624-8254 H:520-624-8254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리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배규영 B:816-524-7414 H:913-345-2396
중부펜실베이니아	송재훈 B:814-865-6998 H:814-466-0542	이 욱 B:814-862-0494
캐나다/온타리오	유희자 B:416-960-0074	정순교 B:416-512-1833 H:905-884-4306
캐나다/밴쿠버	황태구 B:604-433-8539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체 안내

<p>강관</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 692-0600 Sant Fe Springs, CA</p> <p>골프용품</p> <p>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 60입) (212) 564-2255 New York, NY</p> <p>공인회계사</p> <p>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입) (201) 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범선 (상 48입) 이경림 (상 64입) (212) 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입) (212) 695-0206 New York, NY</p> <p>Delloitte & Touche LLP 김낙구 (상 67입) (213) 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희 (상 55입) (212) 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 (상 68입) CPA, CFA (703) 642-2900 Annandale, VA</p> <p>국문서점</p> <p>IBCONS INT L 김재철 (공대 58입) (212) 460-2815 New York, NY</p> <p>교역</p> <p>진리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입) (718) 225-1000 New Hyde Park, NY (L. I. E. Exit 33 South)</p>	<p>국제금융</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입) (212) 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입) (410) 962-8409 Baltimore, MD</p> <p>금고</p> <p>Alco Lock & Safe 정인식 (상 58입) (212) 867-3377 New York, NY</p> <p>금+부지</p> <p>Liberty Bank of New York 우상영 (상대 55입) (201) 695-5757 New York, NY</p> <p>의림은행 브로드웨이 지점 이홍일 (상대 70입) (212) 736-6575 New York, NY</p> <p>무역</p> <p>Nina America Inc. 강석권 (법 61입) (212) 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입) (516) 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입) (503) 620-1001 Lake Oswego, OR</p> <p>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입) (310) 216-7929 Los Angeles, CA</p> <p>법포시</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입) (718) 463-3500 Flushing, NY</p>	<p>김용화 변호사 김용화 (법대 69입) (212) 619-1770 New York, NY</p> <p>병원 내과</p> <p>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입) (718) 768-1264 Brooklyn, NY</p> <p>병원 수의(동물병원)</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화 (수의 75입) (330) 534-8383 Hubbard, OH</p> <p>병원 시공의사</p> <p>Rim and Sul, MDPC 임준수 (의 57입) (313) 882-2922 Grosse Pointe, MI</p> <p>병원 시공의사</p> <p>Kenneth Song 송관호 (의 58입) (212) 423-4817 New York, NY</p> <p>병원 위생내과</p> <p>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입) (718) 461-6212 Flushing, NY</p> <p>병원 치과</p> <p>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입) (201) 871-0007 Tenafly, NJ</p> <p>부식</p> <p>Gold Plus 서재숙 (음 65입) (212) 354-8988 New York, NY</p> <p>보급</p> <p>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입) (213) 387-5252 Los Angeles, CA</p>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 (상 59입) (718) 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입) (718) 463-9100 Flushing, NY</p> <p>부동산</p> <p>Cosmo Realty 이재택 (법 60입) (201) 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일 (법 60입) (201) 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 (회망부동산) 최 호 (문 61입) (201) 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 (농 64입) (213) 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입) (703) 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업무관 (문 65입) (800) 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입) (206) 972-3675 Everett, WA</p> <p>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故 권혁진 (문 60입) 창업 (773) 463-7756</p> <p>설계</p> <p>JND Engineering, Co 박진득 (농 67입) (310) 404-1848 Cerritos, CA</p>	<p>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입) (310) 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입) (718) 392-0111 L. I. C. NY</p> <p>업식</p> <p>Care Tex Industries, Inc. 김봉창 (약 50입) (562) 602-6567 South Gate, CA</p> <p>운수부품</p> <p>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입) (592) 467-5455 Artesia, CA</p> <p>상지</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입) (213) 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입) (213) 368-9000 Los Angeles, CA</p> <p>외환기금</p> <p>MASH 심상은 (상 54입) (213) 487-5695 Los Angeles, CA</p> <p>의류</p> <p>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입) (201) 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 (상 61입) (201) 440-8500 Moonachie, NJ</p> <p>인터넷 서점</p> <p>KS E biz 장세완 (농 69입) (201) 722-4796 River Vale, NJ</p>	<p>인터넷 서점</p> <p>Aladdin USA 이형렬 (문 79입) (323) 692-9888 LA, CA</p> <p>지주지 부동</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입) (310) 327-1006 Gardena, CA</p> <p>잡지</p> <p>Amkor Anam 정홍택 (상 61입) (214) 580-1879 Philadelphia, PA</p> <p>주류상</p> <p>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 (문리 73입) (613) 265-1121 Smithtown, NY</p> <p>학원</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 (상 57입) (718) 358-0538 Flushing, NY</p> <p>한의원</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입) (718) 353-6207 Flushing, NY</p> <p>브롬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입) (718) 733-1399 Bronx, NY</p> <p>약국</p> <p>Revicci(레비치) 신정력 (약대 52입 - 화장품, 약품개발) (973) 994-1421 Short Hill, NJ</p> <p>화원</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음 65입) (800) 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향 (간호 72입) (626) 287-6161 San Gabriel, CA</p>
---	--	--	--	---	--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부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사업 종류*(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3.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 ①일시불 ()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